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세상에서 제일 큰 집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시대 ▶2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5월 29일) · 주간

제 897 호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일을 하되 게으르지 말며
재물을 미리 모으고 쌓아
궁핍할 경우를 준비하라.
「장아함경 제11권」

# 구멍 난 수도권불교 해법은 '지역 세분화'

## 불교사회硏, '강북 · 강남 · 인천' 분구案 주목

현재 2012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약 2천 5백만 명. 대한민국 1/3의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불교에게는 포교 전략상 어느 곳 보다 중요하지만, 수도권 불교는 현재 고사 위기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중 불교를 믿는 비율은 약 16%. 반면, 개신교는 23%, 천주교는 13%에 이른다. 개신교와는 7%가량의 격차가 나고 천주교는 3% 차이로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 같은 열세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등 서울 'Big4' 지역에서는 더욱 도드라진다. 강남구의 경우 불교 인구는 15% 정도로 개신교(23.4%), 천주교(20.6%)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 서남권의 중심인 양천구 역시 천주교에 뒤쳐진지 오래다. 이는 불교가 사실상 수도권 2위 종교로서의 위치도 위태롭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뇌사 상태의 수도권불교에 대한 불교계의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행 교구와 국가 행정구역 불일치를 지적한다.

실제,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구리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오산시, 동두천시 등은 불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공백 지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도시 포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휴)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종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주택용지 중 불교는 단 1필지도 공급되지 않았다.

특히 경기 지역 뉴타운의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다. 13개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 중 개신교는 72.2%, 천주교는 17.7%, 기타 종교는 6.3%의 종교용지를 확보했다. 반면 불교는 한국SGI, 천도교, 영생교보다 낮은 3.8%에 그쳤다. 더구나 불교는 경기도 뉴타운 전체 지역 중 존치시설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구 지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빚어진 수도권불교의 공동화 현상이 가져온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내논 '수도권 불교 활성화 방안'은 서울 · 경기지역 불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수도권불교 활성화 방안'으로 △공백 지역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교구 획정 △직할교구 세분화 △직할교구 행정조직체계 확립 △교구종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교구 9개市 공백지역**
**신도시 종교용지, 불교 '無'**
**3개 교구 · 18개 지역 나누고**
**지역별 전담 사무처 신설해야**
**총무원 집행부 결단이 관건**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 인천을 담당하는 직할교구의 분구(分區)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제안한 분구 방안은 하나로 통합된 기존 직할교구를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 강북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전등사를 중심으로 한 인천으로 나누는 것이다.

큰 틀에서의 직할교구를 대리구 형식으로 세분화하고 교구본사대리 사찰을 지정해 짜임새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각 교구본사대리 사찰에는 교구업무만을 관장하는 교구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대사회적 의제를 기민하게 대응할 상설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자는 게 불교사회연구소의 제안이다.

이와 함께 분구된 지역을 다시 2~3개 지역으로 묶어 총 18개 지역을 지정하고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교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현재까지는 각 사찰이 자신의 역량 껏 각자도생해 왔다"며 "중앙 종단, 교구 본사, 교구 사무처, 지역 말사, 세부 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게 이번 방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할 교구를 분구하고, 지역별로 나누고 이를 담당할 지역사무처를 신설 · 확대하면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사찰들의 위계 구조와 역할 분담 체계가 정립되고, 지역 단위부터 교구단위까지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구종회 활성화도 수도권불교 발전 방안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직선직 교구종회의원 수를 늘리고 △교구본사 소유재산 처분 동의 △교구본사, 각급 산하기관 감사 △본사 산하 기관장 불신임 결의 등 교구종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자는 게 불교사회연구소의 주장이다.

또한, 직할교구 비소속 사찰 관리를 위해 교구 종회에서 타교구 사찰 주지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들도 적지 않다. 최대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담 사무처, 지역사무소 설립 비용과 충당 인력이 전제돼야 하며, 교구 전반적인 문제를 제도화하는 교구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190회 중앙종회 결의로 분담금 납부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이라며 "수도권불교는 벼랑 끝에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현실화가 어렵다면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강북 교구를 시범 모델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의 49재가 7월 9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전국 각 지원에서 사부대중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 49재 봉행

## 7월 9일 사부대중 1만여 명 참석

5월 22일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의 49재가 7월 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와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49재는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의 사회로 명종, 개식, 삼귀의, 육법공양, 육성법문, 음성공양, 헌화와 어산장 동희 스님의 청혼 순으로 진행됐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은 이 시대의 문수보현보살의 화신이고 현대포교의 화신이었다"며 "스님은 생활법문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문화 · 청소년 포교로 큰 장(場)을 이루었다. 다시 큰 보살로 환생하시어 온 세상에 감로의 법비를 내려주소서"라고 추모했다.

1만 대중은 대행 스님의 육성법문을 다시 들으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49재 봉행 후 대중에게 대행 스님 추모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와 스님의 법문을 담은 CD를 법공양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관련기사 16 · 17면

# 부처님 가피 입고 금메달 획득하세요

## 불교계, 런던올림픽 선전기원 행사 잇달아

'2012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0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2012년 런던올림픽 선전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기흥 런던올림픽 선수단장, 이경훈 대한체육불자연합회 회장 등 런던올림픽 출전 불자선수단이 함께 참석했다.

이기흥 선수단장은 "현재 런던올림픽 텐텐(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메달 후보 선수 중 불자선수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메달 획득과 더불어 불법을 널리 홍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어에서 "몸은 마음가짐대로 따라가기 마련이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올림픽에 앞서 부처님 가피로 마음가짐을 굳건히 해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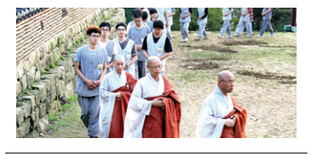
7개 종교의 수장들이 7월 10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은 함께 모여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 897호 INDEX


종단 2
한국불교 문제점 대화마당

종합 3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 물의
종교단체 평생교육원 설립 토론회

시방세계 5
조계종 출가학교 회향 현장



부처님 십대제자에게 배운다 14
사리불 〈하〉

법정 스님을 만난 사람 18·19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문화 20
여름 산사 추억-윤후명 소설가



# '불교닷컴'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생각입니까?

**불교닷컴은 충격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대규모 매출누락 및 탈세 의혹**

불교닷컴은 이석만 대표의 명의로 광고비를 청구하고, 돈은 이석만이 대표가 아닌 이사 1인과 감사 1인만 남아있는 유령회사에 가까운 불교닷컴(주)로 수령해왔습니다. 이석만의 불교닷컴과 불교닷컴(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양측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영업을 함으로써 지난 5년간 최소 수 억원으로 추정되는 광고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멸빈자가 대표로 있는 (사)불지회와 수상한 금전거래 의혹**

또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불교닷컴이 제주 관음사 사태로 멸빈된 김정희(법명 중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불지회를 통해 광고비를 수령하는 등 수상한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입니다. 제보된 자료에 의하면 불교닷컴은 기업, 학교, 정부기관 등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불지회 명의로 광고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방식의 매출 누락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 부당한 방법으로 후원인 모집 의혹**

불교닷컴은 수 년간 "미디어포교에 매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불자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마치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처럼 독자와 후원인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후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론의 길을 걷고 있는 대다수 교계 언론을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보다 성숙된 불교 언론 문화 조성과 언론사 발전을 위해 신도 대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호법위원회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2호 해인사 장경판전



## 세상에서 제일 큰 집

김 후 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입니다
가야산 중턱 해인사
숨은 듯 깊은 산 속에
팔만대장경 품어 안고
오랜 세월의 무게 묵묵히 감당해왔습니다

법보사찰 장경판전
어느 시대의 눈빛이 이렇듯 강하고
태산 같은 버팀목 되었으리오
그 역사 짊어진 하는 여전히 향기 감돌고
자부심 짙은 숨결
멀리 멀리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무심한 듯 단조로운 모습
남쪽 수다라장 북쪽 법보전
그러나 원할한 통풍 위해 창의 크기 다르게 틔우고
흙바닥 속에는 숯과 횟가루 소금 모래 차례로 깔아
습도 조졸하여 자연조건 살리면서

참으로 지혜로워라
합리성 과학성 살린 장경판전

정녕 세상에서 제일 큰 집입니다.
팔만대장경 귀하고 귀한 겨레의 보물
뜨겁게 지켜온 우리 겨레의 집입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김후란** 시인은… 서울 출생. 195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눈 속에 핀 하늘 보았니〉, 〈습득〉 등.

# "진실없는 참회 · 성찰은 쇄신의 장애"

## 사부대중연대회의 '한국불교 문제점' 토론회 개최

"종단이 스님들의 범계행위를 의식해 성찰과 쇄신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진실없는 참회와 성찰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성찰과 쇄신은 진실에 대한 조사와 공표로부터 시작한다."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부대중연대회의(공동대표 만초)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이수덕)는 7월 1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주제로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대화마당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한국불교가 자본주의에 매몰되고 정권과의 유착 관계를 맺는 등 스스로의 정당성과 위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한국불교의 문제점으로 △승단의 중세성과 기복신앙 △승단 문화와 계율의 괴리와 이에 따른 범계행위 △근대국가 정권과의 유착 등을 꼽았다.

특히 승단의 문화와 계율 사이의 괴리가 이번 도박 파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정 집단에서 어떤 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규범은 그 문화를 규제하는 장애로 자리잡는다"면서 "결국 문화에 맞춰질 때까지 문화와 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행자들에게 벌보다는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자성불의 목소리가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를 위해 호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호법부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양

**승가문화 · 계율 괴리가 문제**
**현대 승가에 맞는 청규 제정**
**사찰운영위 민주성 담보돼야**
**쇄신안 전반 회의적 목소리도**

형기준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의 진정성있는 쇄신을 위해 신뢰받는 출 · 재가자 함께 참여하는 '청정승가 정립을 위한 범계행위 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스님들도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계율과 청규를 현대화해 도박과 음주를 대체할 만한 놀이문화와 취미, 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 등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에 대한 보완책들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사찰운영위원회 내의 민주성과 지속성, 감시 체계 확립이 수반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과 재가불자 사이에 권력이



사부대중연대회의 참여불교재가연대는 7월 12일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안'을 주제로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비대칭 일 경우 사찰운영위원회는 주지의 의사를 추인하는 형식 기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신도들이 사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식적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찰운영위원회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또한 주지가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종단 쇄신 전반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도 나왔다. 사부대중연대회의 대표 만초 스님은 "최근 불거진 일련의 문제가 촉매가 돼 자성 또는 쇄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희망보다는 불신의 분위기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쇄신이 먼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초 스님은 "지금처럼 종단의 쇄신 발표에 회의적 정서를 지닌 다수의 종도들의 쇄신 의지를 일깨우고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도들의 공감대와 감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화마당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산스님, 동출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실무자를 비롯해 재가불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 "사찰 방만 운영, 선각 스님 재임 안돼"

### 해인사정상화추진회, 11일 기자회견… 재임 반려 촉구

188억원이라는 장기부채를 발생시킨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의 주지 재임 품신을 반려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인사정상화추진회(공동의장 원학 · 여연, 이하 정상화추진회)는 7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승인없이 사찰재산을 처분한 선각 스님의 주지품신 반려와 중징계를 총무원에 촉구했다.

정상화추진회는 선각 스님의 가장 큰 과오로 2010년 해인사 토지 1만 2천평을 24억원대에 매각한 것을 꼽았다. 이들은 "대장경 조성 천년기념축전 행사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애초 합천군 예산을 이유로 임대를 원했다. 하지만 선각 스님의 강한 요구로 매가됐다"며 "토지 대금 24억원은 곧바로 선각 스님이 수년 간 수익사업을 해오던 조주고시텔과 소리원 매입 및 건립비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정상화추진위는 "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임 시 종단 승인 없이 사찰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는 본말사 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며 "선각 스님은 2009년 8월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법당 소유지분 100분의 1을 종단 승인 없이 수천만원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승인 없이 사찰부동산을 매각하고, 188억원 대 장기채무를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는 모두가 중징계 사안"이라며 "종무원법은 종무원이 직무상 저지르는 종법 위반 사안을 일반 스님보다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선각 스님은 4년을 끝으로 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각 스님은 6월 29일 해인사 방장 스님의 추천을 받아 주지품신 서류를 총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 신임 법규위원장 허운 스님 선출

### 조계종 법규위, 75차 회의서



조계종 신임 법규위원장에 前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7월10일 제75차 회의를 열고 새 법규위원장에 허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간사에는 보경 스님이 선임됐다. 그간 법규위원장은 무상 스님이 송광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지난 2월부터 공석으로 있었다.

허운 스님은 선출 직후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위원 스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받들어 종단이 바로 설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규위원회 이날 '사설사암 등록 신청 보류에 대한 종법 위배 심판 청구의 건'과 '직권제적 처분의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을 다뤘다.

신중일 기자

## 조계종 원로회의 7월 20일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가 의결안 종단 쇄신법 인준안이 최종 논의된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오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0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90회 임시종회에서 의결된 종헌 개정안의 인준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종헌개정안은 종정, 원로 의원,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의 자격을 법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7월 11일 7면 하단 징계공고에 관하여 알립니다.

현대불교신문 7월 11일 7면 하단 규정부장이 선계 한 징계공고는 대한불교원효종 규정원법 제 4장 제 21 조 규정대상자에 관한 사실 조사 후, 규정원장에게 보고하고 포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후 총무원장에게 품계 하여야 함. 제 22 조 그 보고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징계를 하여야 함. 규정원법 제 5 장 제 25 조 규정원장은 각급의 종무원에게 의결된 사항을 통보하고 통고를 받은 실무원은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징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 26 조 3회 이상 출두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징계 회부처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두요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 29 조 규정대상자에 대한 명예와 위신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원법을 무시한 채 징계법령을 적용하여 불교신문에 해당 종도들을 공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안종명(법명 : 상천), 김상배(법명: 상묵), 손영채(법명 : 우석) 의 치탈도첩에 처한다는 공고는 무효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에서는 규정부장에게 6월 29일자 직위해임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송달된 날짜 이후로는 본 종단의 규정부장으로써의 일체 행위가 금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자격없다"

## 청문회서 여야 쟁점다뤄… 불교계도 비판 고조

장애인 판사로 잘 알려진 김신〈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정종교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등 과거 종교편향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 · 울산 지역의 성시화 운동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행적은 7월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논란 거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적 틀 안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종교편향이 심하다"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종교가 있다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한 것과 김 후보자의 부산 성시화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면서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국민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제 판결이 종교 편향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와 기도를 한 사건은 교회 분쟁 사건이었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법한 방법이었다"고 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 행적은 최재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통해 7월 8일 세상에 알려졌다. 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교회 분쟁 다루며 기도회**
**부산지역 성시화 운동 주도**
**김신 "종교편향 동의 안해"**
**종자연 등 교계 성명서 발표**

교회 분열을 조정하는 재판정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아멘'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종교편향적 행보는 성시화 운동 등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 하겠다'는 성시화 운동은 수차례 종교 갈등을 유발해 온 전례가 있어 왔다. 부산기독교인기관장회 화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부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지방법원장 임명 후에는 울산 지역 성시화를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하는 등 부산, 울산 지역 성시화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종교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망언을 자신의 저서에 담아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2001년 1월에 일어난 인도 대지진에 대해 기술하며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종교편향적 행보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는 7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일련의 발언들은 이미 헌법 제20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제1항(종교중립의무 위반)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김신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역시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고 김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 언행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7일부터 8일까지 속초 신흥사서 열린 2012 체육인 불자회 하계 수련대회는 런던올림픽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사진은 8일 열린 수계법회에서 수계사 스님들이 선수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1면에서 계속**

이날 법회에 참가한 배트민턴 이용대 선수는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체육인불자회(회장 이경훈)도 7월 7일부터 8일 제3교구본사 신흥사 일원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열고 런던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8일에는 새벽 예불과 선수단 수계식을 함께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 나선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수계 법문을 통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했다.

이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는 불자 선수와 선수단의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각계의 격려가 쏟아졌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추위가 뼛속까지 사무치는 경험이 있어야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과 임원진들은 이런 원력을 세우고 불철주야 용맹정진을 해왔을 것이다. 이제 40억 지구촌 인구 앞에서 진한 매화 향기를 맡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계 수련대회에 참석한 최규진(그레코로만, 55kg) 선수는 "준비를 많이 했던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레슬링은 신체 접촉이 많은 격기(擊技)다. 그만큼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하다. 불교 신행은 성적향상 많은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하계 수련대회는 불교 참선 강의, 비룡폭포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중일 · 이은정 기자**

#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 운영 제도 필요"

## 최재성 의원 입법공청회… 현행 법상 문제점 논의

고령화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종교계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7월 12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종교계를 비롯해 정치 · 법조계, 정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제도마련에 대한 입장이 일치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황재선 변호사는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설치지역에 관한 문제 △설립주체의 문제 △강좌의 문제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단체 시설 이용 및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학원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특성에 맞게 종교단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현행법상 종교단체는 법인 및 단체 설립 후 부설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해야하는데 운영을 허가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평생교육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원 등과의 이익침해문제에 대해서는 "반경 10km이내 학원 교습과목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7월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치 · 종교 · 시민사회계의 제도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공공성 맞춰 종교시설 이용**
**인성, 문화프로그램 등 개발**

제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병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과 조현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총괄기획이사, 정성진 기독교 공공정책협회 거룩한빛 광성교회 목사 등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이태호 조계사 기획이사는 "종교시설이라 할 지라도 종교상징물이 없는 공간은 평생교육원 교육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강좌 또한 종교관련 강좌와 학원법에 저촉되는 청소년 대상 학과목 강좌 개설을 금지하돼 인성과 심성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다른 강좌는 개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컴오피스 불교용어 한자변환 쉬워진다

## 동국대 불교학술원 · 한컴 MOU체결

한컴오피스(이하 한글)에서의 불교용어 한자변환을 비롯한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7월 11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한글과컴퓨터와 '불교기록문화유산사업 · 한컴오피스 한자사전의 개선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존 불교용어의 경우 한자사전에 대부분이 등록돼 있지 않아 한자로 변환할 때 한 글자씩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보리(菩提), 보살(菩薩) 등 대표적인 불교용어 조차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씩 맞는 한자를 찾아야 했다.

이제는 검색엔진이 단어를 인식하면 한자 변환키 한 번에 한글 불교용어는 한자로 바뀔 수 있게 됐다.

불교학술원은 한컴 측에 검수가 완료된 2만여 불교단어를 제공하고 2014년 말 10만 단어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한컴은 제공받은 불교용어를 향후 출시 예정인 한컴오피스 제품과 기존 제품에 업데이트 등으로 반영한다.

**노덕현 기자**

# "불교닷컴 경영비리 해명하라"

## 조계사호법위, 재차 문제 제기

조계사호법위원회(위원장 성진)가 불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에 경영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조계사호법위원회는 7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등록 미비로 대규모 매출 누락 및 탈세 △멸빈자가 대표로 있는 (사)불지회와의 금전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후원인 모집 등을 구체적 의혹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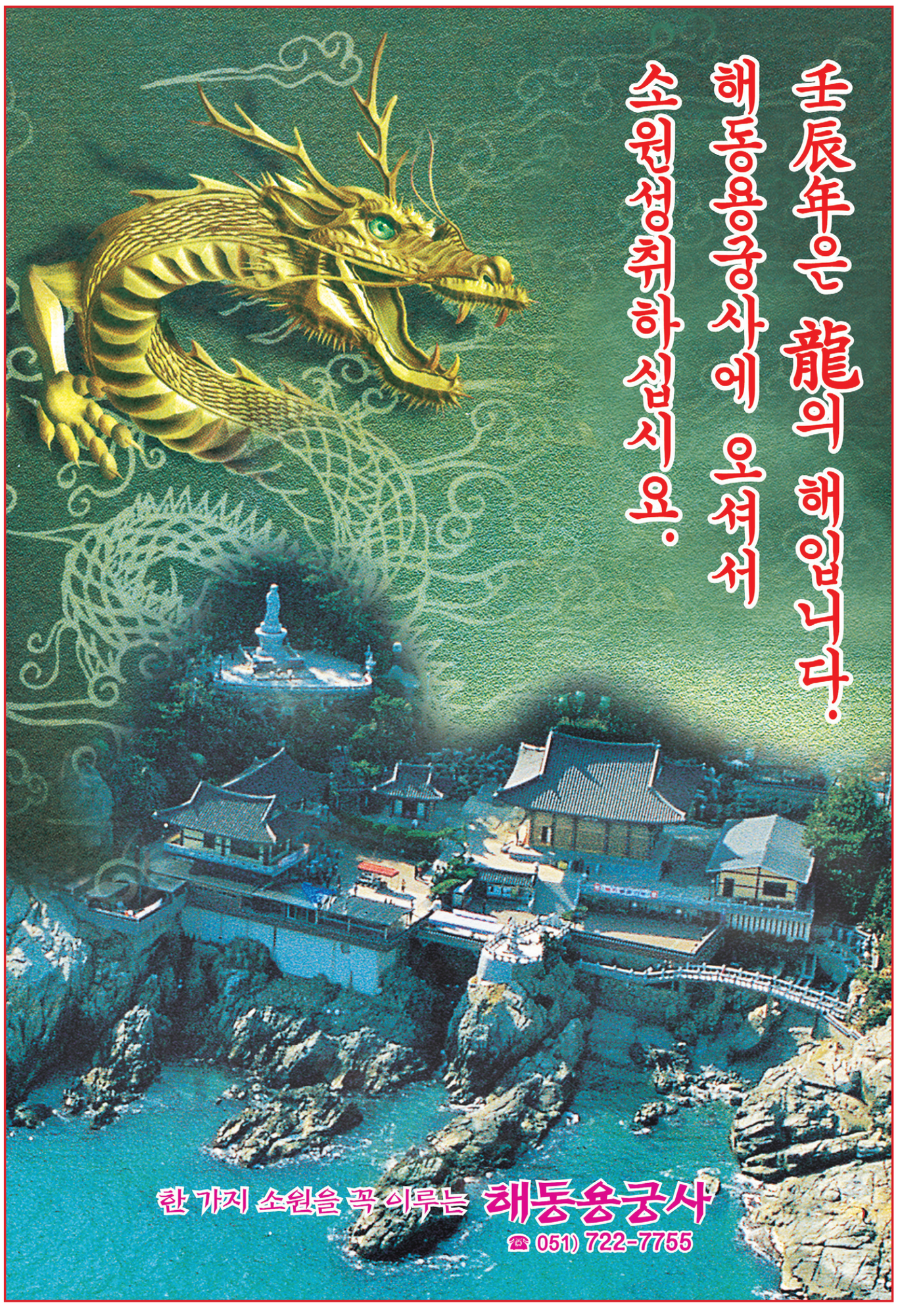
조계사호법위원회에 따르면 '불교닷컴'의 광고비 청구 입금 계좌가 이사 1인, 감사 1인이 있는 '불교닷컴(주)'이었으며, 두 회사 모두 사업자 등록없이 운영해오고 있었다.

학교, 기업 등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을 때에는 (사)불지회를 통해 광고비를 수령하게끔 했다.

이와 함께 '불교닷컴'이 "미디어포교에 매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불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불법적으로 후원자를 모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휴)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닷컴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교계 쇄신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묵살할 경우 사법기관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신중일 기자**



## 일 주 문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완공**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7월 12일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2012 정조 효 인문학 캠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8월 14~16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2012 정조 효 인문학 캠프를 개최한다. (031) 239-9391



**충주서 감사패 수여**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7월 8일 2017년 전국 체전이 충주에서 유치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종배 충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황해사 발원대법회**

천태종 포항 황해사 주지 진덕 스님은 7월 5일 해동관음근본도량 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 〈인사〉 위덕대 총장에 서남수 前 교과부 차관 선임



진각종 종립 위덕대 총장에 서남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7월 12일 서울 강남 법인회의실에서 제40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남수 신임총장은 "경주 · 포항지역의 명문 교육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신임총장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교과부의 행정사무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다. 서 총장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다. **노덕현 기자**

## BBS불교방송 인사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7월 12일 국장급과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보도국장 직무대리 박관우 ▷기술영상국장 직무대리 홍금표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직무대리 권병훈 ▷편성제작국장 박상필 ▷광주불교방송 총괄국장 손경현 ▷춘천불교방송 총괄국장 진영조 ▷울산불교방송 총괄국장 강응규

**부장급** ▷편성제작국 라디오제작부장 김상준 ▷ 편성제작국 TV제작부장 김형만 ▷편성제작국 아나운서부장 이명학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양봉모 ▷보도국 사회부장 겸 교계문화부장 조문배 ▷후원회업무지원단장 겸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김봉래 ▷기술전략부장 겸 TV기술부장 박성일 ▷기획관리국 기획심의부장 신범식 ▷기획관리국 총무부장 이중택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박경수 ▷춘천불교방송 총무부장 류재호 ▷울산불교방송 방송제작부장 최윤희 ▷광주불교방송 총무부장 이재형

# 사설사암 종단 등록 '종도 의무'

### 각성 스님, 생가에 수선사 건립 종단 등록 '귀감'

"불가의 모든 것은 삼보정재입니다. 개인 함부로 할 수 있게 아니지요. 내가 건립한 사찰이지만 종단이 투명하게 사찰을 이끌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종단의 대강백으로 잘 알려진 부산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은 사설 사암의 종단 등록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최근 종단의 어른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불사를 이뤘다. 전남 장성에 있는 자신의 생가와 인근 부지 6611.57㎡를 매입해 '수선사(修禪寺)'라는 사찰을 창건했다. 사찰이 완성된 직후에는 곧바로 공찰로 등록, 소유권을 종단에 기증했다. 소속 교구본사는 스님의 상좌가 주지로 있는 제16교구본사 고운사다. 사찰 불사 비용도 스님의 강의, 법문, 출판 등으로 모은 사재를 보시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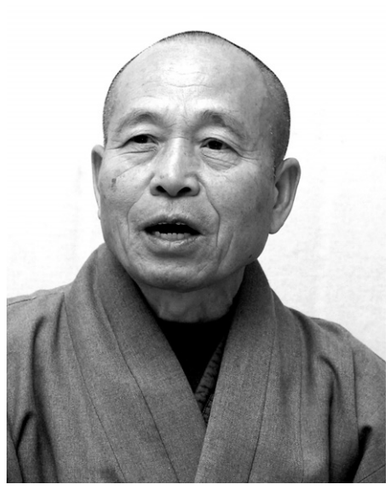
각성 스님의 이 같은 공찰 등록은 사설사암이 많아지는 종단 추세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례다. 스님은 사찰을 종단의 공찰로 등록하는 것은 종단의 종도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승려 개인이 사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단 공찰로 운영하는 게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종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있는 화엄사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종단에 전부 증여하려 합니다."

스님의 본래 서원은 염불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을 건립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고향 생

**주석처 화엄사, 종단 증여 계획**

**염불선원 설립이 마지막 원력**



가에 사찰을 지었다. 동네 인근에 선방굴, 박두치(도를 밝히는 산)이라는 수행과 연관되는 지명이 있던 만큼 사찰이 한 곳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사재를 보시해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스님은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종단의 공찰로 등록한 상황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다.

"수선사 인근은 제 고조부부터 아버지까지 삶을 일궈 오신 곳입니다. 이곳에 사찰을 세운 것은 지역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수선사가 활발한 수행과 교화를 이루는 지역 사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각성 스님은 아직도 염불선원 건립을 마지막 원력으로 꼽는다. 금, 토, 일요일, 3일을 오롯이 앉아 염불 수행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스님은 지금도 머리 속에 그려내고 있다.

한편, 당해 교구본사인 고운사는 7월 14일 본말사 신도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사 창건 법회를 봉행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1인 창무극 대가 공옥진 여사 별세

### 12일 영결식… 광주 무등산 원효사서 49재

1인 창무극의 대가 공옥진 여사가 7월 9일 뇌졸중으로 별세했다. 故 공옥진 여사는 지난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부터 지금껏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공옥진 여사는 판소리 명창이자 '1인 창무극'으로 한국 무용에 혁격한 공을 세웠다. 그는 해학적인 동물 춤과 전통 무용을 접목한 '1인 창무극'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6호 1인 창무극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고인은 지난 2009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생활 수급자로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불교계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회'가 공옥진 여사에게 108선행기금 1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그녀는 기나긴 투병생활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무대에서 흰 한복을 곱게 입고 15분간 살풀이춤을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씨는 1931년 전남 영광에서 판소리 명창 공대일 선생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창을 배웠다. 10세를 전후해 아

**진정한 예술혼 보여준 예인**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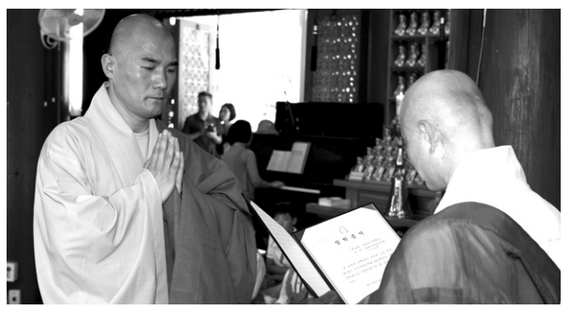
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무용가 최승희를 만나 전통춤에 눈뜨게 된다. 이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링컨센터에서 단독공연을 하기도 했고 일본, 영국 등지에서 가장 서민적인 한국예술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7월 12일 영광군 농협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국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로 공 여사의 조카손녀인 공민지 양은 고별사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할머니의 예술혼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의 유해는 광주 무등산 원효사에서 49재를 지낸 뒤 증심사 문빈정사에 안치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사회복지법인 봉은, 장학금 전달

### 중앙승가대 학인 등에 1억 1천만원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표이사 진화스님(오른쪽)이 중앙승가대 학생회장 혜오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이사 진화)은 7월 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2012년 서산사명장학회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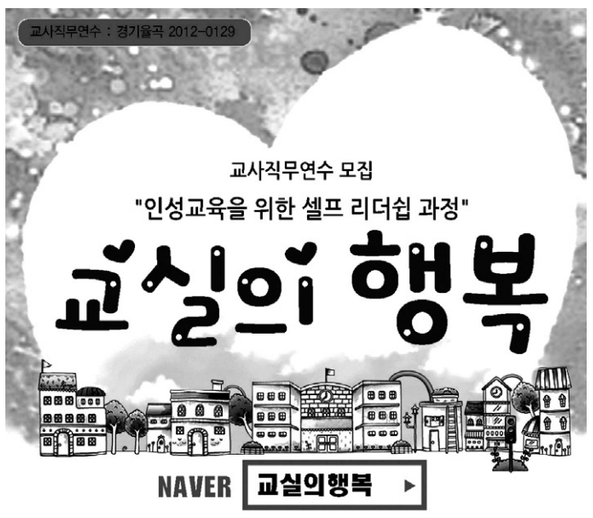
이날 전달식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 241명에게 7,200만원, 산하복지시강북장애인복지관 이용 학생 10명에게 400만원, 달마학교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 6명에게 120만원, 역삼청소년 수련관 이용 학생과 직원 5명에게 420만원, 동국대학교 사대부중 학생 10명에게 400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서산사명장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총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불교계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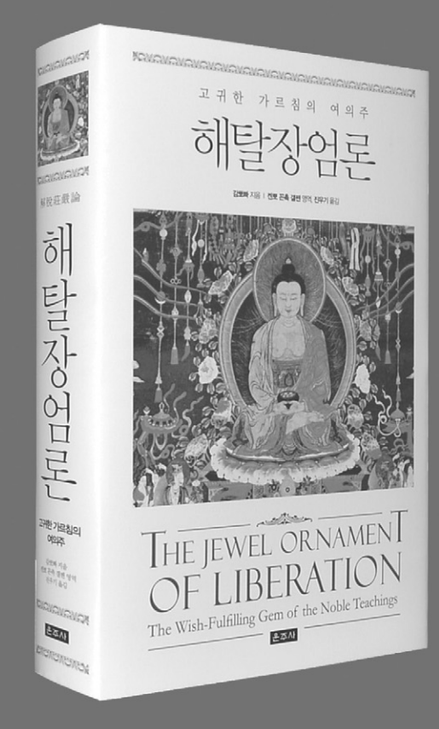
## 범각 스님, 동국대에 1천만원 전달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7월 11일 동국대(총장 김희옥)에 제2건학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참배차 대흥사에 온 김희옥 총장에게 총무국장 석운 스님을 통해 "종립대학의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과 함께 기금을 전달했다.

이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학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한국 불교 발전과 불교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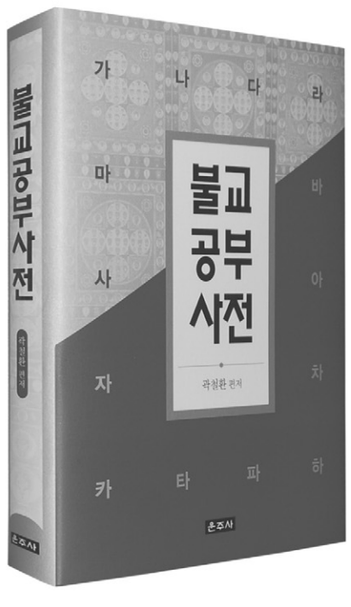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자!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뽀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띠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뽀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곽철환 편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불교 공부 사전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서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서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청년들 산사서 9일 행자…삶의 응어리 풀다

## 조계종 교육원 '청년출가학교' 미황사서 7월 9일 회향

"경쟁구도, 스펙, 시험 때문에 한 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항상 내 마음은 지쳐있었다."(권예지)

"마음에 돌덩어리가 가득 쌓여있었다. 지금까지 행복해 보이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살았다. 주위 사람들 모두 가면을 쓴 것 같아 인간관계도 힘들었다."(이종찬)

해남 미황사 자하루에 41명의 앳된 청년들이 모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대 청년들을 위한 '청년출가학교'를 7월 1~9일 진행했다. 8박 9일 일정을 모두 마친 지난 9일. 회향의 자리는 눈물바다였다. 성별, 종교, 직업도 모두 다른 청년들이 전국 각지서 모여 아팠던 자신의 모습을 털어놨다.

교육원이 무료로 처음 실시한 '청년출가학교'에는 지원자만 272명이 몰릴 정도로 개설 전 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출가학교에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남자 19명, 여자 22명, 총41명의 청년들이 선발됐다.

선발기준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이들에게 이득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원하는 일인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등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을 자기소개서에 진솔하게 작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려 뽑았다.

김성동 교육원 팀장은 "272명의 고민들이 거의 비슷했다. 자기소개서에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청년출가학교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년들을 우선 선발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선발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만큼 요즈음 청년들이 많이 아파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청년출가학교에 선발된 참가자들은 입산 후부터 하산까지 '행자'라 불리며,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했다. 입산 후 핸드폰과 지갑 등 출가기간동안 불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반납하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잘라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넣고 항아리에 담아 불전에 올렸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을 하고, 108배, 참선, 요가, 울력 등을 통해 속세에서 쌓인 번뇌와 습기(習氣)를 내려놓고 오로지 행자로서의 생활에만 집중했다.

특히 이번 출가학교에는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美 뉴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등을 비롯해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고미숙 고전평론가 등 불교계 내로라하는 스님과 학자들이 출가학교 강사진으로 나서 참가자들의 호응이 더욱 컸다.

강사진들은 1일 동안 참가자들에게 강의와 즉문즉답을 나누는 법담시간을 가졌다. 도법 스님은 자신의 출가과정을 비롯해 존재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는 다양한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지만 일관되게 추구했던 사실은 존재가치에 눈을 뜨는 일이다"며 "행자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스스로 존귀함을 알고 존재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민 스님은 "남들이 말하는 잣대에 '나'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지 말아라. 본인의 가치는 스스로 매겨야 한다. 누구든지 고유의 빛깔과 향기가 있다. 그것을 바로 알고 찾아가야 한다. 자신이 재밌고 의미있는 일을 하다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나온다. 남만 쫓다보면 아류에 그친다"고 조언했다.

조성택 교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설명하며, 불교 교리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교리공부를 많이 한다고 불교를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교의 감수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청년출가학교장),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교수 아사리 원영 스님이 출가학교 지도법사로 나서 매일 24시간 동안 참가자와 동거동락(同居同樂)하며, 차담 · 상담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을 위로했다.



조계종 교육원은 '청년출가학교'를 7월 1~9일 해남 미황사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행자'라 불리며, 스님들과 같은 생활을 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저녁예불 후 포행하는 모습

**272명 중 41명 선발해**
**'행자' 처럼 9일간 생활**
**핸드폰 반납 머리도 잘라**
**새벽 예불, 108배, 사경…**

**도법 · 혜민 등 스님 스타**
**"자신의 존재가치에 눈뜨세요"**
**참가자들 '깨어있는 삶 체험'**
**조계종 "청년 멘토로 나서겠다"**



미황사서 스님들과 낙조를 바라보는 출가학교 참가자들

추교성 (23)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출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탈피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 생각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듯,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3년 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조승아(27)씨는 "고등학교때는 좋은 대학에 가면 됐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취직해 보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목표를 잃은 느낌이었다. 스님들을 만나고 보니 나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정말 값진 경험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였던 임정규 (28)씨는 "내 꿈은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출가학교를 통해 진리는 삶의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회향이라는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강 스님은 "참가자들이 앞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8박 9일간의 일정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생활출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영 스님은 "참가자들은 대부분 학교, 사회 등에서 인간관계 문제를 가장 힘들어 했다. 프로그램 개설 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더욱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청년출가학교' 교장으로 참가자들의 지도법사로 나선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종단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정말 무심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현재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법인 스님은 "'출가'란 단순히 삭발하고 승복을 입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태도와 생각을 버리고 자유와 평화,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며 "이제 불교가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이다. 종교를 떠나 '청년출가학교'를 청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으로 장기적 ·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원은 "이번 청년출가학교 참가자 중 현재 1명이 출가했으며, 2명이 출가를 앞두고 있다. 또 3명이 출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남 미황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출가는 기존의 낡은 틀과 묵은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불교가 시대의 교사로서 늦었지만 청년 멘토로 나서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몰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자신의 행복을 맞추려 들지 마세요."



"교리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불교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교의 감수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 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73-13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여름캠프 미리 준비하면 즐거움 두 배

## 7~8월 다양한 여름캠프 · 템플스테이 개설
## 부모 · 자녀 함께 캠프 전 유의사항 체크

여름방학을 맞아 7~8월에 국내 · 국외 등 다양한 캠프가 개설된다. 불교계 역시 아이들이 콘크리트 숲을 떠나 산사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한다. 여름캠프를 통해 부모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불교예절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캠프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자녀가 캠프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캠프활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캠프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참가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라는 답변이 많다. 간혹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캠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다. 일부 부모들은 아이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캠프에 보내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캠프는 아이가 스스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아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모는 안내서를 잘 살펴보고 자녀가 관심을 보일만한 분야를 추천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 대표 무등 스님은 "캠프는 부모와 아이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이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는 캠프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아이와 함께 상의하고 스스로 원하는 캠프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불안한 마음에 친구나 형제를 함께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캠프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므로 되도록 혼자 보내는 것이 좋다.

◇캠프 준비는 자녀와 함께

캠프를 떠나는 자녀의 준비물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준비물 목록을 만들고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두면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쩔쩔 매거나 잃어버려 고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알레르기성 체질이거나 병을 앓은 경험이 있다면 캠프 기간 중 복용할 약물 등에 대해 자녀에게 유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응급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또 인솔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아이가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양선영 불교레크리에션협회 실장은 "지난 해 캠프 참가자 중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다. 아이의 부모님이 약복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줘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특히 장애를 지닌 학생일 경우 부모님이 직접 유의할 점을 일러주면 캠프에 빨리 적응하고 다른 참가자들과도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캠프선택은 자녀 의견 존중**
**되도록 혼자보내 자립심 길러야**
**준비물 · 복용약 등 자녀에게 교육**
**캠프후 체험담 나누며 참여도 체크**

◇캠프 후 반드시 아이와 대화해라

캠프에 돌아오면 캠프 활동과 느낀 점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인솔교사에게 아이의 캠프 참여도와 생활태도 등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캠프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해 스스로 캠프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캠프 경험을 활동보고서로 적어두면 훌륭한 여름방학 과제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유진상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청소년팀장은 "불교스카우트 캠프를 비롯해 각 캠프마다 참가 후 봉사활동 시간이나 다양한 포상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면 더욱 유익한 캠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을 맞아 다양한 여름캠프가 개설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캠프준비에 나서자.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스마트폰에 담긴 韓 비구니 문화

## 봉녕사, 어플 '스마트 봉녕' 제작… 4개 국어 서비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국 비구니 승가문화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봉녕사(주지 자연)는 7월 9일부터 한국 비구니 불교 문화 세계화의 초석이 될 '스마트 봉녕' 어플리케이션<사진>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 비구니 문화를 세계에 알리라"고 했던 故 세주당 묘엄 스님의 유훈에 따라 제작된 '스마트 봉녕'은 봉녕사 승가대학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담당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서비스되는 '스마트 봉녕'은 봉녕사의 다양한 문화재와 건축물을 3D파노라마로

**문화재 · 건축물 3D로 감상**
**묘엄 스님 영상과 사진검색 가능**

만날 수 있으며, 묘엄 스님의 생전 영상과 사진 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또, 봉녕사가 제작하는 <봉녕지>와 봉녕사승가대학의 교육 자료들도 열람할 수 있다. 신도들에게는 '스마트 봉녕'을 통해 사중의 주요일정을 알람으로 즉시 알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게 '스마트 봉녕'의 장점이다. 대다수 세부 콘텐츠들이 쉬운 설명으로 이뤄졌으며 '상세보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 정보도 습득할 수 있다.




'스마트 봉녕'은 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주소만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애플 마켓(iOS), 안드로이드 마켓(Android)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번 어플 개발에 대해 봉녕사측은 "'스마트 봉녕'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한국 비구니 불교 문화를 읽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능과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신도 재교육…신행 역량 강화에 필수"

## 제48차 포교종책연찬회, 신도재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신도들의 평생 신행이력 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찰의 신도재교육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의 신도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8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하고 사찰에서의 신도 재교육에 대한 폭넓은 방안들을 모색했다.

'신도교육체계의 흐름과 재교육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한 포교원 신도국장 노휴 스님은 2011년 제 · 개정된 신도관계 종법령을 바탕으로 신도교육체계와 이에 따른 발심-행도-부동-선혜 품계제도를 살펴보고, 신도 재교육 전반의 과정 속에서 사찰 신도재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휴 스님은 "신도들이 사찰운영위원회에서 활동 하려면 최소 부동품계 이상을 받은 신도가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며 "종단 소집 집체 교육 연수 4회 이상, 교구별 신도임원연수 · 연합법회 및 행사 8회 이상, 포교원 인가 재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연수 8회 이상, 재적사찰에서의 법회 및 신행활동 3년 이상 참여하면 포교원이 추진하는 부동품계를 수여할 수 있다"고 신도재교육 확산을 주장했다.

이에 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신도재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동해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막연히 불교 교리교육, 법회참석 등으로 재교육을 강조해서는 새로운 불자나 기존의 불자들에게 폭넓은 관심을 갖게 하기 쉽지 않다"며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해, 각자의 가정과 회사에서의 신행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불교화 되는 것이 하나의 재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신도품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신분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종단과 각 지역사찰에서 분명한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신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은 "각 사찰마다 신도여건과 수행여건이 달라 신도의 수가 많건 적건 여건상 세세하게 정리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불자들의 수행방편이 다양하고 정진하는 수행력이 다른 관계로 내면의 불사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공정하게 신도품계 제도로 담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남수 불광사 기획실장은 "신도교육 및 관리의 측면에서 '부동품계의 관리 행정이 포교원 및 사찰 행정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재교육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 "더 넓은 삶의 지혜 얻었어요"

## MBC 노조 조합원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 성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MBC 노조 조합원 및 가족 8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MBC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이 지리한 파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템플스테이로 달랬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MBC 노조 조합원 및 가족 8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파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MBC 노조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심신 치유를 위한 수행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108배 염주 만들기와 충남 공주 마곡사 방문, 스님과의 차담, 참선 등 수행자들의 삶을 경험해 보는 한편 장기화 된 파업으로 지친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이를 정화할 수 있는 그림 치유 시간을 가졌다.

또, 부모와 함께 참가한 자녀들을 위한 연꽃 만들기, 인경체험 등 체험활동과 스트레스 정도 측정 및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일감 스님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불가에서는 그릇된 짓의 나쁜 과보를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일부러 그릇된 짓을 하는 이를 역행보살(逆行菩薩)이라고 한다. 지금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역행보살이라 여기고, 더 힘을 내어 바른 삶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MBC노조 조합원과 자녀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사회통합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9개 운영 사찰에서는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초청한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와 특별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br>●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br>●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br>●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br>※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 8주 과정<br>토요일반 |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7월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불교계 공부방에서 성적 쑥쑥

## 저소득층 자녀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

여름방학이 문턱에 서 있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되돌아보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학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역에선 값비싼 학원·과외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 '독서실' 등이 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2일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공부방을 올해 7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교계에도 '방과 후 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서울지역에 약 20여 곳 정도다. 독서실의 경우 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지역 내에서 영어, 수학, 논술, 한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강좌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동대문구청소년독서실은 열람실은 물론, 매주 2회씩 무료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있다. 또 고민 상담실, 동아리 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 스트레스를

**여름방학 동안 지역 곳곳**
**불교계 공부방·독서실 인기**
**다양한 문화·체육체험 활동**
**상위 1% 위한 특별강의 진행**

감소시켜주는 다양한 시설을 운영중이다. 이밖에도 길거리 농구대회, 뽐내기 대회, 영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계2동청소년공부방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고려대 등과 연계해 청소년 학습지도 멘토링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연극, 영화, 음악회, 스포츠 관람 등 문화체험, 캠프, 래프팅 등 자연체험을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부방·독서실 외에 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매주 마다 직업체험활동을 비롯해 동아리 마당을 통해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또 7월 27일~8월 14일 '오감자극 미술놀이'를 비롯해, 7월 20일부터 '잃어버린 대륙의 꿈 백제를 찾아서', 8월 11~25일 '청소년 환경활동가 만들기 프로젝트' 등 특별 문화프로그램들도 진행 예정 중이다.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방학특강으로 7월 25일~8월 22일 자기주도 학습기법을 활용해 상위 1%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특별수업과 우등생만드는 혼자공부법 등을 실시한다. 또 과학상자, 더 와이즈 테크닉, 방송아카데미, 공예세상, 그림동화책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진행 예정 중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계 공부방에서는 영어, 수학, 논술, 한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강좌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학때 갈만한 지역공부방 및 센터**

| 구 분 | 시 설 명 | 지 역 | 연락처 |
|---|---|---|---|
| 독서실 | 거여청소년독서실 | 서울거여2동 | (02)431-1425 |
| | 금호청소년독서실 | 서울금호동1가 | (02)2299-4214 |
| | 답십리청소년독서실 | 서울답십리1동 | (02)2243-3648 |
| | 동대문구청소년독서실 | 서울장안2동 | (02)2247-3120 |
| | 응암청소년독서실 | 서울응암3동 | (02)301-5384 |
| | 전일청소년독서실 | 서울전농동 | (02)2241-9836 |
| 공부방및 수련관 | 상계2동청소년공부방 | 서울노원로 | (02)934-2118 |
| | 등용청소년공부방 | 전북남원인월리 | (063)636-0770 |
| | 구로청소년수련관 | 서울구로동 | (02)838-1318 |
| | 목동청소년수련관 | 서울목동 | (02)2642-1318 |
| |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 | 대구상인3동 | (053)639-7101~5 |
| | 대구서구청소년수련관 | 대구이현동 | (053)572-2451 |
| |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 대구황금1동 | (053)761-9400 |
| | 구덕청소년수련관 | 부산서대신동3가 | (051)246-4685 |
|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 부산동삼동 | (051)405-5223 |
| 방과후교실 | 선혜방과후교실 | 서울본동 | (02)817-8052 |
| | 신길종합사회복지관부설방과후교실 | 서울신길1동 | (02)831-2755 |
| | 쌍문3동방과후교실 | 서울쌍문3동 | (02)900-8501 |
| | 희망만들기방과후교실 | 서울용두2동 | (02)926-5616 |

우리복지관 주력사업은 이것 ②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여성정신장애인 프로그램 '흰여울'

## 공황장애, 알코올중독 등 치료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의 '흰여울' 프로그램은 정신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주거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에게 일상생활 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가 정신질환 대상자는 질병외에도 주거 환경의 열악, 실직, 사회로부터 소외, 여가활동 부재 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신 장애인이 자립해 생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시간과 같은 일상의 활동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심리·신체적 의존을 최소화 시켜 자기결정에 충실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의 '흰여울' 프로그램은 정신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주거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에게 일상생활 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한 복지관은 인근 지역 거주여성 가운데 정신장애 2~3급을 대상자로 연 1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올해 참가한 여성들은 10명으로 평균연령이 30~40대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복지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사회기술교육 △여가문화지원 △야외활동에 참가했다.

사회기술교육에서는 건강관리, 대화기술, 약물관리교육, 경제교육, 감정관리 등이 진행된다.

권현정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 중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관리를 신경쓰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잃기 때문에 경청하기 등과 같은 훈련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요리, 영화관람, 야유회 등의 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는다.

권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은 우울증과 조울증, 기분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집에만 있거나 휴대폰, TV, 컴퓨터, 인터넷에 중독돼 바깥출입을 꺼리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먹는다"며 "하지만 상반기 동안 흰여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점점 외부로 나오는 일도 많아지고 복지관 내 연계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간의 지지체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로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일상생활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형성의 기회 또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흰여울' 프로그램은 2012년 상반기 활동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9월 첫째 주 화요일에 하반기 활동을 개강한다. 신규참여 희망자는 복지관으로 문의해 상담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복지관은 알코올집단프로그램 '십년지기'도 진행하고 있다. 알코올에 중독된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여가문화활동, 야외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033)762-8131 이나은 기자

# 불교복지 영성과 함께해야 발전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사진 왼쪽부터 이용권 소장(불교사회복지연구소), 권경임 대표(복지영성연구소),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과), 임해영 교수(동국대 전산원 사회복지학과)

최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는 복합적인 개인문제들과 사회문제들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내면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종교적인 배경이나 영성적 측면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불교적 영성과 복지'를 주제로 2012 상반기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와 영성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을 맡은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장)의 진행과 함께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과)가 '통합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을, 권경임 대표(복지영성연구소)가 '불교적 관점에서의 영성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도승자 교수는 "영성(靈性)이란 단어가 기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것은 지극히 한국적"이라며 "영성이란 것은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서 종교 본질적인 면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슬람, 불교 등에서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영성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교계 복지분야에서는 사회현장가들이 실제 사회복지와 영성의 연결고리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임 대표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영성(불성)의 개념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성복지"라며 "불교계도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종교와 영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윤리적 지침과 실천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 "어머니 설득으로 장기기증 결심"

## 양상문 야구해설위원,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장기기증이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귀한 나눔인 것을 알게 돼 기쁩니다."

양상문 야구해설위원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나섰다.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야구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양상문 위원〈사진 왼쪽〉은 9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용문사 현천 스님, 최정기 감독(불암사 불일야구단·배재고 코치)과 선후배로 인연을 맺어온 양 위원은 두 사람의 권유로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

양상문 위원은 "홍보대사는 두 분의 권유로 하게 됐지만, 사실 장기기증 서약 결심은 어머니께서 설득하셨다"면서 "몇 년 전에 이미 자식들을 다 앉혀 놓고 장기기증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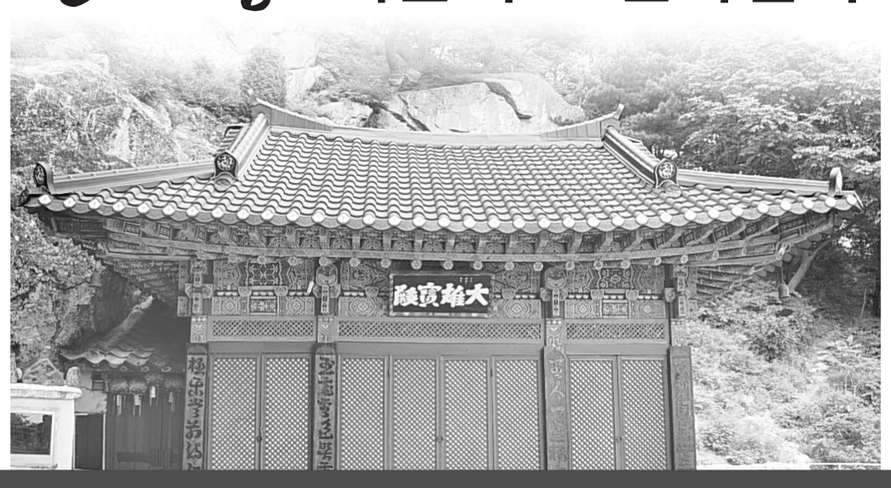
일면 스님은 양 위원에게 직접 고




른 단주와 자서전을 선물하며 "빛나는 스타였고,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지금은 최고의 해설가인 양 해설위원이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픈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생명나눔의 원력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의 아들 승윤 군도 생명나눔 홍보대사를 결심한 아버지를 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아직 미성년자라 어머니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 등록했지만 양 위원은 "자식교육 잘 시킨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이 오 칼 라 지 붕 공 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 ‘내가 있다’ 라는 생각 버려야 ‘중도’ 체득

## 봉은사 선교육 대법회 지상 중계

###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무더위가 깊어가는 7월 8일 법왕루에서 고우 스님의 〈서장〉 강의 아홉 번째 법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서 고우 스님은 “반복되더라도 중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중도’를 거듭 강조한다”며 “깨달아 간다는 것은 중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사람들은 공익을 먼저 생각하면 개인의 이익이 손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전체의 이익 속에 개인의 이익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서장〉에 나오는 ‘본지풍광’, ‘본래면목’, ‘진공묘지’ 이런 단어들은 모두 중도를 표현한 것이며, 자신의 어려움이나 불행이 있더라도 그걸 남의 탓으로 돌릴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스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싫어하면 남도 나를 싫어하게 됨을 자각하고 나의 행복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치를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봉은사



7월 8일 봉은사 법왕루를 가득 메운 대중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고우 스님의 ‘중도’를 주제로한 법문을 들으며 불자로서 마음을 새로이했다. 법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는 절에 무엇을 하러 올까요. 법회를 왜 듣습니까. 불교를 왜 믿습니까. 절에 오는 것도, 법회 듣는 것도, 불교를 믿는 것도 모두 중도를 깨닫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서장〉에서 오도 법룡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도는 유심으로도 구할 수 없다.’



고우 스님은 ‘중도’의 삶을 강조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진면목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구족한 그 모습대로 돌아간다면 개개인은 절로 행복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형님이 요즘 신문 지상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가만히 보면 역대 정권 말기마다 형님들이 안 좋은 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형님뿐만 아니죠, 매 정권 말기 마다 친인척들이 여론에 오르내립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기 본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그 본래 존재를 망각하고 착각에 빠져 살다보니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일어나는 이 일을 후임정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미리 조심하고 안 그래야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 욕심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너무나 커 앞 정권에 일어난 일을 까맣게 잊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크고 작고 또 모양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에서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당시 인도사회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처님은 인류가 잘 살고 모든 개개인이 잘 살려면 본래 자기 존재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수행을 통해 밝은 빛을 전하는 승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후 2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승가공동체가 부처님 당시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지’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승가공동체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해야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들이 스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본래 자기 존재 원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와 관련된 제도도 마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밖에서 외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법회에 오신 재가불자님들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모두들 불교 잘해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고심이 많습니다. 조용히 나 혼자 수행이나 할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도 법룡 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래 자기 존재의 원리를 찾는 것을 ‘중도’로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 중도를 ‘유심으로서 강구할 수 없다’ ‘무심으로도 가히 얻을 수 없다’ ‘말로서도 나아갈 수 없고, 침묵으로서도 가히 통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 내가 누구라는 본래 존재 망각하니 욕망에 지배
### 개인이익 탐하면 결국 손해 수행하면 공익 우선돼

있다, 없다, 내가, 네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 한 절대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원적인 사고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중도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손자가 물에 빠진 것을 건지려고 물에 들어가는 할머니의 마음이다’ 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할머니가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말도 끊고 마음도 끊고 침묵조차 끊으면 생사가 끊깁니다.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것 모두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도를 깨닫게 되면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에 대한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지금 정권 말기 문제되는 분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 안에 개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욕망으로 무리하게 개인의 이익만을 탐하다 보니 결국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 절로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면 개인 이익도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며 된다 하더라도 괴로운 이익이 됩니다.

이원적 사고에서 중도로 돌아가는 것은 관계(灌谿) 화상의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화상은 수행을 하다 임제 스님을 찾아 갔습니다. 임제 스님은 관계 스님이 저 멀리서 찾아오자 멀리서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관계 스님은 이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 것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임제 스님도 그 것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 스님도 준비가 돼 그 자리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나라고 전제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떼 내버리고 그 자리에 중도로 대신해야 합니다.

‘있다 없다 말 침묵조차 아니면서 그 것인 그 자리’를 관계 화상이 준비 된 것을 보고 임제 스님이 멱살잡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중도에 기반을 두어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십시오. 또 〈금강경〉에 나오듯이 상없는 봉사를 열심히 해 보십시오. 나라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 임제 스님 같은 도인을 만나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수행하다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중도를 이해해 수행해 나가는데 깨달음에 가까워지면 깨달아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이젠 좀 쉬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는 깊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심자는 그저 쉼없이 정진해 깨달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조차 참선, 염불 등 수행을 통해 없애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 없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욕망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경쟁마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식당 주인의 일화입니다. 식당 주인이 법회 때마다 장사가 잘 안된다며 잘되는 방법을 일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님을 은인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손님을 욕망으로 보면 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아’로 보면 손님이 은인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 주인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은인으로 대합니다. 자기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밥먹여 주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러면 ‘어서오십시오’ 말 한마디에도 거기에 담긴 감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느낍니다. 식탁 다루는 것도 다르고 반찬 놓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은데 장사가 안 될 리 있겠습니까?

그 식당 주인이 한 달 만에 장사가 너무 잘된다며 찾아왔습니다. 이는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없어지는 돈은 매년 27조원이라고 합니다. 중도를 체득해 개개인이 산다면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없습니다. 아니 값으로만 매길 수 없겠죠. 중도를 깊이만 인식을 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며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일반 마이크 V-620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통찰 명상이 뇌노화를 느리게 한다

### '인지과학과 불교의 만남' …7월 6~7일 월정사서

〈앙굿따라니까야〉 중 '질병의 경'에서는 '아라한을 제외하고 마음의 병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설한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종교로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대의왕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불교의 치유와 인간의 의식과 심리를 연구하는 인지과학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고찰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 스님)는 7월 6~7일 평창 월정사에서 '인지과학과 불교의 만남'이란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했다.

9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최훈동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정신의학과 불교'를 통해 불교의 '무아' 개념이 연기론적 차원에서 정신치료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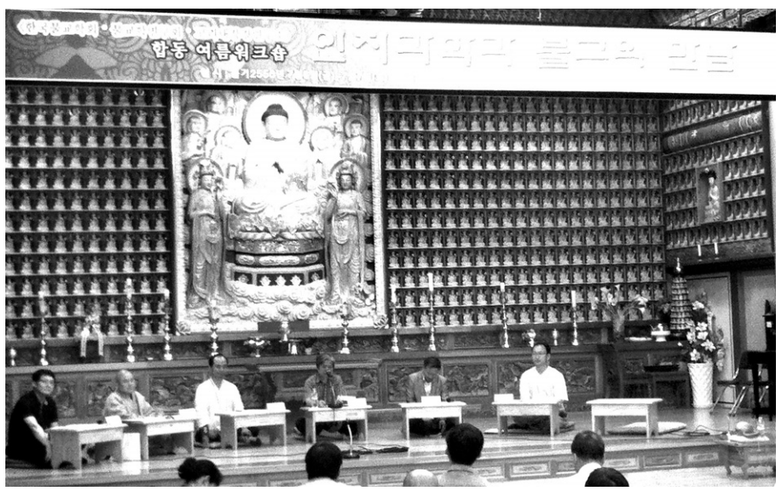
최 교수는 "연기적 성찰은 정신치료 분석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 불교의 무아에 이르는 연기관과 심리적 조건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현재의 괴로운 마음을 깨닫게 하는 정신치료의 분석과정은 동질적이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자아의 근거마저 통찰해가는 불교는 깊이에 있어 정신치료를 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아의 단계에서 자신이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통찰하는 것은 정신치료가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치료 차원에서 보면 '무아'는 자아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세계로 안내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며 ""이런 무아를 자각하기 위해 팔정도로 계정혜 삼학을 닦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지심리학과 불교'를 발표한 윤병수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교명상이 마음과 몸이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하는 가르침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교수는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해 명상 훈련이 긍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좌측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고 공감영역인 도피질, 기억영역인 해마, 사고의 영역이며 정서통제에 관여하는 전전두피질, 주의와 행동통제에 관여하는 전측 대상피질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워크샵에서는 인지과학 · 심리치료와 불교와의 접점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또 윤 교수는 대뇌피질의 감소에 대한 저항도 높게 나타나 학습, 기억, 감정조절, 공감 및 인지기능의 개선을 초래해 뇌의 노화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뇌과학과 불교'를 통해 현대 뇌 연구성과와 불교의 접점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각각 맡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21세기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은?

### 교불련, 7월 2~4일 양양 휴휴암서 한국교수불자대회 개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7월 2~4일 양양 휴휴암에서 2012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21세기 사회의 지향과 불교'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한국교수불자대회는 학술회의와 함께 국내 학계의 교류를 다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7월 2일에는 입재식과 함께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장의 '근대불교학의 형성과 아카데미즘에서의 위상' 기조강연이 진행됐으며 오후 8시에는 손재현 동국대 교수와 동국대 무용단이 진도북춤, 영광우도농악, 라틴댄스, 연화무, 승무 등을 공연했다.

7월 3일에는 오전 8시 마가 스님의 지도로 염불명상이 진행됐으며 △단선주선과 간화선의 응용(김성장/ 원광대) △사자산문의 선과 현대적 의의(이희재/ 광주대) △불교문화유산의 영어 번역 오류(최희섭/ 전주대) △불교게임과 지적재산권(서계원/ 동국대) △대승불전에서 자비개념의 전개 양상(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 연구교수) △근본불교에서 일체의 의미(이중표/ 전남대) △초기불교



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허남결/ 동국대) △선출공직 진출후보자 선택의 불교적 기준(윤세원/ 인천대) 등 논문이 발표됐다. 또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간화선 특강, 휴휴암 회주 홍법 스님의 다라니 특강도 각각 진행됐다.

7월 4일에는 김동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내가 행한 주력선과 간화선' 기조발표와 함께 △금강계만다라의 심성개발 응용 시론(정성준/ 동국대) △명심보감 서문의 불교사상 고찰(성해준/ 동명대) 등 논문이 발표됐다. 또 동국대 이사 삼보 스님이 '한국교수불자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 선종 법통은 혜능 아닌 무상"

### 7월 6일 중국 국제학술대회서 무상대사 법통설 대두

1300년 전 신라 성덕왕 셋째왕자는 44세의 나이로 당나라에 들어가 출가했다. 이 왕자는 중국불교에서 숭상하는 오백나한 가운데 455번째 나한으로 모셔질 만큼 큰 스님으로 숭상 받는다. 바로 무상대사다.

무상 대사가 78세로 당나라에서 입적한 지 1250년이 지난 이후 중국 사천성 대자사에서 무상 대사를 기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무상선사와 서촉'을 주제로 7월 6일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신라왕실서 자란 무상 대사가 중국 땅에서 펼친 가르침과 이런 가르침이 한국불교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집중 다뤄졌다. 특히 한국선종계의 법통이 육조 혜능이 아닌 무상에게서 나왔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최석환 불교춘추사 대표는 '동아시아 선종의 비조, 무상선사' 발표를 통해 "무상 선법은 마조, 지장, 마곡, 남천, 장경 등 선사들을 거쳐 도의, 홍척, 혜철, 범일, 무염, 현욱에게 전수됐으며 그 뒤에 구산선문을 이뤄 고국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백년간 계속된 혜능 법통설의 한국선종사를 다시 써야 하는 쾌거"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국 선종계는 육조혜능으로 이어지는 선보를 받들어 왔지만 정중무상 선사와 마조로 이어지는 선보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며 "2001년 10월 중국 하북성 백림선사 경내에 세워진 〈조주고불선차기념비〉에 '한중 불교는 한 뿌리이니 예로부터 한 집안이며, 선풍을 함께 하니 법맥 또한 서로 전함이다. 정중무상은 일직이 서촉 땅의 주인 돼 문하에 고족으로 마조도일이 있다. 마곡은 무염에게 인가하고 서당은 도의에게 전하고 염관은 범일을 배출하여 사자상승 법계로 이었다'고 전해 법통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송광사 현봉 스님은 '조계(曹溪)는 사천(四川)을 거쳐 해동(海東)으로' 발표를 통해 무상 대사의 가르침이 한국불교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평했다.

스님은 "무상 대사는 당 16년(729)에 장안에 도착해 선정사(禪定寺)에 잠시 머무른 뒤 사천 덕순사(德純寺)에서 오조 홍인(弘仁)의 10대 제자 가운데 하나인 지선(智詵) 선사를 뵙고 입실(入室)제자인 처적(處寂) 스님의 법을 계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무상 스님은 정중사(淨衆寺)에서 20년간 교화를 펴면서 무억(無憶)·무념(無念)·막망(莫忘)의 삼구(三句)관에 따른 가르침을 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 삼구관은 계정혜의 총지문으로 통한다"며 서산대사의 오도송과 경허선사의 오도송을 예로 들며 한국불교 내면에 무상 대사의 가르침이 녹아있다고 예시했다.

스님은 "무상 스님의 이런 가르침은 마조(馬祖) 스님과 그 후학, 또 조계(曹溪) 본류와 합류해 그 법이 다시 고국인 한국까지 건너와 구산선문이 열립하게 됐으며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며 스님의 행화를 기렸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무상의 삼구관' 발표를 통해 "정중 무상의 무억 무념 막망 삼구는 수행체계로 계정혜 삼학과 접목해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 무상의 사상은 중국보다 인도 반야 중관 계통과 긴밀하게 닿아있다"고 평했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학교 마련된다

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특수종합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공식 출범한다.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가 각종학교에서 벗어나 대학원을 갖춘 명실상부한 대학교로 발돋움한다.

김봉건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은 7월 11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했다.

2003년 3월 개교한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등 6개 학과 560명 정원의 특수대학이다. 그동안 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을 설치 할 수 없었다.

김 총장은 "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2011년 7월 14일 제정돼 2013년 3월부터 200명 정원의 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은 일반대학원(문화유산)·전문대학원(수리복원·무형유산)·전문대학원(전통문화산업) 등 3개 학과로 운영된다. 2015년에는 박사 과정도 개설된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 환수 다큐 및 캠페인 전개된다

### 문화재찾기시민委 다큐멘터리 제작·캠페인 전개

서울시민이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회(위원장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7월 9일 국외문화재찾기 다큐멘터리 제작 및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예산 2억 원을 지원 받아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 된다. '국외반출 문화재 찾기 대장정-환국(還國)'으로 이름붙여질 이번 다큐멘터리에는 올해 12월까지 외국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파악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담을 예정이다. 위 문화재가 있는 현지에서 촬영이 4회 이상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 '직지' 없는 직지 축제 될 듯

### 청주 고인쇄박물관 대여 요청 프랑스서 거부

9월 개최예정인 직지축제에 전시를 추진 중이던 직지심경 원본 대여가 무산됐다. 청주시는 7월 8일 "프랑스국립도서관 측이 지난 4월 고인쇄박물관의 직지 대여 신청에 대해 거부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대여전시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귀중한 자료"라며 "긍정적인 답을 주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2012년 직지축제 기간(9월 18~23일) 전시 목적으로 2월 전시장 온도와 습도, 도난 방지 장치, 보험 가입, 운송비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아 대여 신청서를 보낸 바 있다.

직지심경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권으로 간행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하권 1권만이 진본으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남아 있다.

노덕현 기자


# 무료 공개강좌

무료 개강 : 2012년 7월 21일(화) 오후 5시~7시

## 설법 · 화술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회장 – 한국설법연수원회장

**교육일정**

◆ 기 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2개월 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선착순 접수
◆ 개인지도 : 환영(직접 상담 결정)
◆ 등 록 일 : 훈련식 교육임으로 수시 접수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H·P 010-7248-1567 ☎ 02)747-1567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하계 철야정진법회 안내



선릉역 부근에 위치한 보림선원 서울선원에서는 제77회 하계 철야정진 법회를 실시합니다.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습니다. 재가자는 생업에 종사하고 혈연을 돌보면서 시간과 공간을 짜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철야정진 기간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한는 것이 거사풍의 공부방편입니다. 특히 이번 정진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설법과 녹취집을 교재로 하며, 아울러 일심행 서울선원장의 법문과 함께 학인들과의 개별 면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금) 오후 8시부터
2012년 8월 1일 (수) 오후 10시까지
■ 내 용 : 참선, 백봉선생님 설법, 선원장 법문, 면담
■ 장 소 : 보림선원 서울선방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33)
선릉역 7번 출구나와 200미터 커핀그룬나루 좌회전
오른쪽 두번째 빌딩 2층
■ 회 비 : 10만원, 참석기간에 따라 자유로이 납부가능 합니다.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02)3452-3033
■ 준 비 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참석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좋은 공부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 림 선 원 서 울 선 원 장 합장

# 호젖한 산사서 방학 알차게 보내요!

## 여름방학 맞아 광주 · 전남 사찰들 어린이 · 청소년 캠프 마련

여름 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을 어디에 보낼까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답은 산사이다. 맑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숨 쉬는 산사야 말로 아이들에게 건강과 문화체험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사찰과 단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지리산에 위치한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7월 29~31일 화엄사 템플스테이 수련관에서 어린이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스님들이 진행하는 이번 캠프에는 찬불가 율동 경연대회, 대형 사불 만들기, 화엄 영화제, 미니올림픽,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200명 선착순 접수이다. (061)782-7600

어린이 · 청소년 프로그램을 1년간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도 8월 3~5일 2박3일 동안 백양사에서 어린이 생태학교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발우공양, 108배 정진, 백암산 에코트레킹, 공동체놀이, 건강한 먹거리 체험, 부안 에너지체험관 탐방, 물놀이(해수욕장)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 10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를 8월 10일~12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중 ·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천은사-노고단 산행-달궁야영장-매동마을-벽송사-실상사로 이어지는 지리산 걷기 프로그램이다. (062)223-3623

**순천 선암사**(주지 설운)도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7월 27~29일 열리는 행사에는 아름다운 선암사 화폭에 담기, 연등 만들기, 탑돌이, 물놀이, 편백나무숲 걷기 명상, 108참회, 염주 만들기, 참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참가비 6만원, 100명 선착순 접수한다. (061)754-6250

최근 인드라망 전법도량으로 바뀐 **광주 선덕사**(주지 응묵)도 오는 8월 3~5일 '인드라망 어린이 수행학교'를 개설한다. 행사에는 ▷발우공양, 사찰예절, 담력수행, 마음속 자연 물들이기, 전래놀이, 무등산 생태기행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 (062)263-4660

**전남 순천 금당절**(주지 범일)은 7월 30일~8월 11일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학교를 개설한다. 매일 1시간 명상과 1시간 체험학습이 진행되며, 청소년들은 4시부터 볼링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8월 12~15일 제주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061)724-5988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설도)는 7월 27~29일, 7월 31일~8월 2일 2회에 걸쳐 '도갑사 여름 숲속학교'를 실시한다. 동련에서 진행하는 이번 숲속학교에는 단주 만들기, 공양습의, 부모은중경 사경 및 병풍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사불, 먹거리 복불복, 물놀이, 만다라 명상, 부모님께 편지쓰기, 장기자랑, 탑돌이, 캠프파이어가 진행된다. 참가비 3만원이며, 참가자는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영복을 준비하면 된다. (061)473-5122

**물놀이…사찰문화 체험부터**
**생태기행, 볼링강좌 등**
**이색적 프로그램 다채 마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여름생태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교미술체험을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유족들에게 염불로 큰 힘 되고파"

### 강석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사무국장

**13년동안 장례식장서**
**염불봉사로 지역포교 실천**



"당장 힘이되고 도움이 절실한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염불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에게 염불이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석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사무국장〈사진〉은 지난 2000년부터 13년 동안 3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거의 매일 장례식장으로 출근하다시피하며 염불봉사를 하고 있다.

강 사무국장은 결혼 후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 강 사무국장은 "결혼을 하고 보니 처당숙모가 태고종 스님이었다. 아내와 함께 자연히 절을 찾게 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제대로 된 불교를 알고자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했고, 내친김에 포교사로 본격적인 불교활동에 나섰다. 포교사 활동도 염불봉사팀장을 맡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재 염불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불자들은 총 33명. 주로 장례식장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연락을 취하면 대체로 15명 정도가 염불봉사에 참여한다.

화엄불교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천수경, 법성게, 장엄염불같은 의식집으로 1시간정도 염불봉사를 하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다. 절대 유족들로부터 여비를 받지 않는 것. 아무리 먼 거리라도 모두 회원들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르는 경비를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는다.

"한번은 염불봉사를 하는데 바로 옆 빈소에서도 염불해달라고 요청해서 연이어 봉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주는 봉투를 사양하느라 애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불봉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동료 포교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강 국장은 다른 동료 포교사들과 함께 군 포교 현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임실 탄약창 장영사 법당이나 남원 103연대를 담당하는 포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

강 국장은 "지역 불교실정이 많이 열악하지만 스님들을 도와 함께 열심히 포교하면서 지역불교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염불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스님들이나 포교사들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수행하고 전법하는데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익산 신행단체 임원 템플스테이

### 익산 숭림사서 7월 7~8일 30여명 참가


익산지역 신행단체 임원 30여 명은 7월 7~8일 익산 숭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는 7월 7~8일 지역 신행단체 임원 등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중근회장을 비롯해 마한거사림, 포교사단 능인회, 이리불교대학, 파라미타 교사불자회, 합창단의 신행단체 임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선, 발우공양, 다도, 함라산 둘레길 탐방, 걷기명상, 스님과의 대화, 108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지역불교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광 스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신도임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지역불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의견은 향후 템플스테이운영에 참고 할 것"이라며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고견들은 익산지역의 전법과 포교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중근 신도연합회장은 "각 신행단체의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지역불교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법정 스님의 향기를 전하다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본부장 고현, 조선대 교수)은 지난 7월 7일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광주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및 공양 나눔의 집 개원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그동안 도시락봉사, 장학사업 등 지역 복지사업을 해온 광주지부 15주년을 기념하고 공양나눔의 집 후원을 위해 진행됐다.

고현 교수는 인사말에서 "음악회와 공양나눔의 집 개원을 통해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맑고 향기롭게' 의미를 더욱 멀리 펼쳐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시 특정종교 표기 도로표지판 삭제**

특정종교 성지로 도로표지명을 바꿔 물의를 일으켰던 전주시가 최근 도로표지판을 바로잡았다. 전주 승암산을 천주교 성지인 '치명자산'으로 표기해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불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최근 '치명자산 성지' 대신 '전주 한옥마을'만 표기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계율 받들어 깨달음 구하겠다

###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개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7월 9일 대적광전에서 하안거 포살법회와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원행 스님을 포살법사로 모시고 110명의 대중스님들을 향해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이번 하안거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며 "지혜와 자비로 뭇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보제루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17교구 종회는 생전예수재 결산보고에 이어 연꽃축제 봉행의 건, 어린이 여름수련대회에 관한 건등을 의결했다.

또 종회의원 성우 스님(은적사 주지)으로부터 종단쇄신입법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성우 스님은 종단 쇄신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쇄신입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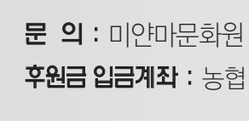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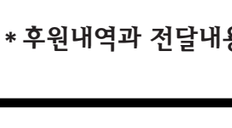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 “각자의 고민이 모두의 고민”

## 혜민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서 ‘마음치유콘서트’ 1000여명 참석



혜민 스님은 7월 7일 콘서트에서 참가한 이들이 서로 고민, 상처, 미래의 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참가대중은 다소 낯선 사람들이지만 대화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갑시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청량제 같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햄프셔대학 종교학 교수 혜민 스님이 울산에서 마음치유 콘서트를 열고 따스한 메시지를 전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조계종 전법단이 전국 순회로 개최하고 있는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가 7월 7일 울산을 찾았다.

“당신의 원이 이루어지길” “나의 원이 이루어지길”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스님의 조용한 말 한마디에 행복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울산은 물론 경상도 일대에서 1000여 명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을 찾아 콘서트장인 한마음선원 대웅전을 가득메웠다.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대웅전 앞에는 입장을 대기하던 인파로 북적였다. 미처 입장하지 못한 대중들은 야외에서 영상스크린을 통해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콘서트 시작을 알리는 혜민 스님의 인사와 함께 마음치유는 시작됐다. 첫 순서는 혜민 스님의 노래였다. 스님의 ‘try to remember’ 노래소리는 참가대중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다.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콘서트는 스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답을 내려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 아픔을 어루만지는 자리였다.

혜민 스님은 서로 짝이 된 사람들과 어릴적부터 친했던 동창친구라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최근의 가장 기뻤던 일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스님은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나눠 연령대 별로 가장 많이하는 고민을 털어놓게 했다.

울산에 거주하는 최현섭(49) 씨는 스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고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혜민 스님은 옆에 앉은 이와 대화를 하게 한 뒤 “자기를 볼 수 있는것은 수행 뿐”이라고 답했다.

참가대중들은 자신의 고민이 모두가 가진 고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콘서트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을 읽거나 트위터 등 SNS로 접한 스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온 젊은 학생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포항에서 온 한 대학생은 “트위터로 평소에 스님과 대화를 했는데 마음치유콘서트에서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울산까지 달려왔다”며 밝게 웃었다.

한편, 대전에서 있었던 마음치유 콘서트에서는 2000명의 인파가 몰려 1000명이 되돌아가는 등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콘서트는 7월 21일 오후 4시 부산 MBC아트홀, 7월 28일 오후 7시 제주 한라대 한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지역소식

### 제7회 태종사 수국꽃축제

부산 영도 태종대 유원지 내 태종사(주지 종범)에서 7월 7~15일 제7회 수국꽃 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민속춤과 난타공연과 함께 40년간 가꾼 각국의 수국200여 종이 사부대중의 눈을 즐겁게 했다.

조실 도성 스님은 “수국은 토양의 산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며 중성이면 흰색, 산성이면 청색, 알카리성이면 분홍색이나 붉은색이 된다. 토양을 가꾸기에 따라 현현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불자들도 내재된 불성을 발현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며 자신을 가꿔가자”고 말했다. 태종사는 향후 수국을 통한 마음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몽골나담축제 열려

국제 불교교류 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과 ‘대구 마하 이주민센터’가 7월 8일 대구 방천리 환경자원사업소 체육공원에서 ‘제1회 대구 몽골나담축제’를 열었다.

몽골전통축제인 나담 축제는 몽골 이주민 150여 명이 참석 몽골 전통씨름인 ‘부흐’와 팔씨름, 달리기, 몽골노래공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쳤다. 함께하는 세상은 “7월 4일 몽골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이주민들에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장에는 함께하는 세상 은장권 회장, 대구 마하 이주민센터 지도법사 덕현스님과 이수찬 소장, 박성태 대구시의원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이주민들을 격려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수덕사 인근 문화유산지구로

충남 예산 수덕사 주변 용지가 사찰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된다.

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7월 10일 덕산도립공원 내 덕숭산과 수덕사 인근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3억 여원을 들여 기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자연환경법 상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시설의 설치 · 개축 범위가 제한돼있다.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불교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정대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전통사찰 중 문화재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법을 시행한 이후 모두 20개 국립공원에 문화유산지구가 지정됐으며, 충남도가 도립공원 안에 문화유산지구를 정하기는 처음이다. 충남도는 대둔산도립공원과 칠갑산도립공원에도 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낙산사에서 문무 겸수의 기회를

### 책 주제로 여름불교학교, 무술 캠프도 열려

양양 낙산사(주지 무문)는 7월 20일~22일 2박 3일간 낙산사 수련관인 인월요에서 ‘낙산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산사에서 책과 놀아보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는 참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스스로들 돌아보고 미래 진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로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이와 함께 낙산사는 주지 무문 스님 지도 하에 전통무예 십팔기 체험 캠프를 개최한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초 · 중고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서울대 전통무예연구회 사범들이 학생들에게 무술을 지도한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033)671-0881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사찰조경연구소 공동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법당 올라가는 길에 일렬로 배치한 석등(경기도 ㄷ사찰). 석등 일렬배치는 일본 신사에서 볼 수 있다.

## 석등의 진정한 의미 찾기

등은 불을 밝히는데 쓰는 기구이다. 불교에서는 등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상징하는 징표로 생각하여 광명대라고 하였으며, 부처님의 진리가 불빛에 드러나도록 하여 중생을 깨우치는 공양구로 생각하였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등공양이야말로 복전을 일구는 최고의 공양으로 생각하였으며, 좋은 날에 연등행사를 함으로써 부처님이 증득하신 진리의 세계를 찬양하기도 하고 원등(願燈)을 세워 소원성취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탑을 세우고 부처님을 전각에 모실 때 항상 등을 같이 세워 탑과 불상을 환히 비추도록 하였다. 어두울 때에도 부처님의 진리를 밝혀 불자들에게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생히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또한 어두운 밤에 스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짐승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등이 도입된 시기는 불교의 도입과 그 궤를 같이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유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등을 세우는 위치는 불상을 모신 주요 불전의 전면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밝게 비추도록 함으로써 부처님의 진리를 모든 이에게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따라서 등은 다른 기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밝게 비추기 위한 기능 때문에 만들었으며, 부처님을 비추기 용이한 위치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석등을 장식적인 요소로 생각하여 특별한 장소성 없이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마당이나 건물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석등을 세우기도 하고, 양식적으로 전통적인 우리 석등과 다른 모양의 것을 세우기도 한다. 더구나 일본의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석등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치된 많은 석등은 일본 신도의 상징이며, 일본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 사찰에서 일본 신사의 참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석등을 일렬로 배치하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며, 원등을 밝히고 싶은 많은 신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찰의 석등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게 비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바로 잡습니다〉 7월 11일자 본 코너의 부도형식 영탑원으로 표기된 충남 ㅈ사찰 사진은 다른지역 사찰 부도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10회 약 천 사

태(胎)중 아기 (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입재 : 양력 7월 29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 일 시 : 2012년 7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6월 11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7월 29일 (음, 6월 11일)
- 3 재 : 양력 8월 12일 (음, 6월 25일)
- 5 재 : 양력 8월 26일 (음, 7월 9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9월 9일 (음, 7월 23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02)3391-8523 / 011-9002-8523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 ‘중생의 눈’ 버리고 ‘부처의 눈’을 뜨자

## ④ 돌부처는 언제 눈 뜨나?

### 폭염 속에 하염없는 망치소리

백담사 계곡에는 수없이 많은 돌탑들이 쌓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약돌을 주워서 쌓은 것입니다. 그 탑들을 볼 때마다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생각보다는, 저 탑을 쌓는 짧은 시간동안 무엇을 기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석재공장에 진열된 석불과 석탑 등의 석조물들을 볼 때도 저 부처님과 탑도 어느 도량엔가 모셔져 중생의 귀의처가 되고 공양도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자리 잡을 도량을 기다리고, 눈 뜨는 순간[點眼]을 기다리고, 귀의해 찾아오는 중생들의 기도와 공양을 기다립니다.

폭염의 날들. 장마전선이 남하(南下)한 며칠의 무더위 속에 땡볕 보다 강열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쇠망치로 정(釘)을 치는 소리와 정 끝이 돌을 파는 소리가 동시에 터집니다. 화강암의 표면에서 튀어나가는 돌조각 뒤로는 구름 같은 먼지가 흩어집니다.

행자(行者)가 찾아 간 곳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인 석장(石匠) 이재순(李在珣 · 58) 선생의 석조공예관입니다. 바깥에는 키가 큰 석불상과 석탑이 즐비하고 안에는 작은 부처님들과 나한님들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눈짐작으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벽에 걸리거나 공구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재순 선생이 한 구석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기온은 30도를 넘는데 작은 선풍기 한 대를 등 뒤에, 그것도 좀 멀찍하게 놓았을 뿐입니다. 한참을 서서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석장의 바쁜 손길을 따라 나한님 한 분이 화강암의 그 단단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는 참입니다. 다소 굽은 허리와 편안한 앉음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매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완성과 미완성 그리고 생명력

“돌과 쇠는 다 강합니다. 강한 것이 만나 부드러운 것을 만들어 냅니다. 강한 것은 돌과 쇠의 속성이지만, 그것을 다듬는 사람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본래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재순 석장의 작업실, 벽에 각종 도구가 걸려있다.



이재순 석장이 그동안 조성한 나한상들

40년 넘는 시간을 돌과 함께 살아 온 이재순 석장은 강함과 부드러움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강함에 부닥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아무리 강하게 다가와도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드러움임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가끔 미켈란젤로를 생각합니다. 그는 ‘나는 신(神)보다 더 잘 만들겠다’며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답니다. 그러나 그가 도전한 것은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겠지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갈망하던 그의 진면목은 완성작 보다는 미완성으로 남겨 둔 작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에서 생명의 묘한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참모습은 미완성에서 발견하는 경이로운 자각이었다고나 할까요?”

생명력. 이재순 석장은 조각에서 생명력이 결여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잘라 말합니다. 한낱 돌덩이가 부처가 되고 탑이 될 수 있는 것도 ‘생명력’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릴 적 괴로운 마음을 싸안고 석굴암에 갔습니다. 돌일을 시작한지 4년여 되는 때였는데, 그 일에 회의를 느끼고 떠난 여행이었던 겁니다.

**석장은 돌을 부처로 탑으로 만드는 이 채석에서 완성까지 단계가 모두 수행 돌조각, 본래 부드러운 마음 찾는 과정**

그 상처 난 마음에 들어찬 석굴암의 부처님은 ‘나는 이승에서 결코 돌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보다 훌륭한 조각을 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이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으며 문화재 복원사업과 대형 불사에도 수차례 참가한 이재순 석장은 아직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꿈을 하늘에 걸어 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녹여 두었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죠.”



돌이 나한이 되기 위해서는 석장의 불성이 돌에 온전이 스며야 한다는 이재순 석장이 나한상을 만들며 조각 삼매경에 빠져있다.

### 손을 벗어나면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이재순 석장이 심기일전하여 작업에 몰입할 때, 그러니까 일에 한참 물이 오를 때 뜻밖에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찾아 왔다고 합니다.

그 역시 소설가로서 한참 잘 나갈 때였습니다. 외국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당신네들은 어째서 당신네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았다면서 석공 일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최인호 선생은 나름대로 여러 분야의 우리전통 유산들에 대해 공부를 하는 중이었고 석조유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직접 작업현장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재순 석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 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깨우친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고 그로인해 더 폭넓게 공부하고 연구하며 작업을 하는 계기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 나 스스로 전통기법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어요. 시류에 따라가는 ‘작업’이 아니라, 한 점을 남겨도 후손들에게 빛 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굳어진 것입니다.”

돌 일에서의 전통이란 수작업을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돌을 떼어내거나 캐내는 일에서 완성된 조형물이 나오기까지의 수없는 과정을 오로지 손으로 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반복되는 망치질의 지루함이 아니라, 쪼아내고 갈아내는 동안 수없이 애초에 목적한 형상을 그려 넣어야 하므로 흔들림 없는 초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동탑의 복원은 기계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맛도 없고 감동도 없는 조형물 하나가 만들어졌을 뿐, 천년 저 너머 백제인들의 숨결을 느낄 문화유산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쪼고 갈면서 혼을 바칠 때 투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그곳에 정교한 비율과 물욕을 뛰어넘는 숭고한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 단계에 맞게 도구를 쓰는 것도 수행

돌이 부처가 되고, 돌이 탑이 되는 과정은 지난한 수행입니다. 무명번뇌에 갇혀 있던 중생이 자성을 밝혀 불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구도의 행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만지는 석장의 수행이 돌을 부처가 되게 하고 돌을 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돌을 만지는 매순간이 ‘본래 부드러운 마음’을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돌 일에는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알맞은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돌을 선택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과정에 어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석불을 조성한다면, 그 석불이 어느 도량에 모셔지게 되고 그 도량은 어떤 곳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불상이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이 수행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돌부처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상으로서의 돌부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성하는 석장의 마음이 부처를 닮아 있고, 그 앞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중생의 마음이 부처를 닮아 있을 때 비로소 돌부처는 돌부처가 아닙니다. 석장은 돌을 다듬어 불상(佛像)을 만들지만, 그 형상에 비친 온 중생의 마음은 불성(佛性)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재순 석장의 공예관에는 수많은 돌부처가 있습니다. 전국의 석재공장에도 아직 눈뜨지 못한 돌부처가 비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며 서 있습니다. 그 많은 돌부처가 다 눈을 뜨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오면, 중생들도 다 ‘부처의 눈’을 뜰 수 있겠지요?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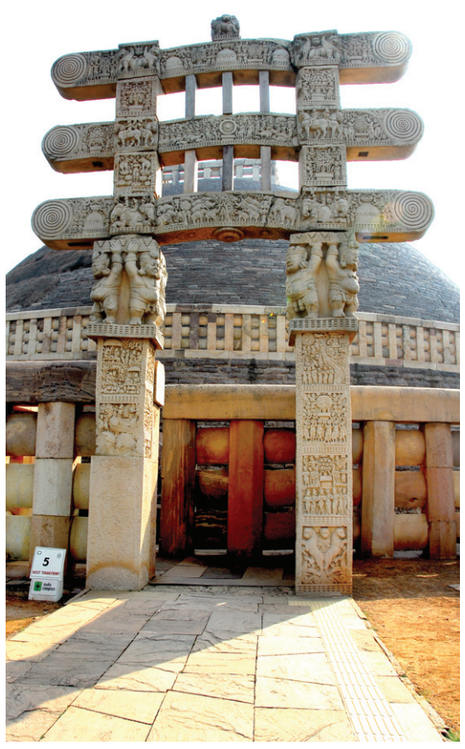
# 아쇼까왕과 데비 사랑이 깃든 산찌대탑

일행은 보팔박물관 관람을 위해 보팔(Bhopal)역으로 바로 갔으나 박물관은 월요일마다 휴관이란다. 할 수 없이 보팔 시내 관광으로 대체한다. 산찌대탑을 답사하기에는 시간이 어정쩡하기에 그렇다. 산찌대탑을 답사하려면 최소한 하루는 잡아야 하는데 한 나절밖에 시간이 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백화점 구내서점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일행과 잠시 헤어진다. 아쇼까 대왕과 관련된 서적을 사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쇼까 대왕을 연구한 서적은 서너 권에 불과하여 실망스럽다.

비디샤(Vidisha)역에 내렸더라면 지금쯤 산찌대탑을 답사하고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답사일행에게 시간이란 금싸라기처럼 소중한데, 인도중부 마디아프라데시의 주도(州都) 보팔로 바로 왔던 게 실수였던 것 같다. 비디샤는 인도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아쇼까왕시대 이전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한다. 비디샤 사람들이 상술에 능했던 데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다소 과장이 아닌지 모르겠다.

### 아쇼까왕 첫째부인 데비는 석가족 후예

비디샤는 아쇼까왕의 첫째부인 데비(Devi)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데비는 무역을 하여 부를 축재한 부호의 딸이었다고 하고, 데비가 살았던 마을은 산찌대탑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불심이 깊은 데비 부친이 집에서 가까운 산찌 언덕에 절을 하나 지어 스님에게 기부한 뒤 가족이 기도하는 원찰로 삼았기 때문이다. 데비 부친과 데비가 바라문교를 믿지 않고 불교신자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대로 불법을 지켜온 석가족이라는 설이다. 물론 데비의 선조들이 어떤 경로로 비디샤까지 이동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역사적인 기록도 까삘라성이 함락되자 일부는 네팔로, 또 일부는 상깟사로 무리지어 이주했다는 주장이 정설인 것이다.



사리불과 목련의 사리가 안치된 스투파. 생사를 초월하여 부처님을 사모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가 아닐까 싶다.

처녀시절부터 데비는 주로 산찌언덕에 있는 가족의 원찰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했던 것 같다. 아쇼까왕이 태자 때 웃자인(Ujjain) 총독이 되어 비디샤 지방을 다스리는 동안 데비를 만났던 장소도 산찌언덕이 아니었을까 싶다. 산찌언덕은 비디샤 평야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요새 같은 곳이기에 그렇다. 아쇼까 태자는 석가족의 후예답게 기품 있는 데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불심이 깊은 데비의 신앙심에 감화되어 불교에 매력을 느낀다. 때문에 훗날 아쇼까가 왕이 되어 불법에 귀의하는 동기를 데비의 불심에서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스리랑카 역사서인 〈디빠밤사(Dipavamsa; 島王統史)〉에 의하면 아쇼까 태자는 데비를 만나 아들과 딸을 낳은 뒤 마우리아왕조의 수도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4년간의 왕권쟁탈전 끝에 99명의 왕자, 즉 이복동생들을 죽이고 왕이 된다. 이후 데비의 아들 마힌드라와 딸 상가밋따는 빠딸리뿌뜨라로 올라가 부왕인 아쇼까왕을 만나 어머니의 소식을 전한다. 역시 〈디빠밤사〉에 의하면 두 남매는 '자식을 출가시킨 왕이야말로 불법의 상속자다'라는 마우리아왕국의 왕사 목갈리뿟따띳사의 법문을 들은 아쇼까왕의 권유를 받아 출가하는데 그때 마힌드라는 20세, 상가밋따는 18세였다고 한다.

그들은 10여 년을 수행한 끝에 장로가 되어 마힌드라는 산찌언덕의 절로 내려가 어머니 데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는 전법사로 파견된다. 뒤이어 상가밋따도 스리랑카 왕의 요청으로 비구니 전법사가 되어 보드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들고 빠딸리뿌뜨라에서 배편으로 강가강을 타고 벵골만으로 나갔다가 해로로 스리랑카로 가 그곳의 비구니승단의 지도자가 된다.

### 부처님 상징하는 보리수가 귀걸이하고 있네

다음날 아침 일찍 일행은 산찌대탑이 언덕으로 가 첫 단체입장객이 된다. 정문 오른쪽에 절이 하나 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감이 하나 전광석화처럼 머릿속을 스친다. 아, 바로 저 절 자리에 데비의 가족 원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아쇼까 태자가 시찰을 나왔다가 처녀 데비를 만났던 장소가 아닐까? 어머니 데비와 수행자가 된 마힌드라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자리가 아닐까? 나는 절로 먼저 가 참배를 한다. 스리랑카 스님들이 세운 절이라고 한다.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한 마힌드라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 절을 건립했을 것 같다. 법당 안에 그려진 벽화도 마힌드라 장로가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당을 지키는 스님에게 이곳이 데비 가족의 원찰이었냐고 묻자 금시초문이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예술성이 가장 뛰어난 산찌대탑의 북문 조각상. 두 개의 사각기둥에 세 개의 대들보가 걸쳐진 문(또라나)으로서 부처님의 전생담(자따까), 사문유관 등 일화들이 양각돼 있다.



북문 기둥 조각에는 원숭이에게 꿀을 공양받고 있는 귀걸이한 보리수도 조각돼 있다. 불상이 없던 시절, 보리수는 부처님을 상징했다.

**삼층으로 이뤄진 산찌대탑**
**바디샤 불교의 중심 역할**
**승가화합 칙령 담은 석주**
**아쇼까왕 신실한 불심 느껴**

이윽고 나는 일행과 함께 산찌대탑을 둘러본다. 대탑(마하스투파)을 최초로 건립한 사람은 아쇼까왕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대탑을 조성하고 석주를 세웠던 것이다. 왜 산찌언덕에 스투파와 석주를 세웠는지는 다른 곳과 차이가 난다. 아쇼까왕은 대부분 부처님이 설법한 장소 혹은 인연이 있는 곳에 스투파나 석주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산찌는 다르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첫째부인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이 산찌에 왔을 때는 이미 데비는 죽고 없었으니 신앙심이 깊은 그녀를 위하고자 스투파에 부처님 사리를 봉안하고 자신의 담마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우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고 보면 산찌대탑은 못다 한 사랑을 위해 바치는 아쇼까왕의 마음이라는 느낌도 든다.

일행은 북문 앞에서 감탄을 금치 못한다. 돌로 된 두 개의 사각기둥에 세 개의 대들보가 걸쳐진 문(또라나)으로서 부처님의 전생담(자따까), 사문유관 등 일화들이 양각돼 있는데 북문의 조각이 가장 빼어난 것 같다. 특히 불상이 없었던 시대에는 보리수가 부처님을 상징했는데 이곳 북문도 마찬가지다. 보리수 주변에 합장한 사람들이 많은 조각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광경이고, 보리수를 향해서 원숭이들이 그릇에 꿀을 담아 공양하고 있는 광경도 역시 보리수가 부처님인 것이다. 재미있는 조각이 또 눈에 띈다. 부처님이 마야부인에게 설법하고 내려온 상깟사의 삼계보도 꼭대기에도 보리수가 부처님을 상징하여 조각돼 있다.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어떤 보리수는 좌우로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부처님을 장엄하기 위해 귀걸이를 보리수에 걸었을 텐데 이는 산찌대탑의 설명문에도 없는 나의 발견(?)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일행에게 '보리수가 귀걸이를 하고 있다!' 하고 탄성을 내질렀던 것이다. 천녀 야시까(Yakshika)의 관능적인 조각도 눈길을 사로잡는데 사내들의 조각도 대부분 상류사회 인도인들처럼 배가 불룩한 것이 특징이다.

### 죽어서도 부처님을 사모한 사리불과 목련

대탑은 삼층탑 형식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을 상징하건 간에 비디샤 지방에 산재한 불교사원들의 중심축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듯싶다. 지금은 그 많은 사원들이 자취를 감추고 산찌대탑만 홀로 남아 당시의 영화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왔기 때문이다.

아쇼까왕 석주는 남문 쪽에 동강 난 채로 누워 있다. 석주 상단에 얹었던 사자상은 현재 산찌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석주에 새겨진 담마칙령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마모된 부분)... 승가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아들과 증손자들이 통치하는 한, 저 해와 저 달이 빛나는 한, 그렇게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 나는 비구승가와 비구니승가가 화합을 이루도록 하였다. 승가를 분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비구든 비구니든 흰옷을 입혀서 승원이 아닌 곳에 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승가가 일치하여 오래 오래 번영하도록 하려는 나의 염원이다.'

석주 뒤편에는 그리스풍의 둥그런 기둥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한다. 안내문을 보니 그리스풍의 신전(神殿) 유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쇼까왕의 할아버지 짠드라굽따가 격퇴한 알렉산더대왕 군대가 이곳까지 정복한바 그들이 남긴 헬레니즘 문화라고 생각된다. 산찌의 전성기 때는 8기의 스투파와 45개의 사원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3기의 스투파와 동굴 형식의 법당, 그리고 불상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답사일행은 대탑의 문들을 감상하다가 탑 중간쯤으로 올라가 탑돌이를 한 뒤 내려와 대탑 부근의 사원 터를 둘러보고 서문 밖 잔디밭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어느새 인도인들이 삼삼오오 입장하여 탑돌이를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대탑은 탑돌이를 세 군데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문 밖과 안, 그리고 탑 중간이다. 문 밖은 중생들이 머무는 욕계이고, 문안은 색계이며, 탑의 중간은 무색계라는 것일까. 탑돌이 한 번으로도 무색계까지 갈 수 있다니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대탑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지나쳤던 스투파가 사리불과 목련의 사리를 안치했던 스투파라고 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가깝게 있는 사리불과 목련의 절절한 보리심을 표현한 스투파 같다. 생사를 초월하여 부처님을 사모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가 아닐까 싶다. 사리불과 목련이 그립다. 부처님이 부럽다. 〈끝〉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藝園®
http://www.예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납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납품잔량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츄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게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 “화광여래로 존경 받을 것” 부처님 법화경서 수기

## ① 지혜제일 사리불舍利佛

〈하〉열반



성륜스님의 반야심경부채

“신통이 뛰어난 그대는 마음만 먹으면 한 겁이라도 더 머물 수 있거늘 왜 지금 열반에 들려고 하는 것이오?” 사리불이 식어가는 친구의 손을 감싸며 물었다. “그대 말이 맞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곧 열반에 드시고자 하실 것이네, 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먼저 열반에 들려는 것이네.” 목건련이 열반에 들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 사리불의 열반 결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1년 전이었다. 목건련은 그렇게 열반에 들었다. 평생 그림자 같았던 친구의 열반을 지켜 본 사리불은 자신도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사리불은 부처님께 자신이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 것을 허락받기 위해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향한다. 사리불은 목건련의 열반을 아뢰고 자신도 열반에 들 것임을 아뢰었다. 부처님은 말씀이 없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세 번째 간청을 올렸다. “그대는 왜 한 겁 쯤 더 머무르려 하지 않고 열반에 들려 하는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목숨이 짧기 때문에 내 목숨도 짧은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겁을 더 머물러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건련도 저에게 같은 말을 하고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것을 알기에, 차마 제 눈으로 부처님의 열반을 볼 수 없어 먼저 열반에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부처님은 한 동안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하라.” 사리불은 부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로 한 후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기원정사를 떠난다. 대중들이 사리불의 뒤를 따르자 사리불이 말했다. “대중은 각자 갈 곳으로 가시오.” 대중은 사리불을 공양하고 싶었다. “나는 쭌다 사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와 함께 갈 것입니다. 대중들은 돌아가 부지런히 수행하시오.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믿음을 성취하기 어렵고, 출가하여 법을 만나기 어렵고, 집착을 끊고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인(四法印)을 의지하여 길을 가시오. 모든 존재는 덧없는 것이요(제행무상인 · 諸行無常印). 모든 존재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일체개고인 · 一切皆苦印). 모든 존재는 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것이요(제법무아인 · 諸法無我印). 열반은 영원히 고요한 것이요(열반적정인 · 涅槃寂靜印). 무상한 존재들인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저 수미산도 변하고 있고, 부처님의 몸도 머지않아 영원히 쉬게 될 것이요. 하여 나 또한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돌아선 부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사리불은 가사와 발우를 챙겨들고 사미 쭌다와 만행을 준비했다. 열반을 결심한 사리불의 마지막 만행이다. 사리불은 70년을 살아온 육신을 내려놓기 위해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 날라까로 향한다.

### 마지막 전법

사리불의 몸은 열반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노모를 두고 열반에 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사리불의 어머니 이름은 ‘사리’ 다. 사리불은 사리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사리자(舍利子)라고도 한다. 사리불로 인해 사리불의 형제들은 모두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 때까지도 바라문교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리불의 어머니다. 긴 세월을

**부처님 열반 차마 볼 수 없어 열반**
**고향의 어머니께 마지막 전법**
**불자들, 반야심경서 사리자 만나**

외롭게 보냈을 노모를 생각하니 사리불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어머니는 잠이 들고 꿈을 꾼다. 수많은 하늘의 신들이 열반을 앞둔 사리불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그 중에는 바라문교의 신도 있었다. 바라문교의 신을 알아본 사리불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다. “지금 다녀간 신이 내가 섬기는 바라문교의 신이 맞느냐?”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아들에게 절을 올리는 것을 본 노모는 깜짝 놀라며 꿈을 깬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처님에 대해 묻는다. 사리불은 길에서 앗사지로부터 들었던 게송을 떠올리며 어머니께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한다. “좀 더 일찍 부처님의 법을 알았다면….” 노모는 뒤늦게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열반의 문턱에 있는 아들의 손을 지긋이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사리불은 행복했다. 노모의 귀의는 사리불에게 더 없는 행복이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사리불은 마침내 선정에 든다.



그림 · 김홍인

### 상수의 열반

부처님께서는 죽림정사에 계셨다. 그 때 사리불은 고향 나란다의 날라까 마을에서 열반했다. 쭌다 사미는 그를 간호하고 공양하였는데, 사리불이 열반하자 다비를 한 후, 사리를 줍고 가사와 바리를 가지고 죽림정사로 가서 사리불의 열반을 알린다. “저의 화상 사리불 존자께서 열반하셨습니다. 사리와 가사와 바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쭌다의 말을 듣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온 몸이 풀리고 천지가 뒤바뀌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난다가 사리불의 열반 소식을 듣고 슬퍼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가? 아난다여, 그 사리불은 받은 바 계율의 몸을 가지고 열반하였는가? 선정(禪定)의 몸, 지혜의 몸, 해탈의 몸, 해탈지견(解脫知見)의 몸으로 열반하였는가?” 아난다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불은 계율을 가지고 많이 듣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항상 세간을 멀리 떠나고,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생각을 거두어 편안히 머무르고, 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며, 빠르고 날랜 지혜, 깊고 날카로운 지혜, 분별하는 지혜, 큰 지혜, 넓은 지혜의 보배를 성취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비추며 대중을 위해 설법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일은 다 함(爲)이 있는 무너지는 법이니 어떻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이미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일체가 갖가지 물건과 뜻에 맞는 일은 다 어기고 떠나는 법으로서 언제나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니라. 큰 나무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가 무성할 때에 큰 가지가 먼저 부러지고, 큰 보배산의 큰 바위가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여래의 대중 권속에서는 저 큰 성문(聲聞)이 먼저 열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너는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그리고 알아야 한다. 여래도 머지않아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마땅히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아 의지하고, 어떤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가 몸을 몸으로 관하는 염처에 방편으로 꾸준히 힘써, 바른 지혜와 바른 생각으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항복 받고, 이와 같이 바깥 몸과 안팎 몸과, 느낌, 마음, 법을 법으로 관하는 염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아난다여, 이것을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스스로 의지하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함께 들은 여러 비구들이 받들어 행하였다. 잡아함경 권2, 24권 638장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의 열반을 슬퍼하는 아난다와 비구들에게 설법하셨다.

### 부처님의 고독

사리불이 열반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마투라국 발타라강가에 있는 산개암라숲에 계셨다. 포살을 위해 대중이 모였다. “나는 대중을 관찰하다가 허공을 보았다. 그것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했기 때문이다. 내 성문으로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제대로 설법하고 가르쳤다. 재물에는 돈재물과 법재물 두 가지가 있다. 돈재물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 구하고, 법재물은 사리불과 목건련을 따라 구하였더니, 여래는 이미 세상재물과 법재물에서 떠났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사리불과 목건련이 열반했다고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잡아함경 권2, 639 포살경.” 부처님의 열반도 다가오고 있었다.

### 사리자(사리불)여!

부처님도, 사리불도 이 세상에 없을 때였다. 당나라 현장 스님(602~664)은 당시의 한역 경전에 오역이 많음을 느끼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인도로 향한다. 익주의 공혜사에 이르렀을 때 노스님 한 분을 만난다. 노스님은 인도로 가는 길이 험한 길임을 일러주며 자기에겐 삼세제불의 심요(心要) 법문이 있으니, 이것을 수지하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때 노스님이 현장에게 전한 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심경이었다. 오늘날 전해지는 반야심경은 여러 본이 있는데, 그 중 〈소본심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관자재보살을 예로 들어 사리불에게 반야사상을 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본심경〉에서는 세존이 라자가하 영취산에서 삼매에 들고, 그러한 삼매속에 관자재보살이 옛날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 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힘을 빌어 관자재보살께 보살이 행할 바를 묻고, 이 물음에 대해 관자재보살이 〈소본심경〉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주고 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사리자(사리불)여! 물질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느낌과 생각과 지어짐과 의식도 그러하느니라. 사리자여!….”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른다. 현장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험한 길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부터, 차가운 밤이슬로부터, 사나운 맹수로부터, 포악한 산적들로부터 현장 스님을 지켰던 삼세제불의 심요법문, 반야심경. 그 속에는 ‘사리불’이 있다. 우리는 무명을 벗는 그날 까지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법화경 비유품에서 말씀하신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장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겁 동안, 수천만 억 나유타나 되는 많은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간직하고 여러 가지를 공양하고 보살의 수행을 완성하여 ‘화광(華光)’이라는 이름의 바른 깨달음을 얻은 존경받는 여래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봉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행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무향 (천수바라무,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 무 부 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송 청운암)
**규 정 부 장** 수연 법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 무 부 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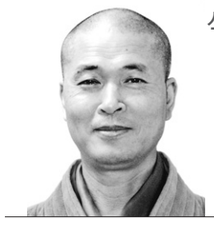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이 사 장** 혜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 무 국 장** 관음
**총 무 과 장** 청곡

**총 무 원 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 교 원 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 육 원 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 사 원 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종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종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종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 본 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 무 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 육 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무도 연맹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시신및장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종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높고 험준하여 오르기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고봉의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

問 高峻難上時如何 師云 老僧不向高峰頂

높고 험준한 곳은 도의 세계이다. 학승이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은 높고 험준하다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나는 높은 산봉우리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대답하고 말았다.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처음 입문해 도를 이루고자 생각할 때라면 누구나 도는 높은 정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간혹 잠잘 때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릴 정도가 되어야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초심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도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도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 속에도 도는 있다. 또 깨달음은 어느 순간 스승의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행자 때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육조 스님이 그 표본이다. 그후 조주 · 임제 스님 역시 단발의 가르침을 듣고 즉석에서 깨달았던 선사들이다. 이 돈오(頓悟)법이 선문의 정법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것(萬法)과 더불어 반려(伴侶)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이 아니다."

問 不與萬法爲侶者是什麽人 師云 非人

반려라는 말은 '짝'이라는 말이다. 짝 하다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산다는 의미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마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몸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한다. 몸은 곧 물질이고 물질에서 마음이 나오므로 몸을 잘 가꾸어야 한다. 6바라밀과 10선계를 잘 행한다면 그가 곧 보살이고, 부처이다. 반드시 그의 몸에서 방광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발상과 오만에 사로 잡혀있다면 그는 미개인이고, 불교를 저해하는 마구니 중에서도 상 마구니다. 이 몸으로 '아름다운 행'을 한다면 그가 바로 참 사람이고 불보살이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분에게 예배하고 찬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

장관이 물었다. "스님, 원컨대 종지(宗旨)인 중도(中道) 일구(一句)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장관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

問 請師宗乘中道一句子 師云 今日無錢與長官

불교의 종지는 중도(中道)이다. 선종, 교종을 막론하고 중도(中道)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이 중도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120세까지 살았던 조주 선사는 당시 국왕은 물론이고 여러 계층의 신하들도 자주 찾아뵈면서 설법을 들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드렸다. 그 때 한 장관이 중도에 대해 조주 스님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조주 선사는 "오늘은 장관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중도대의를 설법했다. 선사의 설법이 짧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이것이야말로 중도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중도가 무엇이기에 불보살을 막론하고, 역대 종사들이 이 앞에서는 더 이상 주를 달지 않고 주늑이 들고 마는 걸까? 만일 본 납자에게 조주 스님의 중도론을 평하라 하면 "조주 스님은 덕신(德信) 스님과 같아서 자비가 너무 많다"할 것이고, 만일 본 납자에게 중도에 대해 한 마디를 묻는다면, "임제 스님은 성질이 불같이 급해서 할 한 마디로 천하를 바꾸어놓는다"고 할 것이다. 천하의 납자들이여! 더 이상 뒤로 빠지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지금 당장 당당하게 자신의 중도론을 개진하라. 그대들은 이미 천상천하에 우뚝 선 붓다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22〉

## 흐르는 강처럼 실체없는 다섯 집합체

**삼과-①오온(五蘊)**

부처님은 깊은 명상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꿰뚫어 보았다. 이 깨달음을 통해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설하며 모든 것은 무상하므로 불멸하는 자아(自我)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대신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오온(五蘊)'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오온은 상호의존적인 요소들이 서로 합쳐진 집합체를 말한다. 오온을 현대어로 풀어서 말하면 '다섯 덩어리' 혹은 '다섯 개의 집합체' 정도가 될 것이다. 오온의 온(蘊)은 산스크리트어 스칸다(skandha)의 한역(漢譯)으로 '집합', '무리' 등을 의미한다. 이 다섯 집합체란 색온(色蘊) · 수온(受蘊) · 상온(想蘊) · 행온(行蘊) · 식온(識蘊)을 가리키며 줄여서 통상 색 · 수 · 상 · 행 · 식이라고 부른다.

이 다섯 집합체인 오온은 물질의 집합을 나타내는 색온과 정신의 집합을 나타내는 수온 · 상온 · 행온 · 식온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물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집합체 (1) 색온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일체의 물질을 총칭하는 말로 쓰이며, 좁은 의미로는 물질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 즉 인간의 몸이 넓은 의미의 색온이라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 치아 피부 혈액 머리카락 등은 좁은 의미의 색온이라는 뜻이다. 또 전통적으로 '변괴(變壞)', '질애(質碍)' 등으로도 해석하는데, 변괴란 물질이 변화 파괴되는 것을 말하고, 질애란 물질이 각각 일정한 공간을 점거해 서로 장애를 주며 동일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

(2) 수온은 느낌에 관한 것으로 유쾌, 불쾌 또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 느낌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나누면 정신적인 쾌, 불쾌의 느낌과 육체적인 쾌, 불쾌의 느낌이 있고,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느낌의 작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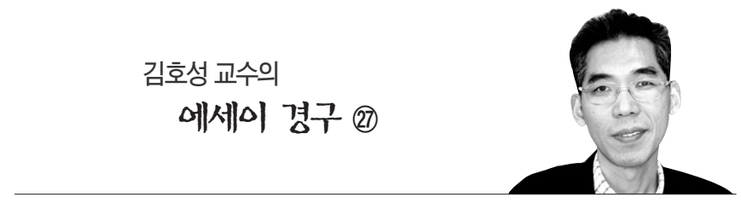
(3) 상온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지각 작용의 집합체이다. 상(想)은 심상(心像)을 취하는 취상작용(取像作用)이라 하여 현대어로 바꿔 말하면 개념이나 표상을 만드는 작용을 의미한다. 가령 '붉은 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붉은 색깔과 꽃이라는 식물에 대한 개념과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와 같은 작용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 상온이다.

(4) 행온의 행(行)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흐른다는 무상천류(無常遷流)의 뜻으로, 사물이나 어떤 작용이 드러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행을 설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 오온의 행에 대한 설명이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상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공통의 견해를 뽑아내면 다음과 같다. 행온의 행은 행작(行作)의 의미로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오온 중 색을 제외한 수 · 상 · 행 · 식이 모두 마음의 작용인데, 이 넷 중에서 수 · 상 · 식 세 가지 작용 뺀 나머지 마음작용이 행에 해당한다. 행온에 포함된 마음의 작용은 주의환기작용[作意], 감각기관과 대상의 접촉작용[觸], 의사작용[思], 정신통일[定], 잊지 않는 것[念], 지적작용[慧]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5) 식온의 식(識)은 '나누어 아는 것'이란 뜻이다. 즉 분별, 판단,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을 가리키며 이러한 인식이 모여 식온을 이루게 된다. 이는 인식작용을 가리키며, 이 점에서 식은 모든 정신 활동을 총괄하는 마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식은 삼과(三科)의 십팔계(十八界)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오온의 각 요소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도 같다. 그래서 무상하고 고정불변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견지하고 명상의 주제로 삼아 내면의 정신세계와 바깥 현실세계의 사물을 통찰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㉗

##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도다 반야를 얻은 이는 〈법구경〉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왠지 낯선 느낌이다. 어째서일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라는 이미지가 더욱 친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반야, 즉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범주(오온)들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이는 바위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대도 흔들림이 없다. 바위처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조그만 미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리 수밖에 없다. 마치 갈대와 같이.

바람은 같은 바람인데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갈대는 흔들린다. 아, 그렇다. 문제는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바람 탓을 하지 말자. 그것은 더욱 스트레스를 불러들이는 일일 뿐이다. 문제는 그 바람을 맞이하는 '한 물건[一物]'이 바위냐 갈대냐 하는 것에 있을 따름이다.

만약 내가 바위라면 나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갈대라면 나는 이내 흔들리고 말 것이다. 바람은 그저 "당신은 바위냐, 아니면 갈대냐?"라는 질문을 내게 던져줄 뿐이다. 나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병법의 제1조를 상기하는 것이 좋을 성싶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

우리가 늘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우리의 '적'인 바람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야 할 까닭이다. 도대체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언어, 口業]이라 말씀하신다. 나에 대한 남들의 말, 나에 대한 남들의 평가야말로 우리를 뒤흔들어 대는 '바람'의 맨얼굴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도다 / 반야를 얻은 이는 / 남들의 찬탄에도 비방에도 / 동요하지 않네 //"(등하 옮김, 〈법구경〉, 열린 마음, 199쪽)

왜 사람들은 남들을 찬탄하거나 비방할까? 물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탄에도 비방에도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방이다. 나에 대한 찬탄에 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이긴 하다. 찬탄에 들떠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반대인 비방에는 분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도 잠 못들고, 저래도 잠 못든다. 그래서 남들의 찬탄에도 비방에도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찬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광덕(光德)스님 말씀처럼, 칭찬중생은 칭찬여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문제는 남들에 대한 비방이라는 업뿐이다. 왜 우리는 남들을 비방할까? 남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남들을 비방하는 것이 우리들의 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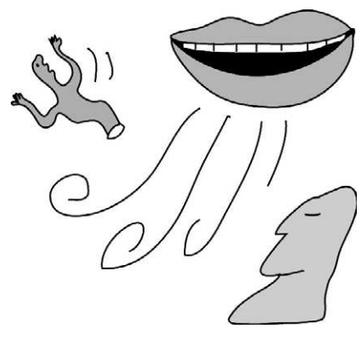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 남들의 업에 기인한 비방에 대해서 내가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여 불행해하거나 분해할 일은 없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마침 이런 내 생각을 담은 시를 지은 일이 있으므로, 여기서 독자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과 그 취지가 같다고 생각되어서이다.

"내가 東으로 가면 / 그들은 東으로 간다며 탓하고 / 내가 西로 가면 / 이제는 西로 간다고 흉보네 //

그제야 알았네 / 문제는 나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 언제나 나에 대해서 말해야만 하는 그들의 업에 있다 / 는 것을 //

그렇게 / 우리는 평생토록 / 남을 말하며 살아왔네 / 논하며 / 살아가네 / 자기는 말할 줄 모르는 채 //

그것이 너와 나의 오래된 업일세 / 친구여 //"(졸시, 「정구업진언」 전문)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쇄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종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은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20여년간 수십만명이 체험한 건강법을 지도 합니다.
단, 한번만 체험해 보시면 곧바로 확신이 옵니다.

이 운동으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고 전신의 막혀 있는 경혈을 뚫어서 질병의 뿌리를 뽑는 법 수록
-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발가락 운동과 뱃속의 단단한 덩어리인 적취(냉적)를 쉽게 푸는 법 수
- 악어가족같이 단단해진 어깨근육, 기립근육 좌골근육을 아주 쉽게 풀어서 통증을 뿌리 채 뽑는 법 수록
- 양쪽다리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손쉽게 바로잡아 전신의 균형을 바로잡는 법 수록
- 단침이 몽글몽글 솟아나며 전신의 자장을 높이고 몸속의 냉기를 확 뽑아내서 체온을 높여주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종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꽉차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싹~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054)637-9810

정골본가(이영숙) 서울성수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010-서울성동 0204호



묘공당 대행 스님(1927~2012)의 49재가 7월 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됐다. 1만 사부대중은 대행 스님 영전에 절을 올리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대행 스님 영전에 헌화를 하고 있다.



49재에 참석한 한마음선원 신도들은 삶의 큰스승 대행 스님의 법문이 온세상의 감로법비가 되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 온세상에 다시 감로의 법비 내리소서

## ■ 묘공당 대행 선사 49재 7월 9일 봉행
##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사부대중 1만명 동참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스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5월 22일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의 49재가 7월 9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봉행됐다.

무더운 날씨에도 본원 3~5층 법당과 지하 식당 그리고 마당, 인근 솔밭까지 전국과 해외에서 온 사부대중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49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렸다.

49재는 대행 스님의 영결식 진행을 맡았던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다.

부처님을 모신 상단에서는 명종, 개식, 삼귀의, 육법공양, 육성법문 등을 진행하고, 대행 스님을 모신 각령전에서는 어산장 동희 스님의 청혼의식, 헌화를 비롯해 추모사, 추모의 글과 선법가, 상좌의 편지, 음성공양을 올렸다.

대행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에서 스님은 "이 공부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공부다. 작은 것부터 큰 것 까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실험하고 체험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으며 "삼천대천세계와 우주 천지도 없으며 사생과 사계절도 없으며 동서와 시간도 없으며 공한 것도 없고 없는 것조차 없는데 곳곳마다 바람과 물 없는 곳 없고 꽃 안 피우는 곳 없고 두루 푸르지 않은 곳 없으니 앞산 뒷산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며 화하여 나투는데 발은 발대로 있고 손은 손대로 있더라. 어찌 광대무변하다 아니 하리"라는 게송을 들려주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은 진정 이 시대의 묘관음 보살이셨다. 생활법문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문화포교의 큰 장(場)을 이뤘으며 한마음과 학원을 통해 마음과 과학의 계발을 도모했고, 계층법문으로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다"며 "스님은 이 시대의 문수보현보살의 화신이고 현대 포교의 화신이었다. 이제 49일도 다 지나갔으나 다시 큰 보살로 환생하시어 온 세상에 감로의 법비를 내려주소서"라고 추도했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어른 스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라는 당부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인사했다.

명우 스님은 "갈길이 먼 우리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은 많은 의지처가 돼줬고 이제 더 이상 스님의 한없이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을 뵐 수 없다는 사실은 꿈과 같다"며 "일평생 한마음으로 대 자유인의 삶을 보여준 스님이었기에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맞이하게 됐다. 어찌하면 스님의 덕은을 갚겠습니까"라고 추모했다.

이후 본원 혼성 합창단의 추모의 노래에 이어 40여 년간 대행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박재원 신도회 고문의 추모의 글 낭독이 이어졌고, 대행 스님의 100여 명이 넘는 상좌들 가운데 가장 막내층에 속하는 사미니 스님인 혜환 스님(봉녕사 승가대학 취문반)의 편지 낭독이 있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고 생전에 법문하신 스님은 상좌들에게도 따로 특별한 정진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생활 속 마음 공부를 통해 자기라는 아상(我相)을 녹이고 근본과 하나 되는 길을 늘 일러주었으며 재가 불자들 또한 공부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았다. 상좌들은 선법가 '대장부'를 스님 영전에서 부르며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편 주지 혜원 스님은 사부대중에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꿈같기만 하다. 은사 스님의 영결 기간 동안 조문 와주신 제방 대덕 큰 스님들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 어른 스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은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라는 당부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인사했다.

49재가 끝난 뒤에도 신도들의 헌화 발길은 오후까지 계속 됐다. 본원 5층 법당에 마련된 스님 영전에 인사드리려는 불자들로 1층부터 5층계단 까지 줄을 이었다.

한마음선원은 선원을 찾은 신도와 외부 손님들에게 대행 스님 추모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와 스님의 법문을 담은 CD를 법공양했다. 이나은 기자

## 막내 상좌의 편지

### "늘 당신 품에 있습니다"

'스님' 하고 나지막이 속으로 외치면 스님께서는 어느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수평선 너머의 세계에 가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바다의 끝이 낭떠러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초월한 근본자리에서는 오고 감에 걸림이 없을 것이나 아직 그러하지 못한 저의 마음이 자꾸만 스님의 모습을 찾게됩니다. 그러나 곧 스님의 법문 속에서, 선법가 속에서 스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크나큰 허공에도 스쳐가는 바람속에도 모든 생명 품어서 길러내는 흙속에서도 잎사귀를 흔들어대는 나무 사이에서도 스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제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든 함께 하십니다. 하늘을 안아보려 애써 두팔 뻗지 않아도 제가 있는 곳은 이미 허공의 품속이듯, 은사 스님 품 그리워 하지 않아도 저는 늘 당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

빛나는 태양과 얼굴 마주대하지 않아도 모든 생명 햇볕 흠뻑 받아 자라듯 당신의 사랑은 온누리에 퍼지는 빛나는 햇살입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손잡아주시며 이끌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을 만나 스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스님을 찾을 수 없기에 더욱더 안으로 찾겠습니다. 오고감이 없는 자리에서 부처님 심부름 잘 할 수 있도록 스님 손 꼭 붙잡고 뚜벅 뚜벅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은사 스님 49재에 상좌 혜환 엎드려 절 올립니다.



봉녕사 승가대학 취문반 혜환 스님

## 49재 봉행 후 서산정을 향한 추도의 물결

대행 스님의 49재 봉행 후 사부대중은 점심공양을 마치고 스님의 향취를 느끼기 위해 생전 대행 스님이 주석하던 '서산정'으로 향했다.

도보로는 30분 거리.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사부대중은 아랑곳 않고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한걸음 한걸음 올라갔다.

서산정에 이르자 이미 많은 신도들이 도착해 있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신도들은 스님의 다비식을 진행한 터 앞에서 절을 올린 뒤 합장을 하고 서산정 내 마당을 돌았다. 스님이 머물던 서산정 안을 창문으로 넘어다 보기도 하고, 스님의 다비장을 치룬 자리에 돋아난 새싹을 응시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불자들도 있었다.

본원 신도 임융창 씨는 "직장업무로 바쁘지만 이번 49재는 꼭 참석하리라는 마음으로 왔다. 서산정을 둘러보고 '그동안 대행 스님과 인연으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던 내가 참으로 복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승을 떠나셨지만 스님은 항상 우리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김지숙 씨는 "서산정 곳곳에서 스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다비식을 진행했던 곳에 돋아난 새싹을 보니 '풀 한포기, 자그마한 생명에도 공부거리가 있다' 는 스님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다"며 "대행 스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어머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혜심 스님은 "49재 기간 동안 은사 스님 뜻 받들어 정진해야겠다는 그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혜석 스님은 "서산정 앞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는데 남녀노소 모두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걸어오는 정성스런 모습에 제자들이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산정 경내 다비식 터를 참배하는 신도들.



불자들은 서산정에서 스님의 법향을 그리워했다.

**서산정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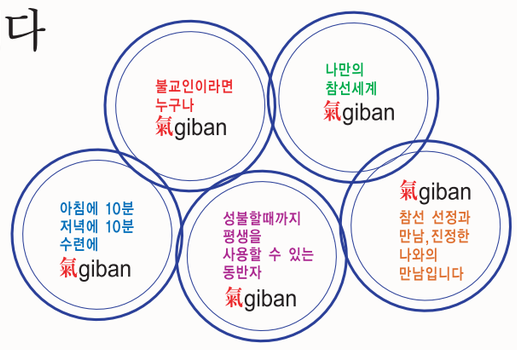
대행 스님은 2009년 11월부터 안양 본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삼성산 초입의 서산정에 주석했다. 스님은 서산정이라는 이름을 직접 짓고 '깊고 깊은 곳에서 지은 집' 이라는 뜻이라 했다. 노년의 스님은 이곳에서 어느 때보다 편안한 나날을 보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애달픔을 들어주고 안아주는 일은 입적하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 되었다고 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대행 선사 추모집
49재에 봉헌
대중 법공양

# 滿空에 피운 꽃은 靑山을 울리고




**"만나고 헤어짐은 없으련만 만나고 헤어진다 하네 아름답고 밉다 하지만 아름답고 미운 것도 없다네 이 세상 모두가 다 두구불천에 돌아간 이 세상 하나도 어김없이 돌아가고 또 돌면서 영원하리."**
**- 대행 스님 게송**

한마음선원은 대행 스님 앞에서 하나 된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7월 9일 대행 스님 49재에 맞추어 추모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를 발간했다.

추모집에는 스님의 행장, 영결식과 다비식 모습, 조문 인사와 선원 사부대중 추모 글 등이 200여 페이지에 400장이 넘는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책은 △한 점의 불씨로 만 가지 꽃이 피도다 △가신 바 없이 가신 님의 발자취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스승님 등 3부로 구성됐다.

**'한 점의 불씨로 만 가지 꽃이 피도다'** 편에는 1927년부터 2012년 까지 대행 스님의 출생, 유년시절, 구도기, 출가 후 펼친 포교활동과 행장 법어 등을 자료사진과 함께 담았다. 또한 스님이 평소 활동하며 제자 스님과 신도들에게 남긴 일화와 어록이 있어 당시 대행 스님 생전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대행 스님은 생전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러 곳에 도움을 주고 불교계의 발전을 위한 보시 또한 꾸준히 해왔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많은 액수의 기부를 해왔으나 한 장의 영수증도, 증여나 기부를 증명하는 서류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래서 가까이 모시는 상좌들도 얼마만한 금액이 어떤 곳에 기부되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스님 살아생전의 뜻이 어떠하였는지 이 같은 일에서도 그 자취를 알아볼 수 있다. 스님의 행장 편에서는 그러한 스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신 바 없이 가신 님의 발자취'** 편은 △영결에서 다비까지 △일곱 번의 작별인사 △천 개의 눈, 천 개의 손으로 나뉘어 대행 스님의 영결식부터 다비식, 그리고 초재부터 49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일어난 곳곳의 현황을 사진집 형태로 구성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스승님'** 에서는 △대행 스님 영전에 △천백억 화신이 응신이 되어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Condolences(애도 · from the web)로 구성돼 있다.

**한 점의 불씨로 만 가지 꽃이 피도다**
· 대행 선사, 우리 곁에 머물다 1927~2012

**가신 바 없이 가신 님의 발자취**
· 영결에서 다비까지
· 일곱 번의 작별 인사
· 천 개의 눈, 천 개의 손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스승님**
· 대행 스님 영전에
· 천백억 화신이 응신이 되어
·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추모의 글


한마음선원 본원 전경. 2002년, 본원 도량에 둥근 원으로 이루어진 탑을 세우게 한 대행 스님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구정토에 다 이르시라'는 뜻을 담아 구정탑과 칠보탑을 봉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내면의 탑'을 세우라는 뜻을 전했다.


서산정 경내 대행 스님 다비식 자리에는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대행 스님 영전에'는 5월 22~26일 대행 스님 분향소를 찾은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밀운 스님(원로회의 부의장), 설정 스님(덕숭총림 방장), 법산 스님(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혜거 스님(금강선원장), 명우 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박청수 원불교 원로 교무,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 육문 스님(백흥암 회주),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 연구원장), 자적 스님(수덕사 견성암), 홍윤식 동국대 교수, 이효재 패션디자이너 등의 대담이 실렸다.

밀운 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은 "지금 대행 스님만큼 법문할 사람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알아서 법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꿰어 안다 해도 근본 대의를 모르면 법문이 옳게 나오지 않습니다"고 했다.

이효재 패션디자이너는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스님을 멀리서 흠모하는데, 이런 사람들 연발처럼 많이 있을 겁니다. 대행 스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제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됐고, 저를 찾는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고 절 밖의 사람으로서 이런 감동을 갖고 있다는 건 다른 이들도 이러할 거라는 증거일 겁니다"고 했다.

'천백억 화신이 응신이 되어'에는 원공 스님, 혜지 스님 등 10여 문도 스님의 추모글이 수록됐으며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에는 한마음선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 신도들의 추모글이 40여 편 담겼다.

'Condolences(애도 · from the web)'에는 한마음선원국제문화원 청고 스님이 운영하는 블로그(http://wakeupandlaugh.wordpress.com)를 통해 영국 미국 독일 베트남 이탈리아 러시아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 해외 각국의 불자들이 올린 추모글이 실렸다.

이번 추모집은 한마음선원에서 격월로 발행하는 소식지 '한마음저널 제64호'의 특집판 형태로 나온 것이다. 한마음선원은 추모집을 1만 4000부를 대행 스님 49재에 참석한 1만 여 조문객과 스님들에게 모두 법공양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조문 인사 대담

### 좋은 분이 가셨습니다

대행 스님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보면 모두 당신의 경험입니다. 보통은 들은 지식을 가지고 끼워 맞춰 설법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행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증처(證處)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길 해보면 지식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분이 가신 겁니다. 불교 포교 정신과 맞춰서 상당히 높은 정신을 가지고 계셨지요. 오늘 이렇게 다녀가는 것은 내 깐에는 대행 스님을 짝사랑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다른 종(宗)을 차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계종에 계시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 큰 뜻 계승 발전 시키길

이 어른, 대행 스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큰 업적을 후대들이 잘 지켜나가고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길은 화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스님들이 됐건 신도가 됐건 전체를 다 끌어안아서, 대행 스님이 평소에 펴셨던 그런 불교를 스님네들이 더 활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스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교양과 지식과 덕성을 가진 인재를 만드느냐, 이거야 말로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교는 굳이 억지로 포장을 해서 바깥에 내놓지 않더라도 잘됩니다. 주지 스님이 중심이 돼서 대행 스님의 큰 뜻을 잘 이어서 발전시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스님(덕숭총림 방장)**

### 새로운 붓다의 출현처럼

1990년대는 제가 북한돕기를 할 때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의 상황에 가슴아파하며 대행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께서는 6000만원을 내주시더군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을 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큰스님의 가르침은 책 보고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바로 툭 터진 거니까, 우리가 경전 읽고 이런 거 하곤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이 툭 터진 상태에서 사물을 보고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부로서의 가르침이지 그냥 알음알이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지요. 만나서 인사드리고 대담해 보며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스님 가르침의 법은 새로운 붓다의 출현처럼 탁 터진 가르침입니다. 그런 만큼 한마음선원 대중들이 그 가르침의 그릇만큼 툭 터져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마음선원을 큰스님 법으로만 봤을 때에 굉장한 파워를 가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후계자들이 어떻게 이 법을 계승해 나가느냐 이게 문제죠. 법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것을 전수시켜 나갈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 어린이 신도들 추모글


어린이 신도가 그린 대행 스님 모습

"큰스님이 입적하셔도 우리들 지켜보시지요." - 박현우(7세)

"저는 큰스님께서 입적을 하셨지만 큰스님이 육신은 없고 마음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스님의 영결식을 TV를 통해 보고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 머리가 아팠지만 큰스님이 머리를 치료해준 것 같았어요. 큰스님, 항상 옆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 허소희(초6)

"큰스님 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생하셔도 법을 따르고 제가 죽어서도 법을 따르고 제가 다시 사람이 돼서도 따르겠습니다." - 고덕삼(초3)

"스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할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평생 슬퍼하며 살 수는 없기에 지금 다짐하겠습니다. '세세생생 항상, 스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히 정진하고,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고달픈 일이 다가오더라도 스님을 생각하며 이겨내겠습니다. 큰스님, 사랑합니다." - 성찬혁 (초5)

## 웹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추모의 글

"독일에서는 스님의 훌륭한 사상과 저작들이 이제야 막 전파되고 있습니다.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저는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알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목록 제일 순위에 항상 스님의 저작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이들이 큰스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 에블린 라리시카

"이미 여러 분들이 매우 사려 깊고 품격 높게 언급했듯이, 대인적으로나 가르침을 통해서나 우리가 대행 큰스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스님이 남기신 유산은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 마이클과 엘즈 노튼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큰 스승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스님을 보좌하고 사랑해온 모든 분들이 받을 축복은 배가 될 것입니다. 대행 스님께서 곧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더 많이 진화해 보다 조화롭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발원합니다."

- 마리안 마스트랜드(GPIW · 세계여성평화모임)

"몇 해 전 큰스님을 방문했을 때, 큰스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일종의 극심한 공황 상태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큰스님의 도움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스님께서는 그걸 아시고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속에 항상 큰스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도움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 타냐 도일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간송 전시로 맺은 인연…뜻 나누며 큰 불사

## 최완수 선생

"법정 스님하고 인연은 굉장히 깊어요. 1971년도 10월, 처음 전시를 시작할 때부터 오셨어요. 제가 추사 연구를 할 때 번역한 추사집을 보내드리면 스님도 책 보내오시고, 늘 편지 왕래를 하고 서로 찾았지요. 봉은사에 계실 때 두어 번 가 뵙고, 불일암에는 여름·겨울 방학 때, 한 해에 두 번은 꼭 제자들 데리고 가뵈었어요." 간송선생 동상 앞, 옛 서책 향이 감도는 담백한 연구실에서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최완수 선생(71)과 마주 앉았다. 한복을 입고, 컴퓨터도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는 선생은 '나는 조선시대 생활 그대로 산다' 고 말씀한다. 하얀 모시동옷 차림에 속이 다 들여다보일 만큼 해말간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자 같다. '세상에 이런 어른도 계시구나.'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동저고리 바람으로 손을 맞을 수 없다면서, 두루마기를 입고 오겠다고 하는 선생을 그러면 셔츠 바람으로 찾아온 제가 민망하지 않겠느냐면서 막아섰다.

방학 때면 제자들과 어김없이 불일암을 찾았다는 말씀에, 송광사 수련회에 동참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쭸더니 당신은 불교를 믿어도 계도 받지 않은 사람

**1971년부터 편지 왕래하며 교분**
**불일암 찾아 갖은 농담으로 묵언 깨**
**송광사와 길상사 불사 맡아 동참**

이라며 절집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못 지킬 계를 어떻게 받아요? 안 받고 안 지키는 게 낫지. 받고 안 지키면 약속위반이지요. 그러려면 아예 출가하지 이러고 있겠어요. 계에 묶여서 괜히 불편할 일을. 법정 스님을 비롯해 저를 좋아하는 스님들은 그래서 더 좋아하지."

어느 해 겨울, 선생이 불일암을 찾으니 법정 스님이 삼동결제를 하면서 묵언패 내걸었다. "묵언수행을 한다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은 농담 다 해가지고 실컷 웃기고 묵언을 다 깨뜨려놓고 왔지요. 하하. 그때는 법정 스님이 제자를 받지 않을 땐데 내가 제자를 여럿 거느리고 가서 '상좌 두세요. 상좌를 빨리 두셔야 노후가 편안하실 테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상좌 두셨더라고. 그러니까 상좌들이 어리지. 그때 그랬는걸. 상좌 하나가 지옥 한 덩어리이라고." 선생에게 속세 인연은 짓지 않아 자식은 없더라도, 자식이나 진배없는 제자들이 30여 명이나 된다. 법정 스님 지옥은 일곱 칸이지만 선생 몫은 서른 칸이 넘는다고 농을 건넸더니 "그래도 지옥을 짊어지고 가야지. 지옥고를 받아야 극락도 오는 거니까."라면서 너털웃음을 짓는다. 그 말씀 끝에 "지옥, 내가 먼저 들어 갈 거야." 했다던 조주 스님이



"나는 조선시대 그대로 산다"는 최완수 선생. 법정 스님과 현호 스님 부탁으로 송광사와 길상사 극락전 불상조성 등 큰 불사를 논의하며 뜻을 같이 했다.

떠올랐다.

"법정 스님하고 상당히 친했는데 강원도로 떠나시고 난 뒤에는 굳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고 들지 않았지요. 꼭꼭 숨었다는데 뭐 하러 찾아요. 그래도 봄·가을 열리는 전시회 때는 꼭 오시고, 서로 부탁할 일이 있을 땐 반드시 찾았지요. 85년 8차 송광사 중창불사 때 법정 스님이 현호 스님을 데리고 이리 오셔서 부탁했어요. 그러니 어찌 각별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뒤로 송광사나 길상사 불사는 제가 맡았지요."

길상사는 1997년 2월 14일 등록하면서 청학 스님이 초대 주지를 맡았다. 그때 법정 스님은 최완수 선생이 불사를 맡아달라고 했다. 청학 스님은 선생에게 산만한 구조물들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선생은 '중심 건물이 어디냐?' 고 물어 지금 극락전 자리를 중심 법당으로 정했다. "신라 이래로 개인 집을 절로 만들 때, 대체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극락전으로 해왔다. 극락왕생을 발원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전통이니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내어 중심 전각이 대웅전이 아닌 극락전이 되었다. "우리 고유특색 같은데, 고려 중반기 무신난 이후로 아미타불 좌우보처를 경전 가

**불상조성 과정 낱낱이 적바림 복장**
**길상사 중심전각을 극락전으로**
**달 같은 극락전부처, 해 같은 설법전부처**

르침대로 관음·세지를 모시지 않고 관음·지장을 모셨어요. 과거·현재·미래를 다 통섭해버린 거지요. 우리겨레는 종합해서 함축하기를 좋아해요. 요점정리를 해서 단순화시키지요. 그 전통을 따라 길상사 극락전에 아미타 삼존불 모셨어요."

우리 정서로 보아 시작이 반이라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바로 되는 줄 아니까. 선생은 그렇게는 못한다. 서두르겠지만 내 마음에 들어야 일을 끝내겠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 "결국은 내가 한 것이 될 텐데 잘못되고 나서, 일을 서둘러 마쳐서 잘못됐다고 해봤자 얘기가 안 되니까." 선생은 부처님 모실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불상 크기가 나올 테니까, 먼저 건물 개조부터 해야 한다면서 닫집을 조각하고 불단을 조성할 사람, 후불탱화 그릴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 아퀴를 지었다.

우리 선조들이 불상을 모실 때 불상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하나하나 적어서 복장에 넣어놨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서 불상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최완수 선생. 송광사 불사하면서부터 복장 연기문에 불상 조성 과정이 얽힌 사연을 낱낱이 적바림해서 넣었다. "불사를 하면서는 그 내용을 동판에 부식시켜서 넣었어요. 그런데 길상사는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법정 스님이 그런데 매달리기 싫어하는 분이니까. 종이에 쓰겠다고 해서, 되도록 종이가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 제자들이 만든 종이하고 글을 드렸어요."

극락전 아미타부처님이 달처럼 은근하고 푸근하다면, 설법전 석가모니부처님은 해처럼 씩씩한 기상이 조어장부답다. "극락전 부처님 원형은 보덕사부처님이에요. 제 머릿속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대강 담겨 있지요. 처음 송광사 대웅보전 부처님 조성 부탁을 받고 그 가운데 어느 부처님을 본본(本本)으로 할까? 고민고민하다가, 제가 열 살 때 처음 보았던 보덕사 부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 돌아가자! 마음먹고는 바로 현호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태어나 가장 먼저 친견했던 부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그리고는 한 겨울에 제자들과 현호 스님, 태성불교사장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마음에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현호 스님 마음에 들면 더 좋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대로 헌다.' 법정 스님이야 이미 경지를 다 넘은 분이니까. 그렇다지만 현호 스님이 대단해요. 흔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하더군요."

충남 예산군 가야산(伽倻山) 보덕사(報德寺) 극락전에 독존(獨尊)으로 모셔져 있는 아미타여래불상은 높이가 117센티미터로 고려 명종(1171-1197) 때 조성하고, 조선 영조2년(1726)에 중수한 종이로 만들어진 불상이다. "길상사 극락전 불사 시작할 때도 현호 스님이랑 보덕사를 다시 갔어요. 가서 보니 어떻게 뭘 잘못 했는지 부처님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 무엇으로 부쳐놨더라고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보완불사를 하려고 바로 제자들과 태성불교사 사람을 내려오게 했어요. 불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직접 친견하고 만지면서 도면을 그리고, 조각을 할 때 감수도 했으니까. 송광사 부처님보다 길상사 부처님이 더 보덕사 부처님에게 가까울 수밖에요"

같은 해, 청학 스님이 긴 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당으로 써야 하겠다고 했다. 선생은 무설전으로 할지 설법전으로 할지, 법정 스님과 의논하라고 했다. "법정 스님이 무설전은 싫으셨던 모양이야. 수 쓰는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설법전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법을 설하는 곳이니까. 석가모니부처님 단독상을 모시자고 했어요." 청학 스님은 마침 시주자가 나타났다면서 시줏돈에 맞춰 순금불상을 예술품으로 잘 만들어서 봉안을 하자고 했다. 선생은 그도 좋지만 너무 작으면 집어가기 쉬우니 사람 하나 도둑놈 만들기 딱 좋지 않겠느냐면서 널따란 방에 조그만 불상 하나 놓였을 때 구성미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천정이라도 높으면, 작은 불상이라도 높이 모실 수는 있지만, 평방이라 저 뒤에서는 일어서서도 겨우 보일까말까 하지 않겠느냐? 법정 스님하고 의논을 하라고 했다. "설


www.gounsa.net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고운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중·고생. 일반)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고운사로 가자
어린이 수련회



- 일 시 : 2012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 참가비 : 오만원
- 대 상 : 초등학생 누구나

what is the Buddha?
중·고생 영어수련회



- 일 시 : 2012년 8월 3일~5일 (2박 3일)
- 참가비 : 칠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천년 솔향기와 함께하는
일반 여름 수련회



- 일 시 : 1차 수련회 (8월 6일~ 8일)
  2차 수련회 (8월 9일 ~11일)
  3차 수련회 (8월 12일~14일)
- 참가비 : 일십만원
- 준비물 : 세면도구, 개인용품

|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 참가신청 :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 참가문의 : 고운사 종무소 054)833-6933. 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정서치유를 위한 승마훈련과 禪무드라 명상 테라피'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기상과 조선시대 승병들의 혼이 깃든 함월산 선무도총본산 골굴사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치유를 위해 제 41회 (21년전통) 여름계절 학기를 개최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1.「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와 심신치유 프로그램 2. 승마 정서치유와 호연지기
3.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 언 제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25일 (5주간)
※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0-15시 입산. 토요일 12시 하산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 련 회 비 : 1주 - 49만원 / 2주 - 90만원 / 3주 - 110만원 / 4주 - 13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수건·필기도구·운동복·운동화·모자·개인 컵 등(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접수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 홈페이지: www.sunmudo.com
※ 환불규정 : 입소당일 취소는 하루수련비(7만원)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 1. 건강회복·심신단련 :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산행 2. 호연지기 : 호신술, 국궁수련, 승마교육
3. 심성정화 : 108배, 참선, 운력, 텃밭가꾸기
4. 정서치유 : 명상테라피, 선무드라 테라피, 상담치유, 미술테라피, 무용테라피, 전통음악테라피(판소리,전통악기),생태체험치유
5. 교양수업 : 문화관광(성지순례, 박물관) 원어민 영어회화, 불교강의와 한문교육, 다도



1500년 전통사찰·연인원 4만명(외국인 템플스테이 6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화랑사관학교**



반세기동안 간송 미술관에 뿌리를 내리고 겨레 미술 연구에 온 정열을 쏟은 최완수 선생은 신수대장경 보려고 간송미술관에 갔다가 겸재를 만났다.

득 당했지. 얼마 있다가 와서 선생님 뜻대로 하시래요. 그래서 이곳은 법을 설하는 설법전이니까 강인하고 장대한 느낌을 가진 부처님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황복사 삼층탑에서 나온 순금불을 원형으로 삼았어요."

극락전 부처님은 태안반도 백제불상이 본본인데, 설법전 부처님은 신라불상을 본본으로 삼았으니 다를 수밖에 없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는 남북조 시대, 육조시대 불상양식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가, 당나라 때로 오면서부터 불상양식이 확 바뀐다. 그런 까닭에 처음 당나라 양식을 받아들인 황복사 불상은 풍후하고 당당하다. "후불탱화 걸어봐야 멀리선 보이지도 않을 테니 단독상으로 모시고, 광배를 했어요. 단이 낮으니까. 뒤에서는 광배 끝이라도 뵈어야 하지 않겠어요?"

2004년 지장전을 지을 때도 아무래도 선생님이 해주셔야 하겠다면서 선생을 찾은 당시 주지 덕조 스님에게 "법정 스님 뜻이라면 마땅히 내가 해드려야지."하고 선뜻 대답을 했다. 어떤 규모로 짓는지, 향이 어떤지는 알아야 그에 맞는 불상을 조성할 수 있기에 현장 나들이를 여러 번 했다. 그때마다 법정 스님이 동석을 했다. 선생은 속으로 '왜 하필 지장전이누?' 그 자리가 중심 자리인데 지으려면 대웅전을 짓든지 해야지. 그러다 '아! 금고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닫았다.

"하하 또 고민이 시작이지. 흔히 명부전이라고 해놓고 시왕상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나 나나 모두 도깨비굴이라고 맞지 않아 하거든. 내가 법정 스님 의도를 알아차리고 '시왕상을 모실 거냐?' 물었더니, 스님이 '그 도깨비굴 귀신들 다 끌어다가 뭐할 거냐' 고 그러셔서 삼존상만 모시기로 결정하고는 지장보살 연구를 한참 했지. 우리나라 지장보살이 독특해요. 그냥 맨머리 승두상과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이 있는데, 우리는 고려시대 이래로 두건 쓴 피모지장(被冒地藏)이 주로 신앙 대상이 되어 불화로 그려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각상으로 남겨진 것은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 있더란 말이에요."

**왜 하필 지장전이누? 대웅전 지어야지**
**'명부전을 지장전으로' 송광사가 처음**
**스님이 바람이면, 선생은 뿌리 깊은 나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천장(天藏), 지장(地藏), 인장(人藏) 삼장(三藏)인데, 이 지장보살 세 분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곳이 선운사다. 모두 두건을 쓴 선운사 지장보살 가운데 도솔암 지장보살상이 가장 좋은 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생은 그 불상을 본본으로 하자고 마음을 먹고 일행과 함께 내려갔다.

"한 번 보면 흠결이 없어보여도 자세히 살피면 파탄된 게 많아요. 기본틀만 두고 모두 바로 잡았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이에요. 창신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설 까닭이 뭐겠어요?" 그 뒤 법정 스님이 만나자는 기별이 와서 가보니 전각 이름을 정하는 자리였다. 당신이 먼저 뭐라고 입을 열면 생각을 접을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선생에게 법정 스님이 명부전은 귀신이 사는 집 같으니 지장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요. 지장전이란 명호를 일반화시킨 건 송광사부터에요. 그 전엔 모두 명부전이라고 했지. 가끔 지장전이라는데도 있었겠지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지장보살을 모셨으니 지장전이라고 해야 한다고 내가 우겼죠."

선생에겐 조선은 당파싸움만 하다 망한 형편없는 문화를 가졌다는 조선정체설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불상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장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최완수 선생. 신수대장경을 보려고 간송미술관을 찾았다가 그만, 발이 묶였다. "겸재를 만난 거죠.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땐 조선사를 호감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미친놈 소릴 들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겸재로 조선 문화가 지닌 저력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선 전기에는 소를 그려도 물소를 그리고, 사람들도 죄 중국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겸재는 우리 갓과 도포를 입은 선비, 우리 승복을 입은 승려, 우리 저고리를 입은 여인들을 그렸을 뿐 아니라, 중국 산하가 아닌 금강산과 인왕산을 그리지요. 겸재 이후 김홍도와 신윤복 조선풍속화가 출현합니다." 1966년 일이다.

선생이 간송미술관에 뿌리를 내리고 이 겨레미술 연구에 온 힘을 쏟은 지도 어느덧 반세기. 이곳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밖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뭐에 취하면 그것밖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거든. 예전 선사들도 절문에 한 번 들어서면 평생 문밖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출가! 늘 버리고 떠난 법정 스님이 선선한 바람이라면, 평생 한 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선생은 뿌리 깊은 나무다. 전시회도 한 해 두 번밖에 열지 않으면서 연구한 바탕에 뭐가 있었을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살라고 하면 아무도 못살지요." 앞으로도 할 연구가 많을까? "그러믄요. 우리 역사 연구가 여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대 사학이라는 게 식민사관에서 출발했으니까. 죄 바꿔야하는데 저는 바꾸기 시작하는 틀, 겨우 주춧돌만 하나 놓았을 뿐이지요. 이제 후학들이 사방에 주춧돌을 놓고 궁궐내부를 지어나가야 하죠. 내가 시의적절한 때 여기 와서 뿌리를 내렸던 거죠. 조선이 망가지는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하려들었다면, 간송 같은 일밖에는 못하죠. 간송 선생이 해놓으신 일을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리하기 시작한 거지요." 선선히 웃는 선생 얼굴에서 서산 백제마애불이 보인다. 씨도둑은 못한다더니.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 나팔꽃



동국대 명예교수

칠월이 좋다. 옛 동무를 만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기약 없이 헤어졌지만 꼭 그 달이 되면 만날 수 있는 벗. 나팔꽃이다.

기쁜소식이란 꽃말을 지니고 있는 나팔꽃은 사귄지가 오래 되었다. 아마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산꼭대기에 오르던 소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아침의 일이다. 예전과 같이 산정상에 올랐다.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그려보기도 하고 발성 연습도 하였다. 몰골을 보니 신발이나 바지가랭이는 아침이슬에 채여 물기가 흥건하였다.

호기를 부려 주변을 보니 나팔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다. 동행하는 동무가 없어도 그냥 피어 있었다. 저 꽃에서는 무슨 향기가 날까 궁금증이 발동하여 살며시 코를 내밀고 흠뻑 숨을 들이 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기대했던 향기가 호들갑을 떨며 어디로 뛴지 모르겠고 꽃잎이 콧마루와 양 콧방울에 찰싹 달라붙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의 상황은 마치 어느 거인이 나의 전신을 물 묻은 손가락 하나쯤으로 튕겨 어느 구석으로 날아 간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아니면 오늘날 기중기의 한 아가리에 들어 올려 허공에 띄워 놓은 기분이었다라고나 할까. 하여간 두려움이나 경이로움을 체험했던 것만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여름에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를 발견하였다. 나팔꽃은 해가 거듭된다해서 나이테가 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옛 모습 그대로 앳된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인간은 가는 세월을 붙들려 하고 이마에 훈장이 늘어가고 눈가의 주름이 참빗살 마냥 촘촘히 늘어감을 한스러워한다. 나이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신비를 알아냈다. 출행길에는 물목이 있다. 여러 물목이 있는데 유독 비탈진 곳에 놓인 물목은 물을 받아 저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공간 또한 그렇다. 그런데도 군말 한 마디 없이 넝쿨이 진군하고 있다. 세상을 점령하겠다는 용기를 낸 듯. 지지대 하나 의탁할 곳 없어도 좋다 싫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누구 때문에, 때문에 … 때문에에 위로를 삼고 대열에서 쳐진 자신을 구원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노라면 어린아이들이 신나게 물똥싸움에 흠뻑 취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의 유희가 신기하다는 듯 흡족한 웃음을 띄고 바라보고 있다.

나팔꽃은 누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행인의 발밑에 밟혀도 문드러지지 않고 꼬부랑 할머니의 나들이 마냥 힘겹게 발을 내딛고 있는 듯도 하다. 저 나팔꽃은 겸손을 안다. 인내도 안다. 그 뿐이랴. 정진의 묘미는 일찍이 터득한 듯하다.

소년시절에는 세상을 품에 안고자 하였다. 오직 나의 품에. 그리고 아침 햇살에 미래를 기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세상을 모두 안으면 무거워 숨 쉬기조차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내가 아닌 상대가 안고 누리기도 허용한다. 여명의 찬란함보다 석양의 노을이 아름다운 줄도 안다. 지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린시절 같이 기를 쓰고 산에 오르지 않는다 해도 무방하다. 주변에서 새 벗을 언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벗은 책이다. 청나라에 고천리(顧千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 그는 한 여름에 벌거벗고 책을 읽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한편 읽고 싶지 않으면 사철 독서하지 않는 방식도 따를만하다 하였다.

**나이테가 늘지 않는 나팔꽃**
**주름이 늘어가는 모습 한스러**
**옛 것에 그리움을 가져보자**

봄에 독서함은 봄 뜻에 거슬린다
여름은 그저 잠으로만 보내라
겨울이 저물어 조급해지거든
잠시 기다리라, 다시 올 봄을

고천리의 습관에서 엿 볼 수 있는 진정한 독서법이란 무엇일까. 그 답은 간단하다. 마음이 내키면 책을 들어 읽는다는 것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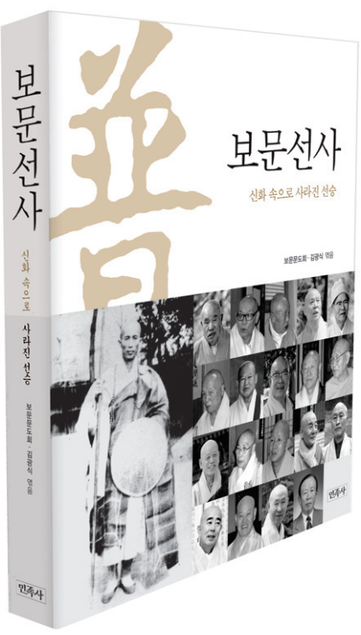
어제는 책장을 넘기다 어찌나 잠이 쏟아지던지. 주체할 수 없던 걸. 정신을 가다듬으면 어느 결에 염탐꾼 마냥 오수는 찾아들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여름은 그저 잠으로만 보내라' 는 말은 그저 한 말이 아닌 듯하다. 잠자면 그만인 것을.

바람이 속삭이며 지나 간 곳에는 아린(芽鱗) 조각도 벗겨주고 녹색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가르침이 자연의 섭리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소년의 발길이 머물던 곳에 피었던 나팔꽃은 이제 군락을 이루었을 것만 같다. 난방시설이 바뀐 세상이다 보니 어느 섶나뭇꾼의 발길도 닿지 않았을 터이니 더욱 그렇다. 옛 벗을 만나러 산에 올라볼까. 옛 것은 항상 그리움을 안고 있으니까.


"보문스님이 오래 사셨다면 종정도 하셨고, 한국불교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초우큰스님)

갈빗대를 잘라내는 대수술에도 화두만을 붙들었던 스님, 보문스님의 전설이 밝혀진다



진정한 간화선승!
성철스님과 봉암사결사를 이끈 주인공!!
선방의 수좌 스님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큰스님, 보문선사

"성철스님은 큰스님이기는 해도 아직 견지가 똑 떨어진 사람이 아니여. 내가 보기엔 보문스님이 진짜 선승이지. 그런 스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스님은 말을 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스님이에요."
성수큰스님(전 해인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장)

보문선사
신화 속으로 사라진 선승

보문문도회 · 김광식 엮음 | 376쪽 | 정가 28,000원 | 양장(175×225mm)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www.minjoksa.org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바로 경허선사이시다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술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만공월면"

善惡過虎佛 是鏡虛禪師
遷化向甚麼處去 酒醉花面臥



경허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글 · 일지 | 352쪽 | 13,000원
소프트양장(150×208mm)

민족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 이간질한 댓가는 '아비지옥행'

### 용두부월형(龍頭斧鉞形) 의식구 소견


용두부월형 의식구

처음 행자를 시작했을 때 어른 스님들께서 절 집안은 용사(龍蛇)가 혼재(混在, 섞여 산다)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깨달은 훌륭한 스님들과 아직 깨치지 못한 스님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동화사에서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장고와 전시실에 있는 많은 유물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다른 곳에는 없는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소장되어있다. 이 용두부월형 의식구는 어느 탱화에 그 유례를 보이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간 목조각으로 용머리에 혀를 도끼처럼 만들어놓은 것이다.

입속에 혀 대신 도끼를 달고 있으니 무척 힘들 것 같은 데 왜 도끼를 매달고 있을까? 야운비구자경문(野雲比丘 自警文)에 보면 그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 담마빠다 돼지 귀신 이야기

### 입의 허물에 관한 과보 전해

구무다언(口無多言) 신불경동(身不輕動) 구시화문(口是禍門) 필가엄수(必加嚴守) 뜻을 풀이해 보자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벼이 하지 말라.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니 반드시 엄정히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

담마빠다(법구경) 게송 281번에 보면 탐욕스러운 돼지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날 목련존자가 락카나 스님과 영축산을 내려 오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락카나 스님이 이유를 묻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말하겠다고 약속한다.

목련존자는 탁발을 끝내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리에 앉은 후 그가 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돼지였고 그 입에서 꼬리가 자라나고 있고, 꼬리끝에는 구더기가 자라고 있다. 그런 흉악한 귀신은 다른 곳에 없으리라 하고 미소지었다 말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 귀신은 무슨 과보로 그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가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부처님 당시에 두 승려가 작은 마을의 한 암자에서 수행할 때 둘의 나이는 서로 한 살 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한 살 어린 승려는 언제나 선배를 깍듯이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포교에 능숙한 스님 하나가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스님은 암자를 차지하기 위해 두 스님을 서로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선배스님에게는 후배스님이 뒤에서 욕한다고 하고, 후배스님에게는 선배스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해서 두 스님이 서로 불화를 일으켜 둘 다 암자를 떠났다.

이후 십몇년이 지나 다른 사찰에서 마주친 두 스님은 서로 참회하다가 포교사스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암자로 돌아와 포교사스님을 내쫓는다. 이 포교사 스님은 그 후 수천생을 지옥에 있다가 귀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과보인가!

이와 같은 입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럿 있지만 법구경에 물고기 까삘라 이야기가 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가 그물을 치자 황금빛의 귀여운 물고기를 하나 잡았다. 그래서 어부는 그 물고기를 왕에게 갖다 바쳤다.

왕은 물고기가 왜 황금색을 띠고 있는지 궁금해서 부처님께 가서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스님이었던 황금고기의 전생을 이야기 해주었다. 그는 주변의 스님들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정법을 비난했던 과보로 황금고기로 태어났으며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죽어서도 아직 못다한 과보를 갚기 위해 아비지옥으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시니 많은 대중들이 놀라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입에 도끼를 단 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 "연꽃 감상하며 찜통 더위 식혀요"

### 전국 7~8월 연꽃 축제 한창


여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꽃 축제가 열려 대중들을 설레게 한다. 주최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의 시선을 끈다. 사진은 부여 서동연꽃문화 축제 장면.

여름 연못이 아름다운 이유는 연꽃 때문이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말간 연꽃은 한껏 피어올라 그 곱고도 청초한 자태로 중생들의 근심걱정을 녹인다. 그래서 오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휩싸이지 않으며 오롯이 하늘로 향하며 세상을 환히 밝히는 연꽃은 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각 지역마다 연꽃축제가 한창이다. 서울 신촌 봉원사,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전북 김제 청운사 등 연꽃축제가 시민들의 발길을 재촉한다.

**전북 김제 청운사**에서 열리는 '제 11회 하소백련축제'는 순백의 연꽃과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 7월 22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만남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초중고 백일장, 오케스트라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먹거리 맛자랑,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063)543-1248

**2012 무안연꽃축제**는 7월 26~29일 무안군 회산백련지에서 열린다. 개막행사, 야간특별공연행사를 비롯해 품바페스티벌 분청문화제 연요리경연대회 등의 부대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품바 페스티벌'은 품바 경연대회, 품바왕 초청공연 등의 공연과 무형문화재 줄타기 시범, 품바난타 체험장 등이 진행된다. '분청 문화제'에서는 장작 가마 페스티벌과 분청 빚기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제공된다. 또

**하소백련축제 오케스트라 공연**

**서동축제 사랑과 낭만 주제**

**봉원사 연꽃축제 영산재 시연**

한 백련지의 물길을 헤치며 하얀 연꽃을 감상하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등도 마련된다. (061)450-5473

**서동공원 궁남지**는 백제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7월 26~29일까지 제10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열린다. 홍련, 백련, 황금련, 어리연 등 20여종 30만여촉과 황수련, 백수련, 홍수련, 가시연, 열대 수련 등 50여종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041)830-2921

**태안연꽃축제**는 8월27일까지 태안군 남면 청산수목원에서 열린다. 백련 홍련 노랑어리연 가시연 등 모두 200여종의 수련이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내며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특히, 고흐 브릿지의 '만(卍)'자 모양 꽃길은 주변의 갖가지 연꽃들과 조화를 이룬다. (041)675-0656

**신촌 봉원사**는 '제10회 서울연꽃문화축제'를 8월 4~11일 경내 특설도량에서 실시한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봉원사 연꽃축제는 산사음악회, 등불점화, 사진전, 차 시음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8월 4일 입재식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을 시작으로 제4회 연꽃가요제, BBS-FM 특집공개방송 등이 전개된다. (02)392-3007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는 7월 28일부터 봉선사 연못 특설무대에서 연꽃축제를 펼친다. 부대행사로는 ▷무료 연잎차 시음회 ▷페이스페인팅 및 만다라그리기 ▷ 불화 및 소품 전시 ▷대만 불교팀 홍보 및 찬불가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031)527-19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아미타불로 사후 세계를 보다

### 경주박물관 7월 22일까지 전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후세계는 지옥과 극락이다. 현생에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고통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극락에 태어난다. 아미타부처가 주재하는 극락세계는 공덕을 쌓아 극락왕생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아미타오존도'를 미술관 2층 금석문실 앞에서 7월 22일까지 특별공개한다. 아미타부처를 중심으로 석가의 제자인 아난과 가섭 존자, 그리고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함께 묘사되어 있는 예배용 작품이다. 구도는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군집형 구도가 아닌 등장인물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 일자형의 독특한 구도다. 바탕은 삼베나 비단이 아닌 검은색 종이에 금선으로 대상물들을 묘사하여 마치 사경화를 감상하는 듯하다. 화면 전체에 사용된 유려한 금선묘(金線描)는 이 작품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극락세계와 대비되는 지옥세계를 보조자료로 비교 전시해 불교의 사후세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7월 22일까지 아미타오존도를 전시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 전시를 계기로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이해하고, 서방극락세계의 주인인 아미타부처를 만나 선업을 쌓는 기회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 전국 불교합창단 연수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서

'2012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가 7월 10일에서 11일까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진명)가 주최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206개 합창단 단장 및 임원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와 음악 강의 및 지역별 합창단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국불교합창단은 "불교합창단의 전국적인 연대와 교류, 불교음악의 소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다. 이를 통해 정보교류는 물론 합창단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연향이 머무는 곳(大/6절) 1,1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300원
• 규격 : 30.5㎝×31㎝



반야심경(小/12절) 800원
3,000부 이상 @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26.5㎝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예수재함B (50개 1박스)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 남자/여자/위패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여름 산사 추억'

# 그리움을 가르쳐준 산사



윤 후 명
작가, 국민대문창대학원 겸임교수

명사들은 여름 산사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었을까? 본지가 여름 특집으로 마련한 '여름 산사 추억'은 명사들의 추억어린 산사의 에피소드들을 담는 코너다. 그분들의 추억담을 통해 여름 산사의 정취 속으로 들어가보자.

**그 암자가 내게 던진 화두는 그리움이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가파른 비탈길 위의 한 암자를 생각한다.**

그 여름 암자에 피어 있던 상사화를 기억한다. 상사화는 봄에 잎과 먼저 나서 시들면 여름에 꽃이 피어난다. 피어나는 시기가 달라 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리워한다고 하여 이름 붙은 상사화. 처음 그 꽃이 맨땅에 솟아올라 피어난 것을 본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떠나올 때 공양주께 간곡히 부탁하여 뿌리를 캐오기에 이르렀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어 그리워한다는 것의 가혹함을 마음 속에 간직하려 했음인가. 그리움이야말로 인간의 속성임을 경계하려 했음인가.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나는 시에 병들어 있었다. 나는 시 아니면 아무 것도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없다는 청맹과니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그 시절을 잘못되었다고 뉘우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시절의 병이야말로 내 삶을 늘 아프게 하여 눈뜨고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아픔은 존재를 인식케 하는 힘이었다.

그 여름, 나는 몇 권의 시집들을 싸들고 산사로 향했다. 마곡사에 딸린 그 암자를 알려준 것은 그 무렵 편지를 나누던 여고생 K였다. 충남 공주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더 가야 하는 시골길.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차편은 도중에서 끊겨 있었다. 하는 수 없었다. 포기한다면 일생일대의 실패로 기록될 것만 같았다. 나는 먼 길을 걸어서 겨우 절에 도착했고, 암자까지의 가파른 산길을 기신기신 올라갔다. 그곳에 숨겨진 시를 얻으러 가는 심정이기도 했지만, K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러나 그곳에 시가 숨겨져 있을 리는 없었다. 시란 내 마음에 있는 것, 몇 날이 지나도록 나는 시를 꺼낼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엎치락뒤치락하고 난 다음날이면 나는 허공에 떠 있는 듯이 산길 이리저리 쏘다니거나 개울물 가에 앉아 있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다.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심오한 화두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책 한 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산란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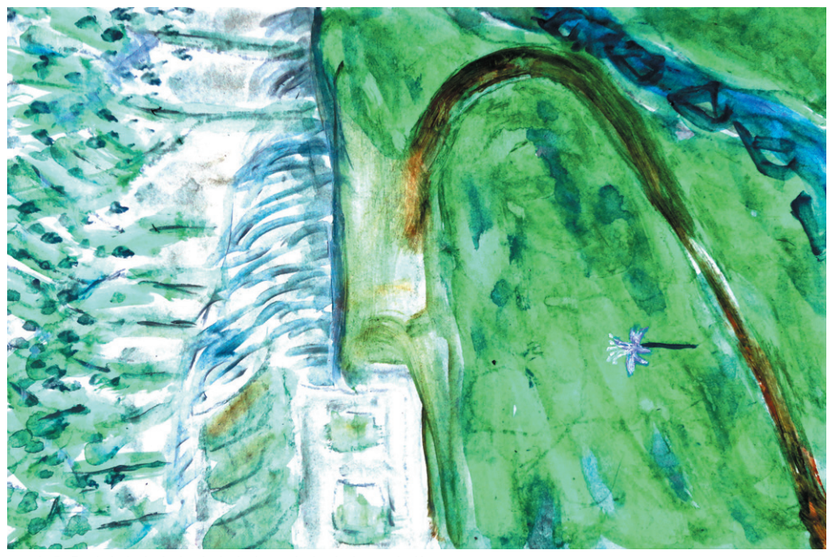


그림 윤후명 '상사화가 피어있던 오십년 전의 그 암자'

"학생, 무슨 공부를 하려나?"

누군가 물었다. "아, 예, 문학을…"

어렵사리 대답은 했으나 그것도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꼴이었다. 아, 나는 문학을 할 수 있을까….일찍이 이 절에 묻혀 김구선생은 큰 뜻을 가다듬었다는데….

왜 그렇게 모든 게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때쯤, K가 친구와 함께 와서 아래채에서 자고 간 다음날, 나는 암자를 떠났다. 그때 뜰에 피어 있는 꽃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이름도 사연도 모르던 그 꽃에 대해 내가 가져갈 뜻을 비추자 공양주는 아무 말 없이 선뜻 캐주었다. 마치 내가 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거리낌없는 몸짓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래서 그 몸짓이 내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나는 암자의 그 날들을 잊지 않는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옆에 남몰래 피어나던 한 송이 꽃이 있었다. 결코 서로 마주보지 못하더라도 잎이 피고 꽃이 핀다. 그 암자가 내게 던진 화두는 그리움이었다. 삶이란 그리움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나타내보인다. 그리하여 그리움이 내 문학의 힘이라고 가르쳐주었던 것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가파른 비탈길 위의 한 암자를 생각한다. 인생의 마무리길에서 마지막 그리움의 꽃을 피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단 한 줄이라도 간절한 그리움의 삶을 기록해야 한다. 이 여름, 나는 산사의 꽃이 내게 준 그리움의 의미를 되새긴다.

# 시간의 그림자를 뚫고 '참나'를 찾다

## 가오싱젠의 '생사계' 무대에 올라
## 7월 18~29일 대학로 선돌극장서

우리네 삶이 괴로운 이유는 오롯이 현실을 현실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만 지나간 기억이 내 의식을 지배하고 다가올 미래의 불안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으로 점철된 인간은 나약할 뿐이고 그 삶은 안쓰러울 뿐이다.

어두운 시간의 그림자가 고통의 기억을 만들고 그로 인해 괴로운 한 여성이 있다. 꿈과 환상 그리고 기억으로 점철된 현실로 생과 사의 경계에 부딪힌 그녀는 허상을 깨고 '참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에 오른다.

〈영혼의 산〉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작가 가오싱젠의 작품 '생사계-삶과 죽음 사이(극단 竹竹, 연출 김낙형)'가 무대에 오른다. 7월 18~29일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공연하는 이 작품은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안목과 통찰을 담았다.

연극은 한 여자의 독백에서부터 시작한다. 무대 위에 선 여자는 자신을 저버린 남성에 대한 분노 실망 미련을 남김없이 토해 내면서 내면의 통찰을 시작한다. 자신의 육체가 더 이상 매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소도구로 사용된 팔다리가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무대에는 어두운 벽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벽을 통해 여인은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여인은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았던 어머니, 자신의 육체를 깨달았던 기억, 자신을 노리개로만 취급했던 다른 여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해왔음을 깨닫는다.

타인과의 관계계가 단절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하는 순간 무대에는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 여인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쟁반에 올려놓는다.

스님이 내장을 씻어내자 여인은 자신을 저버린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음을 자각한다. 그리고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듯한 환상을 맛본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한다.

여성화자는 시종일관 자신을 '그녀'로 지칭한다. 이 대명사의 활용을 통해 자아로부터의 분리와 객관화가 이루어지고 자아는 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감각되는 객체로서 현존한다.

인간의 기억은 힘이 세다. 행복했던 기억은 행복했던 대로 아팠던 기억은 아팠던 대로 우리의 현실을 파고든다. 하지만 기억과 환상에 함몰된 삶은 자칫 불행한 현실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롯이 나를 객관화 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찾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가오싱젠의 작품 '생사계-삶과 죽음 사이'가 7월 18~29일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인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주인공의 내면탐구 과정을 담았다.

# 화선지 위 '佛心' 담아내

## 오경호 작가 전시…20일까지

오경호의 '아발로키테슈아라(관세음보살)' 전이 7월 20일까지 광주역 2층 코레일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4년간 혼신을 다해 작가가 작업한 수묵담채화 45점 서예작품 25점 등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이후 그는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약초 수집을 위해 강원도 양구지역을 돌다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바로 한국화단의 거목 운보 김기창 화백을 만나 5년 동안 한국화를 배우게 된다.

이후 그는 강렬하면서도 간결한 색채로 연꽃과 동백을 비롯 부처님과 가섭, 사리불 등 불교적 색채가 담긴 그림을 담아내기 시작한다.



오경호 작가의 서예작품

늘 지역 사찰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그는 이번 작품 판매수익금 역시 전액을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보시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 천태종 불교사진공모전…작품 마감 10월 5일

상월원각대종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고 한국 대표 우수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천태종 제 2회 불교사진공모전이 열린다.

불교관련 소재의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규격은 ▷슬라이드 필름 컬러 및 흑백사진 11"×14" ▷디지털카메라 촬영시 최소 3024×2016 픽셀이다. 1인당 3점 이내까지 출품 가능하며 작품 뒷면 또는 이메일에 화제 성명 우편주소 전화번호를 기입 출품표를 부착해야 한다.

작품은 (110-776)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SK허브 오피스텔 102동 307호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10월 5일까지다. 수상작은 10월 24일에서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열린다.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헤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고품격 상품*
일 정 : 양곤 바간 헤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7일 210만원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뜨레져, 후핀)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 국 성지순례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7일 129만원 / 6월~7월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저자 성범 스님

살아 있기 때문에 아프다

도심포교당의 수행일선에서
들려주는 평범한 삶의 지혜!

죽었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픔을 느끼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껴안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 아닌 것을 고통으로,
불행 아닌 것을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꾸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범스님은
1988년 통도사로 출가, 1989년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활산 성수선사에게 선을 배우고 문경 봉암사, 묘관음사, 복천암, 개심사, 정혜사 등 제방선원과 사량도 지리산 등지의 토굴에서 정진하였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지도법사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현재 대전 구봉선원 주지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에는 금강경해설서 '꽃을 시샘하지 않는다'가 있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 ‘윤회’는 증명되고 있다



**윤회**
지나 서미나라 지음
강태현 옮김
파피에 펴냄
1만8천원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 천불천탑이 되고 다시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운주사의 석불들

‘윤회’의 비밀을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룬 책으로, 1950년 발행돼 100만부 이상 판매된 지나 서미나리 박사의 〈윤회 · Many Mansion〉다. 인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생과 내생에 대한 의문을 자주 품곤 한다. 곧 ‘윤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믿음의 영역인 명제를 증명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저자 지나 서미나리는 위스콘신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 박사로, 인간의 삶과 윤회를 주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강연을 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영능력자이면서 최면요법을 통해 윤회의 추론적 근거를 제시한 에드가 케이시와 함께 그의 임상실험(리딩)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실험대상의 사람들과의 풍부한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사례를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란 태어나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는 책은 부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붓다는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또한 답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붓다처럼 삶의 불가사의를 풀기 위해 애정, 권력. 부, 쾌락, 가족의 따뜻한 유대를 끊어버리지는 못한다. 그러나 누구나가 이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답은 간결하다. “영혼은 영원하고, 윤회와 카르마는 현실이며, 인생은 학교다.”라는 것이다. 즉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되며, 현생의 업이 내생을 규정하며,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운명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자연계의 생명체가 그렇듯이, 영혼도 연속적인 환생과 카르마의 법칙을 거쳐 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회를 이해하고 그 순환 고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면 생(生)과 사(死)의 문제에서 성격과 가족관계, 결혼과 이혼, 불륜, 직업선택의 문제 등 인생사의 수많은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책은 현생에서 얼마나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내생의 자신이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말하며 현생에 대한 성실과 충실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다.

“어떤 부인은 어릴 때부터 밀폐된 장소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극장 같은 데를 가도 그녀는 언제나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를 잡는다. 버스를 탔다가도 승객이 밀려들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혼잡하지 않은 버스를 기다린다. 산이나 들로 소풍을 가도 동굴 같은 밀폐된 곳은 무서워했다. 케이시가 그의 최면요법으로 그녀의 무의식을 읽어낸 결과 그녀가 전생에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질식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때의 무서운 기억의 흔적이 그녀의 무의식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 이래 무의식 연구에 활용되어 온 최면요법은 윤회론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 ‘윤회’는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한다. 세월이 흘러도 주제의 가치가 퇴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학의 발달로 책의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없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의 발달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정신과학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영혼의 존재, 윤회와 인과율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적 기초가 아무리 건전하고 과학적이라 해도 단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윤회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이 이것은 틀림없다고 단정할 때까지는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심리학과 자연과학, 두 영역의 과학자들이 케이시의 최면요법 실험에 의한 결과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맺음말에서 밝히고 있다. 결국 책은 ‘믿음’의 영역인 명제를 증명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철학’이란 부제가 붙은 책이 독자들의 심리학적, 철학적 식견을 새롭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생명, 의식 및 인간의 운명에 관한 모든 중요한 면들을 드높이는 데 작은 자극제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지은이의 바람대로 책은 많은 이들의 영혼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

### 더 나은 죽음

**댄 모하임 지음 | 노혜숙 옮김 | 이일화 감수**
**아니마 펴냄 | 1만2천원**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와 개인들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관심을 옮겨야 할 때다.”

책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존엄사와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보다 어떻게 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의학적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는 동시에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좀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의사이자 의회의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피해갈수 없는 필연적 시간이다.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발전시킨 수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책은 죽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거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죽음에 무관심하게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뜻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정리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부질없는 싸움으로 허비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임종 과정을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떤 의학적 조치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되었다면 생명 연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당하는 죽음’보다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고 맞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욕구와 그 수단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특히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자는 운동은 이러한 의학의 독재로부터 인간적 품위를 지키려는 욕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안락사 논쟁’, ‘뇌사와 식물인간’, ‘연명시술의 경제학’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아쉬운 ‘사례’들, 법적인 문제들 등을 다루고 있다. 책은 마지막에서 “나라면 어떡할 것인가?”고 묻는다.

저자 댄 모하임은 응급의학과와 내과학 전문의로 30년 넘게 임상의로 일했으며,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의 겸임교수다. 1994년 이래 메릴랜드 주 하원 다수당의 원내 부대표이며 보건정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4~7/10

| 순위 | 도서명 | 저 자 | 출판사 |
|---|---|---|---|
| 1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2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혜민 | 쌤앤파커스 |
| 3 | 깨달음 | 법륜 | 정토출판 |
| 4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 만덕, 만현 | 현지궁현지사 |
| 5 |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 정목 | 공감 |
| 6 | 사찰의 상징세계 | 자현 | 불광출판사 |
| 7 | 시간의 선물 | 성원 | 담앤북스 |
| 8 | 성난 물소 놓아주기 | 아잔 브라흐마 | 공감의기쁨 |
| 9 | 해탈장엄론 | 감뽀빠 | 운주사 |
| 10 | 받아들임 | 타라 브랙 | 불광출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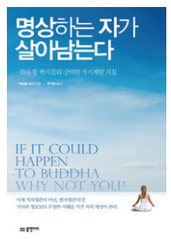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명상은 오염된 마음 회복하는 길

###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바산트 조시 지음 | 우자경 옮김 | 물병자리 펴냄 | 1만2천원**



‘명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다. 붓다에서 오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들의 자기 변화에 관한 노하우와 마인드가 담겨 있다. 우선 명상을 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짚어준다.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 그 참담한 결과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각종 회의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지구는 상처받고 있으며, 천국을 약속했던 종교지도자들까지 지구가 끔찍한 지옥이 되어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 결론 끝에서 저자는 말한다. “오염된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킨 오염된 마음 또한 인류가 직면한 문제다. 따라서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환경, 인간 존엄성, 국제적 연대 등을 회복하는 전제 조건이다.”고.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명상’이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혁명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저자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개념과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산트 조시 박사는 디팩 초프라 박사의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유엔과 세계은행, 펜타곤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전인적이고 탁월한 비전을 강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책은 붓다, 예수, 크리슈나무르티, 카르비, 루미, 오쇼, 마하라시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현자들이 경험한 자기변화의 길이 담겨 있어, 명상에 관한 핵심을 그 어느 책보다도 이해하기 쉽다.

“명상은 나를 변화시키는 전략이고 체계적인 적용방식이다. 고대의 현자와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과 ‘내면세계’를 열정적으로 탐구해 왔다. 이들은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외부세계를 보듯 내면세계를 들여다보았다. 각종 실험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주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했다. 그들은 깨달음의 과학, 의식의 테크놀로지를 발견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과 에너지는 부활했다. 이것이 그들이 인류와 인간의 의식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공헌이다. 깨달은 이들의 비전과 지혜는 특별하다. 수평적 시간관념으로 보면 이들의 지혜가 2500년 이상 된 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언제나 새롭고 합리적이다.”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신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했을 때 자기변화와 자기계발이 가능하다. 내면의 기분과 건강, 마음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패러다임을 면밀히 살피려는 의지가 있으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명상으로 집약된다. 명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한다. 하나는 무엇인지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자유다. 마음이 기계적인 과정에 빠진 사람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를 놓친다. 명상을 통해 돌고 도는 생각의 움직임을 멈추면,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가 적자생존의 시대가 아닌 현자생존의 시대라고 말하는 저자는 책을 통해 현재의 인류에게 현자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대성 교수
저승에 가 있는 독일의 자연과학자 ‘뒤 부아레몽’(1818~1896)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 불가지론자인 프로타고라스, 인간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칸트(1724~1804)도 데이비드 흄(1711~1776)도 모두 저승에서 곧 달려올 것이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영체론과 붓다의 삼신론, 붓다의 구원론, 천도재의 필요성 등등, 인간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세기의 명저인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

# ‘인간 불교 실천’ 대만불교 성공 비결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출판사 펴냄**
**불광연구원 편찬**
**2만3천원**

7년 전 대만 카오슝에 있는 포광산사를 방문했었다. 경내 곳곳을 둘러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 사찰 규모가 커서가 아니었다. 내 눈을 고정시킨 것은 사찰 내부에 들어선 시설의 컨텐츠들이었다. 1천여 명 이상 회의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부처님 일대기 테마파크, 4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등. 또 놀란 것이 있다. 아침 예불 뒤 스님과 신도들이 같은 법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미소를 잃지 않는 스님들의 따듯한 모습 등이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대만 포광산사 한국지원 주지 의은 스님의 설명이었다. “대만 불자들은 어느 곳에 큰 재난이 일어나면 국가와 종교를 초월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 가 봉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포광산사건 츠지공덕회건 사찰이나 종파를 가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만서 몇 개의 대형 사찰을 둘러보고 그 설명에 대한 이해가 갔다. 사찰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고, 신도들로 이뤄진 다양한 자원봉사 모임이 꽤 활성화 돼 있었다.

사실 대만불교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지식계층은 주로 개신교를 믿었고 불교계는 기복 신앙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만은 인구의 80%가 불자이며, 전 세계 200여 곳에 분원을 둔 사찰이 있을 정도로 급성장 했다. 그 배경에는 포광산사(佛光山寺), 츠지공덕회(慈濟功德會), 파구산사(法鼓山寺), 중타이선사(中臺禪寺)라는 신흥 4대 종문이 자리 잡고 있다.

신도 100만 명, 전 세계 33개 국가 200여 분원을 운영하며, 〈불광대장경〉 〈불광대사전〉을 편찬한, 싱윈(星雲) 스님의 포광산사(佛光山寺). 전 세계 400만 회원을 자랑하

**대만의 인구 80%가 불교신자**
**佛光山寺 등 신흥 4대 종문 성장**
**투명한 사찰 운영 불교 발전 큰 몫**
**대만 사찰들 공익 법인으로 운영 돼**

는 국제적인 구호 단체인, 정옌(證嚴) 스님의 츠지공덕회(慈濟功德會). 중화불학연구소, 파구산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을 통해서 한전불교(漢傳佛教) 연구를 촉진시키고, 수준 높은 불교교육과 전법 인재를 양성하는 성옌(聖嚴) 스님의 파고산사(法鼓山寺). 1천여 출가자와 수십만 재가자가 중국 선종의 중흥을 꾀하며, 세계 최대의 선종 도량을 건립한 웨이줘(惟覺) 스님의 중타이찬사(中臺禪寺)가 바로 그 신흥 4대 종문이다.



佛光山寺의 아침 기공 모습



慈濟功德會의 음식봉사 회원들

4대 종문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유한 사찰을 벗어나 도심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키워나갔다. 그렇다면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불광연구원 지홍 스님은 중생 속으로 들어가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간불교를 실천이념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 코드〉는 바로 그 이유를 알려 주는 책이다. 불광연구원 주도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와 동국대 김호성 교수, 같은 대학 박인석 HK연구교수, 충북대 서대원 교수 등 전문 학자들이 현지 조사와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의 세미나와 함께 1년여 동안 대만불교를 분석했다.

저자들은 급성장한 신흥 4대 종문을 중심으로 대만불교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5가지 중요 코드로 구분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간불교’의 실천이념 △투명한 사찰 운영 방식과 체계적인 신도 조직 △현대적인 교육체계와 적극적인 인재육성 △활발한 전법과 도심포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나눠 총 15편 글을 통해 대만불교 발전 요인을 상세히 기술했다.

박인석 동국대 HK연구교수는 이 책에서 대만불교의 성공 사찰 중 포광산사와 츠지공덕회를 분석했다. 박 교수는 “포광산사서 국제포광회를 창립해 재가신도조직을 만들어 그들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츠지공덕회도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전 세계로 여성성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응철 교수는 한국불교의 성찰에 대해 시사하는 바도 책 말미에 덧붙였다. 첫째, 대만 사찰의 지도력은 사찰이나 종단적 결속력에서 나오지만, 한국 사찰 스님들은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의존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대만불교는 계행 실천을 통해 승가의 자체 정화 기능이 잘 작동하지만, 한국불교는 이 종단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저 종단으로 옮겨가는 사례들이 있다. 셋째는 사찰 운영방식에서 대만은 공익법인 수준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은 주지 스님 1인의 의사결정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주일 기자

# 모든 중생에겐 제 몫의 고통 있어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지음**
**이현 옮김**
**문학의 숲 펴냄**
**1만3500원**

저자는 이 책을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필했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배위에 올려놓고 자료들을 이불 위에 펼쳐놓은 채 팔이 닿는 위치에 프린터를 두고 책을 썼다. 어떤 날에는 한 주제에 너무 몰두해서 오랫동안 작업한 결과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몇 주 동안 전혀 글을 쓸 수 없기도 했다. 저자가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글을 쓴 이유는 만성적으로 아픈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 책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 보다 큰 위로와 따뜻한 통찰을 전해 주는 역작이 되었다.

저자가 일차적으로 주목한 것은 몸의 병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거기 머물지 않고 고통이 유발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아프지만 나을 수 없는 사람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또한 언제든지 일순간에 삶이 온통 달라져 버릴 수 있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모두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우리가 저마다 제 몫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아픔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조언한다.

저자는 병에 걸리기 전 1992년부터 불교 공부와 수행을 병행해 왔고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집 바깥은 물론 침대 바깥으로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되면서 그동안 해 오던 형태의 수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마음속에서 희망과 실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자, ‘아픈 상태’를 자신의 영적 수행의 중심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분노나 좌절감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바꾸는 방법,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야.’ 혹은 ‘아무도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처럼 수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방법, 힘들게 애쓰고 있는 육체를 다정하고 자비롭게 대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에 자주 수반되는, 스스로를 탓하는 생각을 그만둘 수 있게 하는 방법, 목표했던 것들·직업·활발했던 사회생활을 잃게 된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증상들의 기복에 낙담하지 않고 견디는 방법, 생각과 감정을 현재 순간에 둠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이겨 내는 방법,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진 제약들을 비통함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 좌절감과 조급함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면서 의료보험 제도를 알아보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 ‘아픈 사람’이라는 견고하고 고정된 정체성을 벗어 던지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제 몫의 고통이 있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고통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는다. 아프지 않은 사람조차 외로움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설령 우리에게 끔찍한 문제가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법 소개**
**불교적 통찰과 명상수행에 근거**
**삶의 고통은 오히려 신선한 자극제**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에 담기는 것을 갖는다. 내 삶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 책에서 마음을 다루는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통찰과 명상 수행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런 수단들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하기 위해 불교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토니 버나드는 깨진 계란 속에서 오믈렛을 발견했다. 그리고 깨진 계란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그녀의 오믈렛 요리법은 하나의 선물이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아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아름답게 지적하듯이 삶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든 데려갈 수 있다. 그 바람이 모두에게 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역시 삶의 여행을 이루는 일부이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외로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저자는 아픔과 고통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며, 보다 큰 우정과 사랑에 기여하게 하는 삶의 유익한 지렛대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감동적으로 전한다.

김주일 기자

# 번뇌서 벗어나는 방법 서술

##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지음 | 김훈 옮김**
**공간의 기쁨 펴냄 | 1만5천원**



한 사내가 한 손가락을 잃은 상태로 수도원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사연인즉슨 사내가 자기 집 물소를 끌고 풀을 먹이러 가는데 물소가 갑자기 겁을 먹고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물소를 묶고 있는 밧줄이 사내의 손가락을 휘감고 있어 물소를 당기는 순간 밧줄이 그만 손가락을 반 토막 내버렸다. 그 사건은 사내가 흥분해 들뛰는 물소를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는 물소를 놓아버렸어야 했다.

‘마음의 물소’가 내달려가게 가만 내버려두라.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않아 진정하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마구 들뛸 때, 그것이 꼭지가 확 돌아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싶어 할 때면 따듯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내면서 놓아버려라. 세계를 감동시킨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의 아잔 브라흐마가 ‘성난 물소를 놓아주는 지혜’로 돌아왔다.

이 책은 사라짐이 일어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은 외면만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주 즐겁기 때문에 대단한 열락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언젠간 모두 사라진다. 그것들은 ‘거짓 행복’이다. 그것들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된다.

김주일 기자

# 참나 찾는 마음공부 에세이

## 그대와 나에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학현 지음 | 고려원북스 펴냄 | 1만3천원**



젊은 시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던 남자는 평생을 명상과 수련에 몰두했다. 직장에서도, 미국서 MBA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도, 협상학 강의를 나가면서도 놓지 않은 것이 마음공부였다. 일주일씩 집을 비우면서까지, 그렇게 수십 년간 해왔던 그 좋았던 공부를 정작 아내에겐 시켜주지 못한 것이다. 이제 제법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만한 갓 쉰을 넘긴 나이, 느닷없이 쓰러진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다. 남자는 절규했다. 먼 길을 홀로 떠나야 하는 아내에게 아직 못해준 말이 남아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그녀의 영혼이라도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싶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공부를 하고 먼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싶어한 그 기록이 이 책의 1부다.

수십 년간 공부해 깨달았던 진리를 바탕으로, 과학과 논리를 도구로, ‘참나를 찾아가는 마음공부’ 에세이를 완성한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2부다. 이 책은 남자가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이다. 못 다한 이야기 때문에 가슴 아픈 스스로에 대한 치유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픈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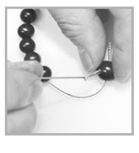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문아 원측이 일체개성설을 주장한 까닭은 ?

# 원측, 부처와 중생을 동일한 범주서 이해

### 1. 삼성론 중심의 이해

『삼국유사』「기이」편의 '효소왕 죽지랑' 조에 실려있는 문아 원측(文雅圓測, 613~696)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에서 독자적 위상을 차지한 사상가이다. 그는 구역(舊譯) 유식이 강조하는 사물이 지닌 세 가지 속성인 삼성론(三性論)에 입각하여 불교 유식을 바라본다. 하지만 문아가 삼성론으로 존재를 이해한다고 해서 구역 유식의 대표자인 진제(眞諦)설을 지지하지만은 않는다. 그는 구역 유식의 삼성론을 긍정하면서도 의타기성(依他起性)까지 부정하는 진제설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玄奘, 602~664)설을 지지하고 있다. 문아는 식론이라는 이론적 유식에 치중한 자은 규기(慈恩窺基, 632~682)와 달리 실천적 유식인 유가행(瑜伽行)과 식론을 아우르는 삼성론에 입각하여 유식을 이해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아와 규기는 크게 변별된다.

불교는 성불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일체의 경계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며 둥근 삶을 사는 존재이다. 부처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존재이기에 삶과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완성을 한 존재이므로 미완성인 중생의 세계로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다. 반면 보살은 아직 부처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지위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며, 이미 부처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중생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부처의 자리에서 내려온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번뇌가 있는

### 번뇌없는 지혜만이 법공을 체득 주장
### 성불가능성에서 원측 · 규기 차이 보여

의식을 전환시켜[轉識] 번뇌가 없는 지혜를 얻어야만[得智] 한다. 불교 유식은 우리 눈 앞의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하는 철학이다. 유식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 눈앞에 던져진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들 존재들에 대해 각기 의타기성(依他起性)과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과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세 가지 속성(상태)으로 구분하여 해명하고 있다.

의타기성은 연(緣)이라는 타자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성질이다. 즉 여러 인연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여러 현상은 타자에 의거해서 생겨나는 모든 존재의 특성을 가리킨다. 때문에 이 의타기성은 모든 존재의 기반 자체이므로 이것을 부정하고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변계소집성은 실재하지 않는 존재의 성질을 가리킨다. 즉 존재하는 것은 모두 명칭에 의해 세워진 것이자 분별에 의해 생겨나는 성질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변계소집성은 거북이의 털이나 토끼의 뿔 및 허공의 꽃과 석녀의 아이처럼 실재하지 않는 비존재를 존재하는 것으로 계탁하는 것이다. 원성실성은 본래부터 원만히 성취되어 있는 진실한 자성인 있는 그대로의 진여이자 현상의 본체를 가리킨다.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진여는 인연으로 성립된 허망한 존재가 아니고, 있지 아니한 데가 없으며, 생하고 멸하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삼성설은 우리의 사유 대상인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인식방법이자 인식 주체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세 가지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아는 번뇌가 없는 지혜만이 아공(我空)과 법공(法空)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치에 의하여 진정한 공성을 증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미혹의 세계로부터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실천적 관점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해서 문아는 구역 유식의 삼성론에 입각하여 자신의 유식사상을 취입(趣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 식론과 요가 수행을 통해 체험한 내용을 이론화한 유가행(瑜伽行)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문아는 깨달음으로의 실천적 전환에 집중하는 유가행과 미혹한 현상세계의 모습에 대한 이론적 해명에 집중하는 식론을 통섭한 삼성론에 의거하여 미혹의 세계로부터 깨침의 세계로 나아가는 실천적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삼성론 위에서 유식관을 입론하고 있는 문아는 『성유식론소』(집일본)에서 현장 삼장의 풀이를 인용하면서 청변과 호법의 공유(空有) 논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 2. 일천제의 성불 여부

불교사상사에서 여래장론 즉 불성론(佛性論)은 중생의 성불가능성을 다루는 담론이다. 붓다는 『아함경』에서 "인연이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경교는 위의 구절에 대해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은 중생은 구제할 수 없지만, 언젠가 시절 인연이 도래하게 되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지혜의 활로를 열어 상호 충돌을 피해갈 수 있게 했다. 『열반경』 이래 대승경전에서는 일체 중생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여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한다. 붓다는 999명의 생명을 끊은 앙굴리 말라조차도 제도하여 출가시킨 뒤 아라한으로 거듭 나게 하였다. 또 『열반경』은 무수한 생명을 끊은 일천제(一闡提)조차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자은(법상)학통에서는 『해심밀경』에서 방편으로 설한 경설을 자종의 주요 담론으로 채용하여 유정의 성불을 제한하는 오성각별(五性各別)설을 주장하였다.

오성각별설이란 모든 유정은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해서[法爾自然] 다섯 가지 종성(種性)을 타고 난다는 것이다. 즉 첫째는 본래부터 부처가 될 무루(無漏) 종자를 갖춘 이(보살정성), 둘째는 벽지불이 될 무루 종자를 갖춘 이(연각정성), 셋째는 아라한이 될 무루 종자를 갖춘 이(성문정성), 넷째는 두 가지 종자나 세 가지 종자를 갖춘 이(삼승부정성), 다섯째는 성문 연각 보살의 무루 종자는 없고 다만 인승(人乘)이나 천승(天乘)이 될 유루(有漏) 종자만 갖춘 이(무성유정)이다. 여기서 위의 넷째의 성품은 다시 첫째의 부처가 될 종자와 아라한이 될 종자(보살 · 성문 부정성), 둘째의 부처가 될 종자와 벽지불이 될 종자를 갖춘 이(보살 · 연각 부정성), 셋째의 아라한이 될 종자와 벽지불이 될 종자를 갖춘 이(성문 · 연각 부정성). 넷째의 아라한이 될 종자와 벽지불이 될 종자와 부처가 될 종자를 갖춘 이(성문 · 연각 보살 부정성)처럼 인간의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따로따로 결정되어 있다고 했다.

법상학통은 이것을 영구히 성불할 수 없는 무상유정과 성문과 연각의 과증(果證)만 얻을 결정 성문과 결정 연각의 종성을 세우고, 부정종성과 보살종성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규기는 자신의 논지를 세우기 위해 『해심밀경』에서 단지 경계해서 교화하는 방편으로 설한 '무성천제(無性闡提)의 존재를 언급하여 다시 생사를 즐기는 단선근(斷善根)천제, 열반을 즐기지 않는 대비(大悲)천제, 영원한 열반의 성품이 없는 무성(無性)천제로 나누어 일분무성론(一分無性論), 즉 일천제불성불론(一闡提不成佛論)을 입론한다. 이것은 결정코 성불할 수 없는 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아는 "보살종성과 부정종성만이 성불할 수 있고 무성종성인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은 삼승가의 방편적 담론이고, "모든 존재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불설의 핵심인 중도설에 입각한 진실한 담론이다. 해서 일승가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의 성불을 논변하였기 때문에 '일성개성설'(一性皆成說) 혹은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이라고 한다. 유식의 소의경전인 『해심밀경』에서 방편설로 제기된 오성각별설과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여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대승경설은 서로 위배된다. 문아 원측과 자은 규기는 인간의 성불 가능성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두드러지게 대비된다.

### 3. 중생에 대한 평등적 이해

대승 경론에서는 인간을 '상중하' 3품과 다시 각기 그 아래에 3품의 차등을 두어 차별의 '근기론'을 시설하고 있다. 또 다른 대승경론에서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實有佛性)'의 맥락에서 '근기는 끈기다'라는 평등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는 이들 두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 종래 신라 유식가들은 일승(一乘)의 입장에서 소승과 대승을 아우르는 반면 당대 법상 유식가들은 소승과 차별된 삼승(三乘) 우위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해 왔다. 특히 문아는 범부로 하여금 발심(發心)을 통해 불교에 귀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승 등의 수행자로 하여금 보리(菩提)를 얻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중생의 성불가능성과 보살의 선교방편행을 인정하는 일승(一乘) 유식가인 문아와 달리 삼승(三乘) 유식가인 규기는 성불의 제한과 방편의 부정을 통해 평등의 인간상이 아니라 차별의 인간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삼승 유식을 일승 유식보다 우위에 두어 자종 중심의 배타적 유식관을 견지하였다.

문아는 어떠한 중생이라도 언젠가는 성불한다며 중생에 대한 희망과 긍정의 시선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인왕경소』에서 "중생

### 원측, 모든 중생 성불 가능 하다는데 기반둬
### 규기 학통의 배타적 인간관과 세계관 대조

의 성품은 여의주와 같아서 반드시 모두 다 성취할 수 있고, 중생의 근기는 청정한 물과 같아서 자비심과 같이 그림자와 조화하여 더욱더 푸르게 하며, 중생의 지혜는 허공과 같아서 여여하여 바뀌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니 그 성품은 고칠 수 없는 뜻이다"며 기리고 있다. 문아는 비록 현재는 모가 나고 이해가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둥글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다. 그리하여 그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선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이처럼 문아는 불교의 종교적 기능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반면 규기를 비롯하여 혜소-지주로 이어지는 자은학통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다.

자은학통의 관점은 여타의 유식가들처럼 수행위에서 범부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막아 놓은 것이며, 이미 십신위를 거쳐 상당한 수행에 이른 십주위의 보살을 첫 출발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경설을 수용한다면 대승의 화엄과 유식에서처럼 10신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삼승유식을 주장하는 규기의 입장이라면 마땅히 삼승에 포함된 성문, 연각, 보살승뿐만 아니라 범부조차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규기는 범부들이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반면 문아는 여타의 유식가들과 달리 범부들도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규기 이래 당대 유식이 취한 것처럼 보살의 52계위에서 십신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41위를 세우지 않는다.

문아는 『성유식론』제9권설에서 "어떻게 유식 오위로 깨달음에 들어간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수행의 시작인 자량위를 경론에서처럼 '대승을 수행하여 해탈분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해석을 덧붙여 수행의 첫 단계인 십신을 발심위(發心位)라



중국 흥교사에 자리한 원측 스님의 사리탑. 서쪽 규기탑과 중앙 현장탑을 향해 서있다.

명명하고 발심보리(發心菩提)를 강조한다. 즉 그는 유식 오위의 첫 단계인 자량위를 '십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십회향에 이르는 단계'로 해명한다. 이것은 부처와 범부를 동일한 범주 속에서 이해하려는 문아의 불교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붓다가 될 수 있다면 발심과 보리는 분리할 수 없다. 불교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범부가 '발심'의 주체라면, 깨침을 얻은 붓다는 '보리'의 증득자이다. 그러므로 십신으로부터 십주와 십행과 십회향까지가 자량위라면 이것을 대승의 수행자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자량위가 대승을 닦아 해탈분에 수순하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제된 십신을 발심위로 상정한 문아의 관심은 규기보다 더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생을 긍정과 희망의 존재로 이해하려는 문아의 대승의 마음과 일승의 지향을 읽어낼 수 있다.

**참고문헌**

원측, 『인왕경소』(『한불전』 제1책).
원측, 『해심밀경소』(『한불전』 제1책).
원측, 『반야심경찬』(『한불전』 제1책).
원측, 『성유식론측소』(支那內學院, 민국 24년 편집, 민국 27년 간행).
고영섭, 『한국불교 서명문아(원측)학통연구: 문아대사』(불교춘추사, 1998).
고영섭, 「동아시아 불교에서 유식 법상의 지형도」, 『불교학보』 제61호, 불교문화연구원, 2012.
고영섭, 「문아 원측 『성유식론소』의 연구」, 『문학 사학 철학』 제14호, 대발해동양학한국학연구원 한국불교사연구소, 2008년 가을.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봉 국태민안 남북평화통일 기원 및 일붕신문 창간 29주년 기념대법회 축

귀의삼보하옵고
신록이 짙어진 계절에 일붕신문 여러분들과 귀빈 여러분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사에 한획을 그어 놓으신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께서 29년전에 창간한 일붕신문이 어느덧 29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에 일붕신문 29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에 귀하를 특별히 초대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건승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56(2012)년 **7**월 **20**일 (음,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 불자가수 축하공연(제1부)
오전 11시 - 창간 29주년 기념법요식(제2부)
**장 소 :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홀**
(서울 용산구 효창동 225번지 효창공원내)
**문 의 : 02)777-0959**(대표전화), **777-0901**
* 점심공양제공 (프라자 호텔에서 준비), 주차장 완비
* 불자가수 특별 출연진 : 나운하, 강달님, 정도원, 현송, 선선호, 노성일, 연화 외 다수출연

**창 간 주** 일붕 서경보
**고 문** 석지산 대종사
**총 재** 박삼중 대화상
**회 장** 김도기 대화상
**수석부회장** 박청운 대종사
**상임부회장** 윤법흥 대종사 **부 회 장** 석정림 종사
**사 장** 동봉 정대룡 대화상
**발행인 겸 편집인** 이 붕 서병열
**편 집 위 원** 석법정, 송산, 고산(향운), 만주, 고재용, 보혜

**논설위원** 김성옥 **편집국장** 배영희 **편 집 장** 서혁기
**업무국장** 천명섭 **취재국장** 석청광 **취재부장** 서숙희
**편집실장** 이은아 **문화원장** 태 산 **사진부장** 전춘란
**사진기자** 임광용
**취재기자** 최춘희, 박정희, 조희원, 김동학, 김정훈, 최성철

**서울지사장** 최용국 **부산지사장** 김례수 **대구지사장** 나경일
**광주지사장** 장영기 **수원지사장** 대 현 **경기지사장** 인 오
**경기(광주)지사장** 이승원 **충남지사장** 석해광
**경남지사장** 고 석 **울산지사장** 김청호 **통영지사장** 이종근
**일본지사장** 산하승지 **미주지사장** 서주희
**미얀마지사장** 서은미 **일본북해도지사장** 김선미
**인도지사장** SINILKUMAR **스리랑카지사장** KARIBONG

**회 장 김도기 사 장 동봉 정대룡**
**일붕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이붕 서병열(민주평통자문위원)**
**임직원 일동 합장**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게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이는
집착으로 애를 태우네. 자신도 스스로 의지처가 되지 못하거늘
어찌 자식과 재산이 의지처가 될 것인가.

– 법구경 –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기도하실 분
법당기도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실 분
모십니다
(부산)
051)721-0449
010-3579-64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31)965-2807
010-4727-0311

##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불교 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 계룡산 천황사 기도도량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천명리강의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작명
개명 전문
보석암
주지 금봉
010-4063-008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주)
017-206-0113

공양주 보살 구함
(50세 후반 ~ 60대 중반)
가족 두 내외분
같이 오길 원함
(대전)
010-5209-7420

천고비전 육임학을
공부하실분
육임은 神視입니다. 신을
잘못 받아서 헤매이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십시오.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 하겠습니다.
011-729-6011

## 출가 1,2년차 비구니 및 행자(비구니 모집)

사찰에서 실시하는 소정 기초
교육 이수 후 출가자로써
열심히 기도정진할 수 있는
학력과 나이에 관계 없으며
사찰을 관리할 있는 자.
010-2669-1800
(안동) 영남산 지장사

##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강사
010-2418-6222

## 배 우 자 구 함

남 59세. 농장 운영 겸 회사원
텃밭 가꾸며 외로움과
노후를 함께 할 홀로 되신
진실한 여성 인연 바랍니다
(평일만 19시 이후 통화 됨)
010-4074-3073

부전
소임을
원합니다
010-3450-1147

## 기 적 의 물

- 만병치유의 자화육각수, 지상수, 암반수가 나오는 각 지역 사찰 한 곳만 지정하여 최저비용으로 설치가능
- 국내최초, 자장황토 '氣'토굴 쑥뜸방 설치)

010-4191-0455
무아스님 합장

## 심 와 기 도

● 전생과 이승의 업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 (급)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찰음식 잘하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부천 도심포교당, 급여 150만원 이상)
032)655-4133
꼭 오실분만 전화주세요

(급) 공양주 보살님
(50대) 모심.
(급) 처사님(60대) 모심.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서울 산속 조그마한 암자
02)954-9848

조계종 경북권 지장보궁 기도가 합수록 편안하고 힘있는 도량이오니 종파를 초월 자기 기도할 기도처 찾는 비구니스님을 절 보기 겸 국내3대보궁중 제2보궁이오니 기도하시기 바람. 그리고 40~60대 청결한 공양주 조석으로 자기기도하고 후원살임을 맡아 큰스님 공양받들 보살님 속히 구함.
(보시금은 도량 답사후 결정함)
국내제2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011-770-5313

## 전통 범음범패 (바라 · 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사물, 불교의식, 기초교리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6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2-1 서강빌딩 502호
연 락 처 : 051)442- 1818. fax 051-442-1817
010-9467-0340 (교육상담 성각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 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 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 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010-9468-1714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연령대는 40이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불자님
월급 관련은 면접 후 결정
월 4회 휴무.근무 6개월때
월급의 100% 보너스
사성암 종무소
061-781-4544
010-4709-4343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비구니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가야공원 내 사찰)
051)891-1051
051)891-7255

## 배우자 구함 (男 56세)

공인중개사 운영
도심 속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찾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진실한 여성 인연바랍
011-717-5316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정사
● 법 명 : 계 륜 (박은선)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4리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법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여래사
● 법 명 : 다 우 (고명덕)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40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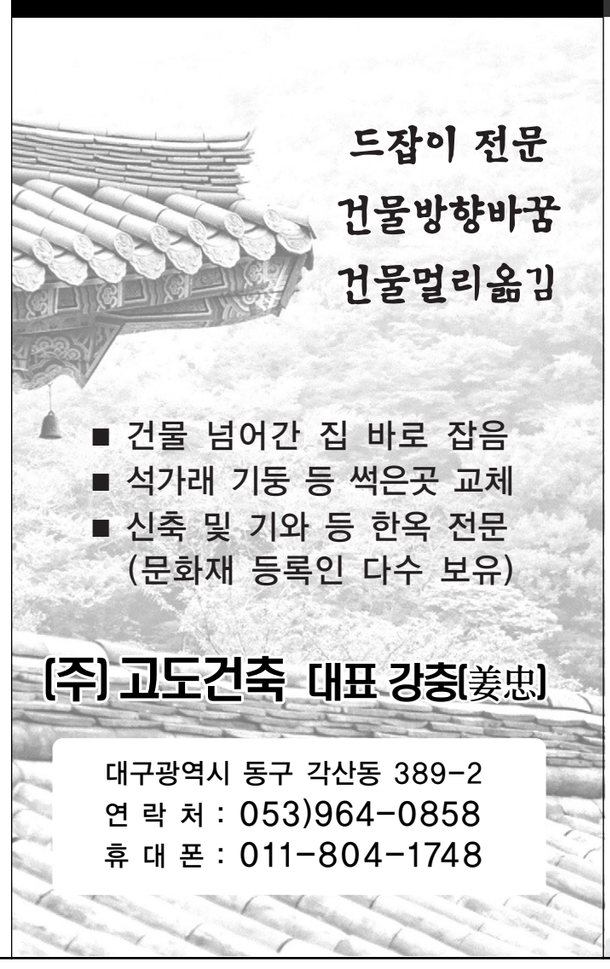
● 사찰명 : 승용사
● 법 명 : 정 은 (박덕희)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75-1번지

위 사찰들과 위 인들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6년 7월 18일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 고 (古) 건 물 수 리 전 문




##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 불자정보 26 | 897호 | 전면광고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6평
- 요사 : 190평
- 부지 : 510평
- 가액 : 15억

- 위치 : 부산
- 법당 : 44평
- 요사
- 부지 :17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북
- 법당 : 35평(5포7포)
- 요사 : 60평
- 삼성각 : 5(목조)
- 부지 : 220평
- 가액 : 20억(조정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좋은 토굴 터 (완도)

- 부지 : 600평
- 즉시 건축 가능
- 바닷가 500m 바다 전망 최고
- 포장도로 접, 소나무 뒷산
- 총금액 : 4200만원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 2400(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 주차장 200평
- 총금액 : 6억 8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도심안의 산중사찰

- 대:97평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가액: 3억(전세절충)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법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포교당 75평
- 대명5동58-7 [지하철30m]
- 8차선 대로변 버스정류소 앞
- 4층 건물에 3층
- 보 1000만 월세 75만=관리비 수도세포함
- 5존불 법당만 45평
- 시설비 1700만 조정가

053)657-0151
010-2273-7631

##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염포동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43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대지 533평, 법당 23평,
- 경관 전망 좋음, 구미 15분거리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
-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010-4514-3136
(스님직접)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정광면 병산골
- 2층 법당 : 아미타불, 지장, 진신사리 봉안, 후불탱화, 신중탱화
- 1층 공양간 및 스님방: 냉장고2, 에어컨3, 시수도지하수정수기
- 보증금 800만원 월 8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 외딴 곳으로 연꽃 연못, 텃밭 문앞까지 포장도로, 기도 도량으로 무상

010-8558-1237

## 사찰 및 수익사업 최적지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호선 인천지하철 W역세권)
- 대지 143평(상업지역)
- 3층건물(연 건평 200평) (주택 30평 별도)
- 사찰운영 및 별도, 수익사업 최적지임
- 평당 1천1백만원

010-3408-0003
010-2262-0001

## 사찰부지안내

- 경남 창원골프장 반대편 산등성이
- 전 4000여평중 무작위로 골라서 1300평, 분할도 가능
- 평당 110만원(70평 이축권포함)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짱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인구 110만명의 통합 창원시 도심 주변 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 사찰부지안내

- 통영시 棉花山 9부능선(해발 100m)
- 비럭계곡, 계획관리지역
- 전 600, 800평, 평당 25만원
- 자연의 고요함과 짙은 숲속 내음 사철 흐르는 물소리
- 산세가 목화꽃 같다는 棉花山큰 자궁터
- 안정국가공단 뒤산 이순신 장군의 대승첩지 고성군 당항포만이 바로 발밑에(세계공룡엑스포개최지)

010-9393-8945

##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 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소재
- 대형 3층 상가 內, 2층 43평
- 삼존불 및 법당시설 완벽
- 상가內 포교당 양도
- 가액: 1억 7천만원 (시세보다 저렴)

010-4668-6550

##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700만원, 상담후 결정

010-8390-6654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 불국사 맞은편
- 남산에 위치한 경관 좋은 명당터에서 자리 (땅주인 따로 있음).작은 암자 대작불사 하실분, 도통을 원하시는분, 불치병에 걸리신분이 이 터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2채
- 가액: 1억 5천만원

010-6488-2677
054)776-2677

## 포교원안내

-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01-2
- 층수 : 1층 건물 • 건평 약 30평
- 전용 주차장 5대 • 뒷마당 약 20평
- 보증금 500만원(월 60만원)조정가능
- 불사금 500만원 (연등 200개, 관음, 냉장고 3대, 에어컨 2대, 일체생활 구비되어 있음

010-4134-453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27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3억 3천만원

010-8034-8309

## 건 물 안 내

- 부산 지하철 1호선 역세권
- 포교원 하면 정말 좋습니다
- 대지 110평, 건물 800평
- 임대료 보증액 3억 월세 1400만원
- 융자 8억 • 가액: 27억

010-8676-227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근교
- 부지 500평 • 주차용이
- 대웅전, 극락전, 목조, 요사채
-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
- 가액: 5억 3천만원 (대출1억4천포함)
- 현지 답사 후 조절 가능

010-5262-5545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진군 북면
- 대지: 800평, 하천부지 200평
- 대웅전 23평, 산신각 4평, 요사채 방2개, 부엌1
- 화장실 남녀 1칸씩, 주차장완비
- 채소밭 70평, 각종 과일나무 및 꽃나무 많음
- 비닐하우스 2동
- 산 깊고 물 좋은 곳, 기도발 잘 받는 곳
- 가액: 2억 5천만원

054)782-0659
010-4847-0659

## 명 당 절 터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 요사(가정집 적벽돌) 35평
- 법당 조립식 17평
- 상담실 6평, 공양실 10평
- 양도 1억 7천 500만원
-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마을안에 있는 암자
- 주차공간, 아주 양호함 절아래
- 대형버스 주차가능

010-2326-1257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범어사, 남산 전철역 5분거리
- 5층건물 4층 5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관리비포함)
- 시설비 3백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모든시설완비

017-252-2722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기장군 청강리
- 평수: 65평, 3층의 2층
- 천수천안, 후불, 신중
- 방3, 주방, 탈의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48-2612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1-9725-319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 평수 226평, 법당 15평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 5백만원

010-4536-8175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범천4동
- 건평 34평, 대지 62평
- 가액: 1억(조절가능)

010-5505-6502
010-6689-5038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 평수 : 약 50평
- 법당, 공양간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4560-0058
019-482-3778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읍 천강리
- 50평, 단독주택
- 법당, 방3, 화장실 3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협의

010-9320-5469

##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6천만원 (2억 대출 됩니다)

010-3573-0481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 방1, 법당1, 주방1, 화장실1
- 보증금 2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없음

010-4558-3884

##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4층 건물 4층
- 평수 50평, 방2, 법당, 공양간, 최고시설
- 화장실2, 창고1,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상담 후 재절충 가능

010-6481-456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188평, 법당 23평
- 요사 37평, 지하암반수
- 전철 2014년 개통예정 (인터넷참고)
- 가액: 2억 5천만원 (대출 3,000만원포함)

010-3194-3738

## 포교원안내

- 위치 : 강남 분당 중간 모란역
- 평수 : 50평 (포교적격)
- 보증금 1천만원. 80만원
- 층수: 3층, 법당, 공양간, 방3
- 시설비: 3천 9백만원 (몸만 오세요)

010-2595-6026

## 사 찰 안 내

- 전남 도청 7분 소요
- 대지: 357평, 인법당 37평 요사 25평
- 삼층석탑
- 가액: 답사 후 결정
- 꿈과 미래 희망 발전이 있는곳
- 사찰년도 35년

010-4029-4888

## 포교원안내

- 경남 양산시 남부동 주택단지내
- 법당 삼존불, 신중, 영가단
- 방2,거실1,공양간1, 2층은 비어져있음
- 60평, 시설비무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개인 사정상 급양도

010-4036-3048

## 포교원안내

- 위치 : 북한산천년고찰
- 부지 : 500평
- 건물 : 30평
- 요사 : 70평
- 가액 : 4억

- 위치 : 경기화성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목조기와집)
- 요사 : 25평
- 가액 : 5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 큰절터안내

스님과 불자님께만 해당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참 괜찮은 땅1300평, 경남 창녕 길곡면 남향 뒤쪽과 옆쪽은 솔밭 마을 뒷편 포장도접 건축용형질변경 허가 받았던 길지, 큰스님 절터 감정받은 명당지, 전기가설완료료 작은 계곡 접 평당 17만원(부동산 사절)

中山 합장 010-3872-0354

## 生活佛教 하실 佛子님께

경남 마산 近郊 土窟에서 부처님 모신 촌집 法堂에서 垈地134평, 건평 39평 정원과 잔디심어있고 모든 비품 일체 제공 농약 안치는 菜蔬 먹고 살사람 총가액 1억 2천만원

011-578-1413 서연산 合掌

## 포교원안내

- 위치: 목포시 산정동 (사거리 코너 건물)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 칸막이 사무실1칸, 작은방, 화장실2
- 집기일체 양도 • 4층의 3층, 43평
- 길건너편 아파트 1400세대 공사 착공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2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감정동 소재
- 평수 56평, 시장인근 최요지
- 4층 건물 중 2층
- 대법당, 친견실, 스님 처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3565-4931

## 별장식암자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대지 290평
- 별장, 요사채 45평, • 법당, 조립식 17평
- 산자락 위치, 남향
- 조경 최상, 교통편리, 자동문 차고
- 가액: 3억 5천만원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 사 찰 안 내

- 위치: 청원 오창 IC인근, 대단위 아파트 거주, 추가조성중
- 부지: 약1750평 (대웅전 46평, 극락전 30평, 요사채 32평)
- 산신각 4평, 매점 4평, 공양간 15평, 부속창고 10평 등 등
- 가액: 25억, 남동향에 기운이 좋고 산수화려함.
- 내부관리 상태 최상
- 납골당, 수목장, 선방, 불교 학교부지로 활용하기 좋음
- 시내버스 사찰 앞 주차장까지 운행

010-5461-5515

##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500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 답사후 결정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장난전화사절

010-9342-8110

## 사찰터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 526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 평당 80만원 • 30평 허가나 있음
- 절충가능(최대1억5천만원 융자 가능)

017-855-6717
017-856-234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주택가
- 건평 50평, 대지 6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3565-4931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감전동 주택가
- 건평 50평, 대지 6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3565-4931

##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감전동 주택가
- 건평 50평, 대지 60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3565-4931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고 생각하며,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아함경 –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
- 병석 명상법 -

〈3〉 앎을 놓아버리는 앎

# 무엇을 아는 순간 이미 놓았을때 '빈마음'

### 고통이 심할수록 명상수행에 도움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동안에는 폭넓은 안목을 상실하기 일쑤입니다. 아직도 이것저것을 행하고,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시야를 막아버리고 맙니다. 수행 역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두달 시간을 쪼개내어, 어디 특별한 장소로 가서 명상에 잠긴다는 식의 수행 말이지요. 물론 수행의 핵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지요. 지금 당신이 여기서, 잠든 때를 제하고 이렇게 밤낮없이 병상의 고통과 싸우면서 행하고 있는 공부에 비하면 그런 수행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명상수행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심한 고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상이 무엇인지, 짓눌림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연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상을 지금 바로 여기서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통찰력을 계속 키워나감으로써 고통의 참모습, 그것을 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고통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잘못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으로부터 풀려나는 길입니다.

이런 수행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지요. 죽는 그 순간이나 죽음에 임박한 때까지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저 마냥 계속하고 있어야 할, 통찰하고 있어야만 할 그런 일입니다. 병이 호전되면 호전되는 대로, 악화되면 악화되는 대로 그저 들여다만 보십시오. 이와 같이 통찰력을 키워나가면 마음은 무지와 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애나 번뇌 같은 것들이 이전처럼 마음을 들볶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찰하는 데에 당신 모두를 바치십시오. 마음챙김을 놓치지 말고 쉼없이 정진하십시오. 모처럼 이렇게 법을 닦을 기회를 맞지 않았습니까. 금생이 당신의 마지막 태어남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시는 몸받아 태어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다시 태어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똑같은 시들픈 일들이 여전히 거듭될 것입니다. 일단 태어났다 하면 업장에 따라 희로애락을 무수히 겪으면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의 윤회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욕망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욕망이든 그 욕망이 마주쳐야 하는 것은 무상 · 고 · 무아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단지 번뇌와 갈애의 또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개를 드는 순간 바로 해체 시켜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번뇌나 갈애가 욕망을 선동하는 초기단계에 바로 해체시켜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지만 기실은 세 가지 갈애 즉 애욕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로, 모두가 '재생의 씨앗'들이며, 마음속에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싹트는 곳에 정확히 집중하여 수관을 들이대십시오. 비록 육처라는 감각적 접촉의 장은 갈애가 생을 일으키는 곳이긴 하지만 당신은 마음에, 즉 식(識) 그 자체에 앎을 정확히 들이댈 수 있고 그래서 '앎을 놓아 보내는 앎'을 그 자리에 대치시킬 수 있으니만큼 재생의 방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공부가 완전히 숙달돼 자유자재하게 될 때까지 계속 정진하십시오.

### 알아차린 그 앎마저 놓아버리세요

이처럼 알아차리는 앎(正知)을 똑바로 마음에 세우는 것, 이렇게 알음알이(識)를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집할 것도 없어지고 지식이나 견해에 매달리지도 않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물론 올바른 지식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끄달림 없이 앎을 놓아버리는 앎'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앎은 무엇이 일어나든 마음이 그것에 들러붙지 않게 해 줍니다. 무엇을 알게 되든 바로 그 즉시 그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아는 순간 이미 그것을 놓아버린 겁니다. 마음은 그저 빈 채로 있을 뿐입니다. 정신적 형성[行]과 사고(思考)로 부터,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갖 망상으로부터 비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런 것들을 재빨리 간파하고 놓아버립니다. 알아차리고 그리고 놓는 것이지요. 그 무엇도 붙드는 일없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떠나버린 상태가 바로 '빔'입니다.

**마음 앞에 '알아차림' 보초 세워**
**알음알이 곧바로 놓아버리면 '빔'**
**빈 마음은 마음의 본성 '空'**

**저절로 알아차리는 識도 버리자**
**식이 모여 識蘊되면 골칫거리**
**'나'라는 의식 계속 붙들고 늘어져**
**식이 비어 이분법 분별 사라져야**
**알음알이 놀음에서 벗어나**



그림=성륜 스님 '나비의 꿈'

당신은 이미 사물을 관하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수행에 한걸음 닦아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벌써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죽어감은 전적으로 오온이 벌이는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도 아니고 그 사건에는 '나'라는 것이 있지도 않다는 이 지혜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거기에는 빈 마음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꼬리표도 붙을 수 없는 빈 마음 말입니다. 이 빈 마음이 바로, 무엇을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 짓게 했던 그 싹들과는 무관한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 싹들은 이제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싹들에 대하여 수관하였기에 그러한 싹들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앞에 알아차림이라는 보초를 세워서 어떠한 알음알이가 일어나더라도 곧바로 놓아 보내 버림으로써 마침내 마음이 온전히 비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본연의 '빔'에…….

### 마음이 윤회 모형 짓는건 이분법 장난

의식(識)이라는 것도 속내를 알고 보면,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의식에는 본체가 없습니다. 의식(識)을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요소로 파악할 때 식계(識界, viññāṇa-dhātu)라 부르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에는 아무런 본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혹은 정신적 현상과 연계되지 않았을 때에 식계는 저절로 혼자 알아차릴 따름입니다. 순연한 알아차림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순연한 마음, 혹은 순수 본연의 고유한 식(識)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 식은 자신마저도 놓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알아차리시오. 그리고 그 앎마저도 놓아버리시오'라고 한다면 그 뜻은 사물을 감지하는 식을 알고 그러고는 그 식을 놓아버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이 모여 쌓여서 식온(識蘊, viññāṇa-khandha)이 되면 미상불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은 '나'라는 의식에 매달려 떨어지려 하지 않는데, 그 안에는 사물을 자꾸만 쌓아가려 드는 배(胚)세포들이 숨어있습니다. 식 그 자체는 원래 육체적 고통을 혹은 육체적 정신적 사건들을 모두 놓아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나' 의식은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앎을 놓을 줄 알라는 말도 바로 이런 식(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식을, 꼬리표가 붙을 수 없도록 철저히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이때가 식이 비어있는 때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또는 이런 각도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픔, 괴로움, 짓눌림 등 당신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또는 그 밖의 어떤 분별도 사라질 것입니다. 주와 객, 선과 악 등 일체의 이원성(二元性)은 더이상 효능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알아차린다면, 즉 알음알이 놀음을 놓아버리는 앎이랄까 순연한 의식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어떤 형태의 마음지음도 미연에 방지될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로 대립시키는 이분법, 그것들은 원래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겨납니다. 그 뿐입니다. 그들이 사라집니다. 그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좋고 나쁨을 끊임없이 왕래하며 나선형을 그려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랄까 의식이랄까가 끝없이 윤회하는 모형을 짓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이분법의 장난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음알이를 놓아버릴 줄 알게 된 이상 이런 이분법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즐겁다 괴롭다, 진짜다 가짜다 등등의 꼬리표를 더이상 붙들고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놓아 보내기만 계속할 뿐입니다.

아찬 꺼 카오-수안-루앙
(1901~1978 태국여성법사)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 중 32편 〈병상의 당신에게 감로수를 드립니다〉의 내용입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강화 고려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00 ~ 03: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현우경' 이야기 (29)

# "자비심 내면 쓰레기 모자도 보석으로…"

## 쓰레기 모자를 쓴 파파야스



삽화 · 강병호

어느 날 부처님이 입적하기 전, 아난다를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죽고 나면 바라나시에 구제라는 거사를 찾아가거라. 그에게는 우바국다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데려다 출가시켜 불법을 가르쳐라. 네가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사람에게 내 뜻을 전하거라."

시간이 흘러 아난다도 입적하게 되자, 부처님의 뜻을 그의 제자 야세기에게 전했다. 야세기는 아난다의 말에 따라 바라나시로 가 구제를 찾았다. 그때 구제는 아파구제라는 남자아이를 낳았다. 야세기가 구제의 아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뜻을 전했다.

"아파구제는 저의 첫 아들이라 제 뒤를 잇게 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 그 아이를 출가시키겠습니다."

그 다음해, 구제는 난타구제라는 아들을 낳게 됐다. 야세기는 또 구제를 찾아갔다.

"첫 아이는 제 일을 잇게 하고, 둘째에겐 집안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땐 반드시 출가시키겠습니다."

구제는 자신의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다. 시간이 흘러 구제는 셋째 아들을 낳게됐다. 이름은 우바국다였다. 우바국다는 용모가 매우 뛰어나고 총명했다. 야세기는 우바국다를 보고 생각했다.

'존자가 말씀하신 우바국다가 바로 저 아이로구나.'

야세기는 구제에게 우바국다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다. 구제도 이번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 조금 더 자라면 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비범함을 보였다. 우바국다가 20살이 되던 해, 야세기는 우바국다를 찾아갔다. 우바국다는 야세기의 말에 따라 출가했다. 그는 출가를 하자마자 도를 깨쳤다. 우바국다는 도를 얻은 후, 대중들 앞에서 많은 설법을 했다.

그 나라에는 파파야스라는 이가 함께 살았다. 그는 우바국다가 대중들 앞에서 설법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우바국다가 설법하고 있는 장소에 나타나 금화를 뿌려, 사람들이 금화를 줍느라 설법을 듣지 못하게 했다. 또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미인들을 데리고 와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우바국다에게도 여자를 보내 유혹하게 하는 등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파파야스는 매일 같이 우바국다 앞에 나타나 설법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우바국다는 파파야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설법하는 데만 집중했다.

어느 날 우바국다가 선정에 들어 있을 때였다. 파파야스는 그 틈을 타 우바국다에게 요상한 모자를 씌운 후, 사람들에게 우바국다는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흉을 봤다. 우바국다는 파파야스를 불렀다.

"자네가 나에게 좋은 모자를 선물해줘, 나도 고마움을 표시로 선물을 준비했네."

우바국다는 파파야스에게도 모자를 선물했다. 파파야스는 별 의심 없이 그 모자를 냉큼 썼다. 그러자 모자가 쓰레기로 변했다. 파파야스는 얼른 그 모자를 벗어 버리려 했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모자가 벗겨지지 않았다.

결국 파파야스는 제석천왕을 찾아갔다.

"제석천왕님, 제발 이 모자 좀 벗겨주십시오. 제 머리에서 썩은 내가 진동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자는 그것을 만든 사람만이 벗길 수 있다네. 내 힘으론 어쩔 도리가 없네."

파파야스는 하늘에 있는 여러 왕들을 찾아가 물었다. 결국 아무도 그 모자를 벗겨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우바국다를 찾아갔다.

"제발 이 모자를 벗겨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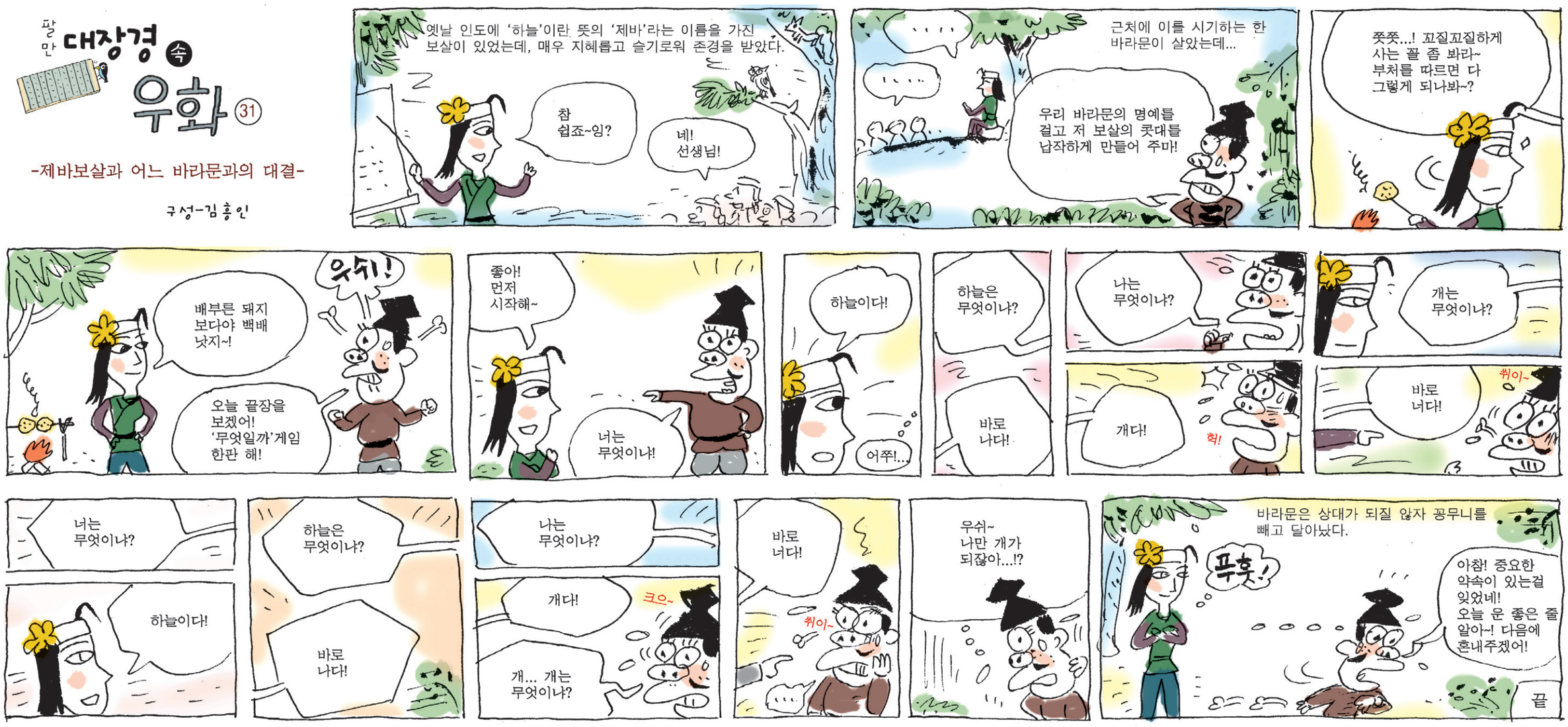
"너는 너의 죄를 알겠느냐."

"예 부디 저를 가엾게 여겨 이 모자를 벗겨주십시오."

"네가 진심으로 자비심을 내 중생을 사랑하고 보호하면 그 모자가 보석으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나쁜 마음을 내면 쓰레기로 변할 것이다."

파파야스는 이후, 늘 착한 마음을 내며 살았다. 우바국다는 그 후로도 여러 중생들을 제도해 불법을 알렸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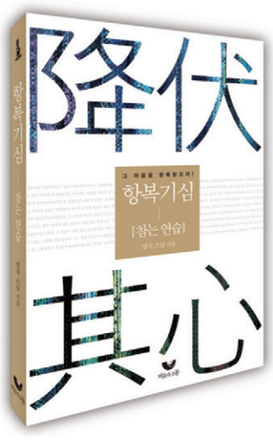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참음이 제일 가는 도道이니 중생의 마음에 걸림이 없게 하라"




하심 · 인욕 수행지침서
항복기심
– 참는 연습
영곡스님 지음
신국판 | 부분 컬러 | 334쪽 | 12,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진정한 참음은 '참된 자신'眞我에 머물고
성스런 참음은 중도실상中道實相에 안주하는 것

팔공산 절벽에서 목숨 건 정진 끝에 종교적 체험을 얻은 저자(조계종 수좌)는 삼매 중에 많은 전생을 돌아보며 당신의 업보를 알게 됐다. 마음속의 원망등을 해소하고 거룩한 자비심을 깨달은 그는 불자들이 인욕바라밀을 닦아 무한한 행복을 누리길 발원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맹파명리 중국 단건업 선생 초청 특강

기존 명리의 단점 극복과 명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세계적 명리학자 단 건업 선생의 강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 단건업 선생 강좌 및 상담 일정 –

- 일 시 : 2012년 8월 12일(일) ~ 8월 17일(금)
- 강의시간 : 오전 10시 ~ 1시, 중식 : 1시 ~ 3시, 3시 ~ 6시 [하루 6시간 6일 강의]
- 강의수준 : 중급수준 [2012년 최신자료]
- 강의장소 : 신설동 한국전통아카데미학원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 강의비용 : 85만원 (7월20일까지 등록자에 한해 강의교재 무료제공)
- 강의방법 : 동시통역강의 . 강의교재 : 한글번역제공
- 등록방법 : 사전등록제 (선착순등록마감) 농협 352-0447-8973-63 예금주:박형규
- 강의유의사항 : 녹음금지, 동영상 촬영금지, 내부자료 외부누출금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금지합니다]
- 주요강의내용 : 체용, 빈주, 주공, 적신포신, 허실의 응용, 상법의 응용, 합의 응용, 충의 응용, 부귀팔자 잡아내는 법
- 상담안내 : 8월 12일 ~ 17일중 단건업 선생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 연 락 처 : 031)918-7550, 011-1743-0543
- 홈페이지 참고 : www.mangpa.co.kr

학산맹파명리연구원



대행 스님



#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일체를 다 이끌어 갑니다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할는지요**

**문)** 최근에 현대불교신문에서 스님의 법문을 접하면서 다시 한 번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문외한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이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의 모든 살림살이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주인이 있습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의 주인, 주인공, 이 자체가 모든 일체를 다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 주인공은 항상 일체 만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림살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내 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모든 것은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해 줄 수 있다. 거기서만이 병고를 낫게 해 줄 수 있다. 모든 애고를 면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한군데 맡기고 가시는 겁니다. 생활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부터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몸뚱이를 끌고 가는 운전수와 같은 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가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하면서도 이 세상 전체 우주를 그 마음에 담아도 손색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현상은 바람과 흙과 물, 불, 이 네 가지가 모두 여러분의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네 가지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광대한 법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갈 때에, 즉 말하자면 컴퓨터에 여러분이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듯이, 현실에 모든 것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한테, 자기 마음 깊은 정신세계의 주인공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살아나갈 때에 바로 컴퓨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고 되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되입력을 함으로써 앞서 입력된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가 다 과거로부터 현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되할 때, 주인공에 다시 입력을 할 때 앞서의 모든 것이 없어지면서 현실에서도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즉,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근본이 되고, 마음을 내는 거며, 육신을 움죽거리는 거며, 그 삼합이 한데 합쳐서 작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하는 즉, 미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내 자신의 참마음의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어떠한 애고든지 거기다가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셨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정신계의 참나의 자성 자신은 이 우주와 이 세상과도 전부 연결이 돼서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타의에서, 바깥에서, 즉 '주여! 부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내 자신의 주인공,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작용을 할 때 100%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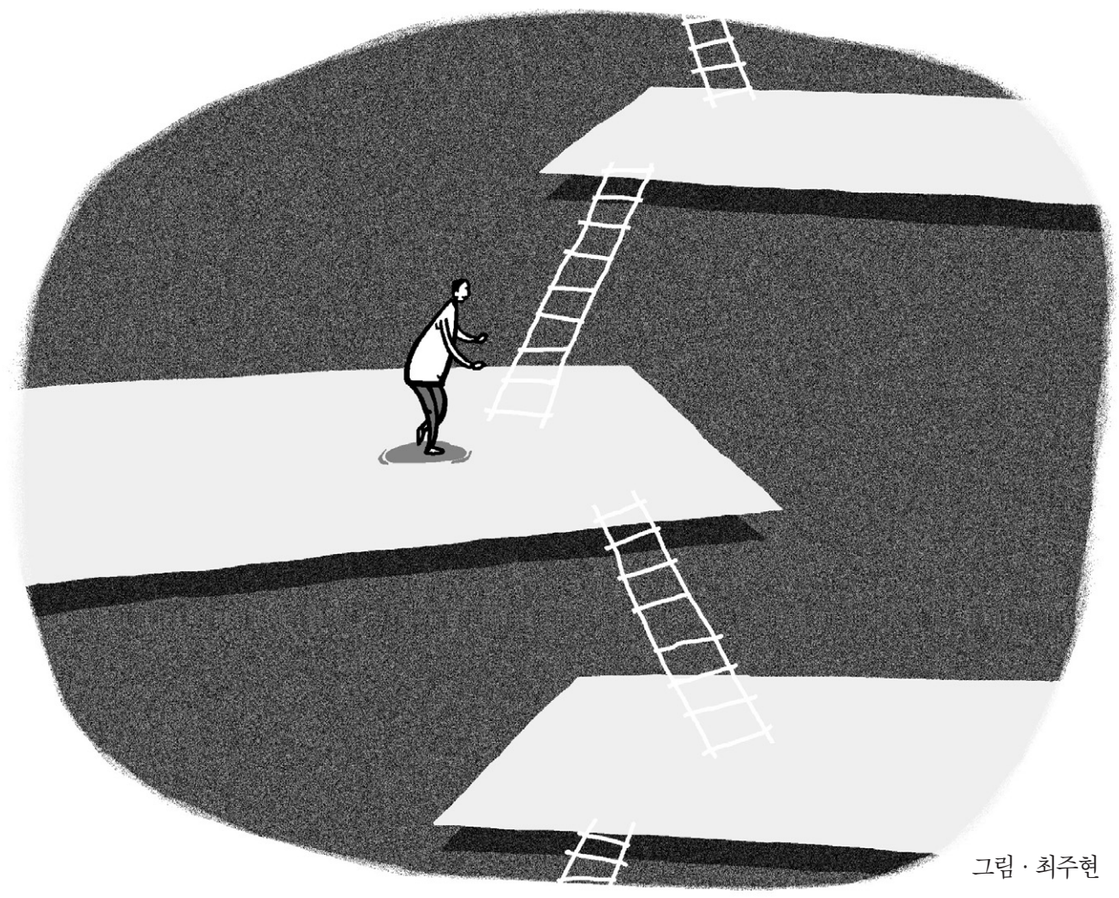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집착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문)** 마음공부에 인연돼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내 자신의 문제는 잘 놓아지는 것 같은데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놓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놔지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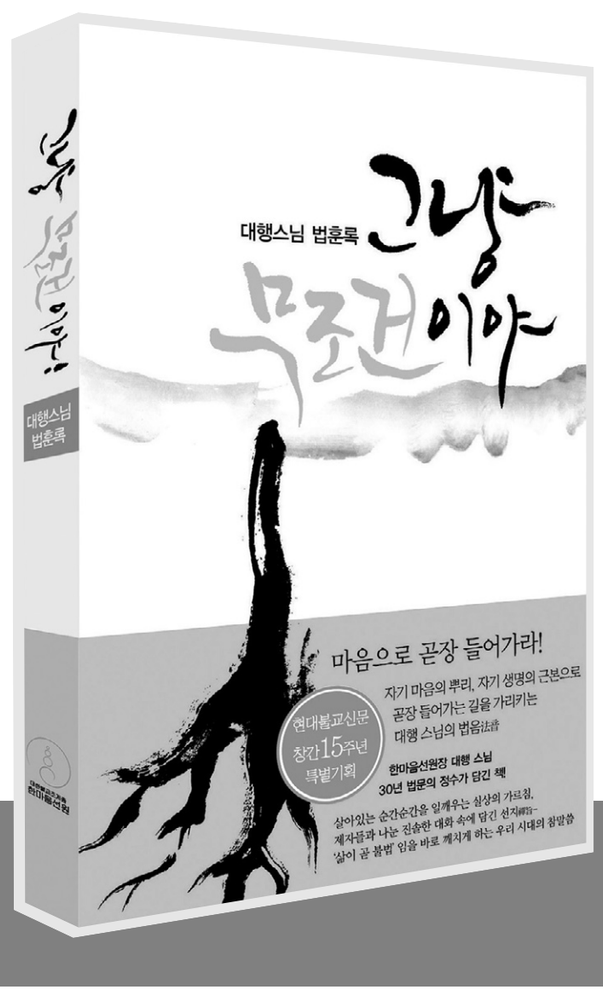
**답)** 이 마음이라는 게, 빛은 가다가도 어떠한 연고가 생기지만 마음은 은산철벽도 뚫을 수 있고 어디로든, 남의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식이나 남편이 정히 안됐을 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말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할 때에 바로 내가 남편한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한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되고 그러는데, 어째 나만은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이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도 마음의 조작입니다. 돈이 있어도 도둑질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죽일 것도 아닌데 죽이거든요, 또. 이게 마음의 조작이란 말입니다. 고가 있느니 집착이 있느니, 그게 고와 집착만 없으면 멸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이 집착,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고 그렇다면 고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서 '고' 라고 하는 거지.

보세요, 강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를, 기껏 그냥 흘러갈 거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럭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강물이 그냥 흘러가다가도 그냥, 그냥 가서는 걸려 버려요. 그러니 안될 수밖에. 왜 안되겠어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강물 흘러가듯 하는 건데.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저것 보면 이것 봐야 하고, 이것 들었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저 사람 만났으면 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것 했으면 저것 해야 하고 이게, 매사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고정됨이 없이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냥 말을 해도 벌써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로 과거로 흘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요, 자꾸. 여러분이 살면서 붙잡는 게 고(苦) 인(因)이에요. 잘되는 건 붙잡지 않는데 잘못되면 더 더욱 붙잡고 늘어져요. 아, 좀 느긋하게, 어떠한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좀…. 나무가 자기 뿌리 없이 사는 거 보셨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뿌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싹으로 올려보내야 싹이 푸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자기 뿌리는 얻다가 팽개치고 이름이나 형상을 보고 찾아다니며 기도를 하려고 하니 그게 통신이 되나요? 이 나무가 저 나무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될까요? 자기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게 자기네들이 마구 붙들고 그래 가지고선 그릇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건 다 놓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 바깥으로 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안으로 돌리세요

☞ 29면에서 계속

가는 건데 왜 마음을 그렇게 놓지 못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걸 놓게 되면 그냥 저절로 풀려서 돌아갈 걸 외려 붙들어서 풀려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집도 없고 아주 어려워서 죽겠으니깐 날더러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돌보지를 않고 이럭하니 우리가 애들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다 버리고 길바닥에서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내가 우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나 보여요. 세상에 저렇게 마음을 다 비우고 저렇게 아무 데서나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절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그건 드물죠. 그러자 그 사람은 부모가 찾아서 다시 그 회사에 아들을 내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깐 마음과 마음의 인연도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참 묘하죠. 마음은 빛깔도 없고 잠글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음파가 전도되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즉 말하자면 사람의 에너지도 전도가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먼 외국에서 말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디서 하혈이 되는 걸 모르고 인제는 생명이 위태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그게 말로 할 일입니까, 그게? 이건 왜 내가 잘났다고 이런 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것은 실험해서 살아나가는 데에 좀더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알았어." 이럴 수밖엔 없죠. 하지만 "알았어." 할 때 그 에너지는 전도가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자기가 몇만 개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지금 땅덩어리에서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어디서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차원이 높아져야 차원이 높은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차원이 높아지고 그러는 반면에 높은 데로 걱정 없이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 이 소립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문)** 요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전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뭐 원인 모를 어떤 정신적인 질병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사람사람이 진짜 50%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무의 50%, 유의 50%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 인간의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 사유 한데 합쳐서 본다면 그것이 바로 100%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나, 모두 각자 나, 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처님 앞에다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절이나 하고 비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지 사람이 귀신 노릇 하지 않는데 무슨 귀신이 있겠습니까.

그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항상 자는데, 언제나 잘 때는 묘지를 베고 잤는데 아, 귀신이 막 머릴 풀어 산발을 하고 내 집에 침입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타의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의로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항복을 받을 줄 모른다면, 또 항복을 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미신이 돼 버리고 말죠. 자기를 자기가 발견했어도 그걸 커버를 못한다면 그건 미신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알면 미신도 자의, 자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시식을 지내서 낫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타의에서 들어온 그 마음을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코치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데도, 자기 주장자가 있는데도 또 하나가 들어가니까 순간 자기가 됐다가, 순간 딴 사람이 됐다가, 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미친 짓이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 이 마음이 제일 첫째 문제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공부, 즉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안으로 돌리세요. 안으로 의지하고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바깥에서 끄달리지 말라고요.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난 것도 그렇고 움죽거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나의 바로 주인공에 의해서, 자성에 의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자성에 의해서 나왔다면 자성에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자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서 병이 생겼다면, 병이 생기게 한 놈이라면 병이 낫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놔라 이겁니다. 병이 있게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는데 병 낫게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겠어요? 한번 뒤집어 놔라 이겁니다. 병뿐이 아니라 사람 사는 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에 한해서는 돈 한 푼 없이 맨손 들고 나가도 다 이 오방신장이라든가 호법신장이라든가, 또 화신이라든가 보신이라든가, 다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수십억이 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갖다 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 대로 갖다 주고 다 갖다 바쳐요. 바치는데 그것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당당하게 먹는 것뿐입니다. 당당하게 쓰고 당당하게 갚고 당당하게 먹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도도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나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그렇게 서로 울 때는 같이 울어 줄 수가 있고 웃을 때는 같이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말로만 듣고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시고 자신이 행을 그대로 해 보세요. 한번 요동치고 한번 정말 몸부림치지 않고서 나를 발견하겠어요? 그 습이 끼었는데. 구태여 좋은 거 먹을 필요가 뭐 있고, 구태여 남이 좋다는 거 다 할 필요가 뭐 있고, 남이 가면 낫는다 하는 거 다 쫓아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의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간호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관세음을 가지고 있고 지장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나 의식적으로, 물론 감각이나 청각이나 뭐, 시각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거를 요것 조것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자기 그 소용돌이 속에 그냥 탁 놨을 때 그 묘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 여러분이 한번 요동치고 한번 몸부림 치지 않고서
> 어떻게 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 그 습이 끼었는데.
>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것을 요것 조것 따지지 않고
> 자기 그 소용돌이에다가 그냥 탁 믿고 놨을 때
> 묘법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참선하면 어떨지요.**

**문)** 생활 속의 참선이라지만 그냥 막연해서 시간 정해 놓고 참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놓는 것이 참선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똥 누고 밥 먹고 자고, 그냥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그냥 명상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앉아서 좌선을 하고 싶으면 앉는 것이 그대로 일하면서도 참선이요, 자면서도 참선이에요. 아니, 그러면 앉았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고 참선을 안 할 때는, 좌선 안 할 때는 그럼 지구가 안 돌아갑니까? 모두가 자나 깨나 돌아가요, 그냥.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모두들 공부한다고 토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선을 하고 꽉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일어나지도 말고 오줌 누지도 말고 똥 누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이 돌아가는 진리가 끊어지지 않지,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고 하니까 고만 무릎을 탁 치고 깨쳐서 일어났단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 회양이 말입니다, 가만히 마조 스님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냥 좌선을 하고 앉았는데 그냥 뭉치고 앉았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얘기 다 아시죠? 아, 그래 기왓장을 갖다간 그냥 그 좌선 하는 앞에 앉아서 싹싹 갈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깐 또 마조는 "스님, 그거 뭐 하시려고 기왓장을 갈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구, 망령나셨군." 그러니까 "내가 망령 났다 한다면 너는 그거 뭐 하려고 앉아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를 이루려고 그럽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면 부처가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그때 그만 선뜻 그 뜻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라니깐 모두 헛들으셨나 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말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사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고 싶으면 앉고 그러지, 누가 그럭하지 말라나요?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딨습니까?

**직장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문)** 저는 직장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하는 일도 부담스러운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부딪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어떡하면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살다 보면 그런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은 금방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면 괜히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자기가 괴로워해도 안될 거를 괴로워했음을 알게 되곤 합니다. 현재 짊어지고 있는 건 모든 걸 통틀어서 내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내 운전수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내가 아니다. 바로 운전수가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뚱이는 차예요.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그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무조건, 무조건 못났든 잘났든 믿으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고 자기 운전수에다가 맡기시는 작업을 하세요. 왜, 우리가 용광로에다 헌쇠 모두 갖다 쓸어 넣죠? 그러면 새 쇠로 생산이 돼서 그냥 나갑니다. 고런 작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참 이게 재미있는 우리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약에 한 일 년이라도 이렇게 해 나가신다면 정말 즐거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천당에 가자고, 승천하자고 지금 이렇게 믿고 빕니까?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딨습니까? 오늘 즐거움이 있어야 내일도 즐거움이 있는 거지, 오늘 즐거움이 없고 그냥 상을 찌푸리고 만날 무겁게 두 어깨에다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삶은 삶의 보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짊어지고, 너 그렇게 해서 요다음에 천당에 가거라." 그러고선 그렇게 49년 설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재료가 있으니 해맑게 청정하게, 자유스럽게 써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삶의 보람을 가져라." 이런 거지, 아니 "요담에 죽어서 너 천당에 가거라." 이러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오늘도 내가 그렇게 모르는데 아이, 어떻게 내일 천당이 있겠습니까, 글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신다면요 바로 마음이 편안하게 됨으로써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인데 그 천국에서 또 생산이 돼서 참 즐겁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중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를 싸잡아서 내가 그 활용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 (상 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사부대중 칼럼

# 종교인 소득세 납부 시행 미루지 말자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의한 종교인(교직자)수는 불교 49,408명, 개신교 95,596명, 가톨릭 14,596명을 포함하여 364,797명이다. 이 수치에는 정부가 종교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속인, 역술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종교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적어도 50만 명 정도가 된다.

문제는 이들 종교인들 중 일부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종교인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혹은 단체)만 세금을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에 대해 세금을 과세, 징수해야할 국세청은 60년 관행이라 하여 종교인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하여 외면을 하다가,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의 국세청장 고발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후로도 계속 검토 중이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 항목에 대하여 열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등이다. 목회자, 승려, 신부 등의 소득은 이 항목에 있지 않다, 즉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규정에 없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등을 규정한 민법의 제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상기 민법과 세법 등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을 육성하고 보호,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19가지 정도의 각종 세금을 면제 혹은 감세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우리 법은 비영리법인에게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의무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은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종교인은 영적 봉사자인가, 근로자인가? 둘째,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인가? 셋째,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등이다.

종교인 소득세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던 2006년 무렵, 극렬하게 과세불가 입장을 견지하던 개신교 목사들이 이즈음은 많이 바뀌었다. 박 장관 발언 이후 한국교회언론회는 "종교인 과세,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 됐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소속 목사들의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대한성공회도 지난 6월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공식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서도 목사들이 매월 받는 사례비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지 '근로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음도 현실이다.

종교인 과세는 현대의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건설과도 관계가 깊다.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서 확보되는 세원을 차치하더라도 특히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신고함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교인 과세를 미루는 것은 박 장관이 밝혔던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며 실정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행해졌던 여론의 반향이나 최근 보도된 대부분의 언론사 사설에서도 종교인 과세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주장했던 주류 개신교 단체들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종교인 소득세 납부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러하면 결론은 자명하다. 정부는 지금 즉시 종교인에게 과세를 시행해야만 한다.

지난 7월 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가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라면서 "8월에 세법 개정을 발표한다. 이 때 목회자 납세가 바람직하다는 큰 틀에서 납세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실무자의 이러한 발언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불자 세상보기

# 종립학교에 불교사학과 개설해야



진관 스님
종단협 산하
불교인권위원장

우리 국민들이 대한불교조계종 등 27개 종단이 가입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그동안 꾸준히 전개해온 불교 수용과정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민족의 혼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교역사를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위에 존재해 온 민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불교 역사는 승단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범종단적으로 고대 불교 수용의 역사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불교문학, 불교경제 등 다양한 불교사상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한국 불교계는 중국 송나라 시대에 우리민족이 수용했던 교학불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송나라 선불교는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도교의 한 부분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민족이 수용했던 불교역사를 멀리한다면 한국불교의 희망적 미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국가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기 민족의 근간과 뿌리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과거 불교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불교의 간절한 수용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이차돈의 순교 역사를 바로 알기를 바란다. 또한 조선 시대 국가에 의해 탄압 받던 불교역사를 회복하고 전승하려던 보우, 서산, 사명, 지안 선사를 비롯해 근대에 이르러서는 백용성 스님, 만해의 불교사상과 불교역사의 존치를 우리가 전승해야 한다. 그것이 후세에 남겨진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요 과업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불교역사를 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먼저 역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배움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이에 동국대, 중앙 승가대, 위덕대, 금강대 등 불교 종립대학에 불교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불교사학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한다.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종립대학에는 불교사학과가 개설돼 있지 않다. 또한 강원과 선원 등도 현실은 마찬가지다. 즉 불교역사를 전공해 불교역사를 가르치는 학과가 없는 것이다. 물론 불교계 대학에서도 불교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데 일반대학에서 불교역사를 가르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한국불교계는 우리 민족이 수용했던 불교역사를 바르게 고찰해야 한다. 우리에게 현전하는 역사의 기록을 논한다면 고려 시대 김부식의 〈삼국사기〉, 각훈의 〈해동고승전〉,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 〈고려사절요〉 등을 들 수 있다.

불교사학과를 설치해 이런 책들부터 깊이 있게 공부 한다면 올바른 불교사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즈음 아무리 대학들의 현실이 취업 잘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좋은 인기학과만을 선호한다지만, 종립학교만이라도 우리 불교의 뿌리를 찾는 불교역사학과를 만들어 우리 불교의 근간을 바로 알게 해야 한다.

근대에 와서 우리 민족불교의 역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 침해 받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불교인들은 물론 한국의 정치인들 또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립학교 안에 불교역사학과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社說

# 수도권불교 포교대책 시급하다

대한민국 인구 1/3이 모여사는 수도권은 종교에게는 중요한 포교·전도의 장이다. 하지만 불교는 수도권에서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중 불교를 믿는 비율은 약 16%인 반면, 개신교는 23%, 천주교는 13%에 이른다. 천주교의 상승세는 가히 두려워할 만한 수준이다. 신도시 포교의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13개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 중 개신교는 72.2%, 천주교는 17.7%, 기타 종교는 6.3%의 종교용지를 확보했다. 반면 불교는 한국SGI, 천도교, 영생교보다 낮은 3.8%에 그쳤다. 수도권 2등 종교 위치도 이제는 위태로울 지경이다. 아니, 이만큼 버틴 것도 다행인 일이다.

수도권불교의 이런 상황은 기존 교구 지역들이 현행 국가 행정 구역이 불일치되는 데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직할교구 분구화를 주요골자로 한 불교사회연구소의 '수도권불교 활성화 방안'은 눈길을 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기존 수도권 교구를 현행 행정구역에 맞게 재구획하고 직할교구를 서울 강북, 강남 인천으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큰 틀에서의 직할교구를 대리구 형식으로 세분화하고 교구본사대리사찰을 지정해 짜임새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분구된 지역을 다시 2~3개 지역으로 묶어 총 18개 지역을 지정하고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획기적인 발상이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불교사회연구소의 방안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타개책이 있다면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 무엇이라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 끊이지 않는 공직자 종교편향

장애인 판사로 잘 알려진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종교편향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부목사 사택을 이례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울산 지역의 성시화 운동도 주도했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행적은 7월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논란 거리였다. 여야 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김 후보자는 당당했다.

김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지만 판결이 종교 편향이란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지적했던 것은 판결보다는 그 과정에 있던 일련의 편향성이었다.

사랑의 교회 지하도로 점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서초구정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7월 10일 구정 질문에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교회' 사안은 이제 서초구와 주민간의 소송으로 번질 위기에 봉착했다. 화합의 상징이 돼야 할 종교가 분란과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초, 불교계의 반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생겼고, 지난해까지 14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8건이 종교차별로 최종 결론이 났고, 이들 모두 개신교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 사례였다.

개신교인들의 교리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할 공직자가 자신의 종교 교리에 맞춰 세상을 재단한다면 그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유황불 가득한 지옥이다. 예수님도 거리의 고성 기도보다 골방에서의 조용한 기도를 사랑한다고 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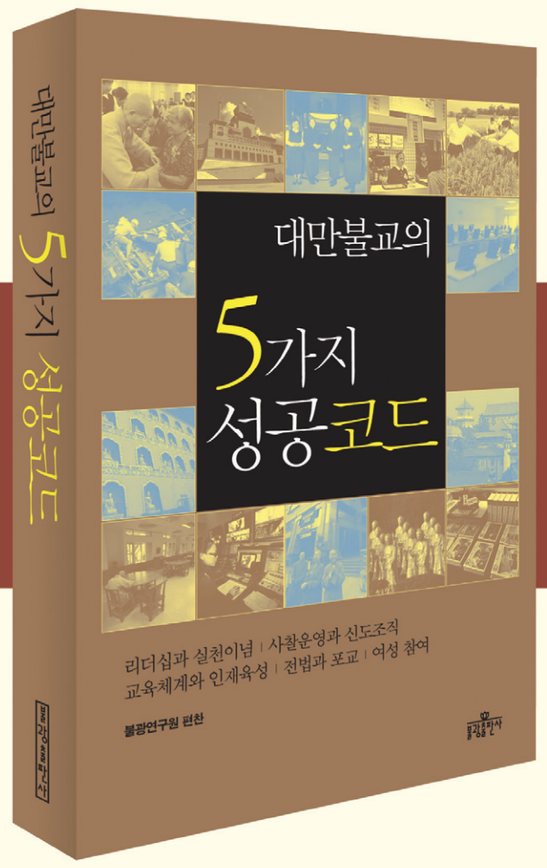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이 재 진 | 051)632-0064 / 011-488-7745 |
|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
|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
|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
|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




비약적으로 발전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 비결

세계 대승불교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대만불교
전문 학자들의 현지 조사와 최신 자료에 근거한 대만불교의 현황과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분석

•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간불교'의 실천이념 • 투명한 사찰 운영과 체계적인 신도조직
• 현대적인 교육체계와 적극적인 인재 육성 • 활발한 전법과 도심포교 •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불광연구원 편찬 | 신국판
456쪽 | 값 23,000원

대만 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우리 아이 인성교육 ❺
마법의가면

프랑스 최고의 그림책에 수여하는
2012년 마녀상(프랑스의 칼데콧 상) 최종 후보 작품

아이의 들쑥날쑥한 감정 표현을
열린 시선으로 바라본 환상적인 마법 가면 이야기!




내가 주운 마법의 가면만 있으면,
원숭이와 곰과 늑대로
변신해서 마음껏 장난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동물로 변한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죠?

스테판 세르방 글
일리아 그린 그림
이정혜 옮김
값 10,000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이사진 및 정회원 수시모집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